(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87~788 1982년4월2일(금).3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April 2 & 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고부장 : 송 광 호

APR 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1

캐나다 최대의 작가
마가렛·앳트우드의 세계

(편집자주) 캐나다에 살면서도 캐나다 문화와의 거리를 그다지 좁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곳의 작가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캐나다 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토론토 작가 마가렛·앳트우드의 내면 세계를 통해 캐나다 문학을 엿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와의 대담을 소개한다.

이 대담은 앳트우드가 최근작 소설 상처(Bodily Harm)를 펴낸 뒤 토론토·스타지의 종교담당 편집인 탐·하퍼(Tom Harpur)와 가진 것으로(*토론토·스타 81년 10월5일자) 그녀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소제목들 『작가와 세계』, 『종교』, 『죽음』, 『가정·성』 등은 번역을 맡아준 본지 논설위원 김정근씨가 붙인 것이다.

앳트우드는 장편 〈인간 이전 인생(Life before Man)〉, 〈파도타기(Surfacing)〉, 〈예언녀(Lady Oracle)〉, 〈식용여자(Edible Woman)〉등의 장편과 단편집 〈춤추는 여자들(Dancing Girls)〉등의 소설, 〈당신은 행복해(You are Happy)〉, 〈지하를 위한 절차(Procedures for Underground)〉, 〈원형놀이(Circle Game)〉등의 시집을 펴냈다.

◇마가렛·앳트우드

특히 앳트우드의 평론집 〈살아남기(Survival)〉는 캐나다 문학(Can-Lit.)의 특징과 흐름을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분석해낸 문학비평집이다. 이것은 캐나다 문학사의 중요 이정표적 저서로 평가되고 있다.

앳트우드는 캐나다 작가로서뿐 아니라 미국, 영국등의 문단에서 "현대의 주요한 영어작가"로 평가받는다.

"만만찮은 시인, 현명한 비평가, 탁월한 소설가, 여권주의자, 국가주의자요 우리 문단의 최고의 히로인… 뛰어난 작가"등으로 평가되는 것은 캐나다문학에서 그녀의 위치를 잘 말해준다.

1939년 오타와에서 태어난 앳트우드는 현재 토론토및 온타리오주 앨스톤의 농장에서 집필중이다.

〈3면에 계속〉

◇미녀후보 제1호 석인혜양

—'82 미스코리아 캐나다—
후보제1호·석인혜양
스피치에 뛰어나고, 스튜어데스가 꿈

「한국제일의 미녀」를 위한 도전자1호가 나왔다.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한달앞둔 30일 제1 호로 등록한 후보는 이토비콕에 사는 석인혜양. (그레이스·석 18세)

재캐나다 탁구협회 석종윤이사의 1남1녀중 장녀로 63년7월7일 서울서 태어난 인혜양은 국민학교 6학년때인 7 년전 캐나다로 이민왔다.

한국시절 전국어린이 웅변대회에 입상하는등 웅변에 뛰어나, 작년가을 「우리말잘하기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오빠 석남일군이 있다.

인혜양의 특기는 웅변, 특히 불어스피치에 뛰어나다고 한다.

현재 고교 졸업후 개인회사 타이피스트로 근무중인 석양의 취미는 수영과 댄스, 장래의 스튜어데스가 되는것이 꿈이란다.

신체조건은 키 1 61 cm, 무게9 8파운드, 35-23-35의 체격을 갖추었다.

버팔로 이민창구는 붐빈다
이민및 비자「외국 신청」조항 덕분

(버팔로=유승민기자) 캐나다 이민규정이 요구하는 「제3국에서의 이민 신청」조항 때문에 미국 뉴욕주의 버팔로 소재 캐나다영사관 이민창구는 항상 붐빈다.

30일 현재의 이민신청자는 4~6주여야 이민관과 인터뷰를 갖는다.

버팔로는 토론토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다.

캐나다방문중 결혼자, 유학생으로 이민을 신청하는자, 투자이민자등은 본인이 직접 캐나다밖에서 이민을 신청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토론토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버팔로 캐나다영사관을 찾는것이다.

신청자는 인터뷰때 또한번 영사관에 가야한다.

3월들어 하루10건씩 접수. "4명의 이민관이 무척 바쁘다."고 말하는 데니스 이민관은 "이중 대부분은 토론토에서 온 사람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버팔로 영사관은 해외 캐나다영사관 또는 대사관중 "바쁜 곳"으로 통한다.

이민신청 및 캐나다 방문비자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등을 버팔로영사관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뷰는 신청후 4~6주
6개월이상 방문자는 신체검사 필수

◆이민신청◆

현재 서울에서 적용하는 이민 신청방법은 본인의 호적등본,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버팔로등 미국의 각 캐나다영사관은 신청서2장, 사진4장, 질문서2장만 요구한다. 나머지는 인터뷰 때 이민관이 요구할 수도 있다.

친척초청 또는 고용계약등이 체결 안된 신청의 경우 영사관에 이민신청서를 요구하면 이민자를 위한 예비신청서와 함께 이민안내서를 준다.

안내서에는 이민정보, 절차등이 기록돼 있다. 이민관은 예비신청서를 검토, 1차심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정식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서2장, 질문서2장과 함께 사진4장을 첨부, 본인이 해당공관에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공관은 수 주 후 인터뷰날짜를 통보해주겠다고 말해준다.

인터뷰시 학력증명, 호적등본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후 신체검사서를 내어주는데 이것 역시 장기 방문자의 경우처럼 적어도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방문비자◆

미국의 캐나다공관을 이용한 캐나다 방문비자 신청방법은 지역마다 담당이민관 또는 여행목적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흔히 미국의 한국유학생들이 나이아가라등을 관광, 또는 친척방문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려 하나 서류부족으로 국경에서 되돌아가는 수가 많다.

한국여권 소지자로 캐나다에 비자없이 입국하는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유학생은 사진1장, 유학생증명서(Form I-20)1장, 재학증명서 1장등을 제출한다.

공관에 따라 다르나 신청접수 3~7일후 인터뷰를 요청받는 수가 있어 미리 대비해 둬야한다. 버팔로 영사관을 이용할 경우 3~7일전 인터뷰예약후 당일 비자 신청서를 낼 수도 있다.

재학증명서는 케이블(전보)로 보내줄 수도 있다.

무역회사 주재원등은 주재원증명서(미국무성 양식)과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친척 방문자 또는 상용비자 소지자는 비자받기가 약간 까다롭다.

비자는 인터뷰당시 즉석에서 받거나 거부된다.

유학, 주재원, 고용등 장기방문자(6개월이상)는 시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입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서등을 첨부신청하면 7일후 인터뷰 날짜를 받는다. 인터뷰때는 학생의 경우 재정보증서, 고용자의 경우 고용통보서등을 준비해야 한다.

장기 비자 신청시 캐나다 이민관들은 신체검사를 요구하므로 최소 2~3개월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신체검사가 면제 된다. 최근 3년간 미국에 거주한 사람도 신체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

신체검사는 미국의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으나 신체검사완료후 결과는 오타와 보건성으로 통보, 보건성은 검토결과를 영사관에 통보한다.

신체검사 때문에 계획했던 시기를 놓치는 일이 많다.

버팔로 영사관 주소는 Canadian Consulate, Immigration Section, 3550 Marine Midland Centre, Buffalo, N.Y. 14203 U.S.A.

암수술한 김치백씨
"대통령음모사건에 무관하다"

◇김치백씨

최근 암수술을 받고 퇴원한 예비역 육군대령 김치백씨는 "내가 마치 전대통령살해음모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모국언론에 보도되고 이에따라 토론토에서도 별소문이 나돌고 있는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30일 밝혔다.

토론토다운타운에서 쿠퍼스·레스토랑을 경영했던 김씨는 지난2월22일 세인트·마이클 병원에 입원, 장암수술을 받은후 지난달 7일 퇴원했다.

"병상에서 들으니 내가아들(김영일)과 같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라고 쓴 신문도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 더군다나 서울서는 나를반한 인사라고 보도하는등오보를 남발했으니 이 정신적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고 개탄했다.

김씨는 이바람에 아들의 무역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번했다가 소문이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큰 손실을 모면했다고 말했다.

군대상관이었던 최홍희씨로부터 북한 지지로의전향을 권고받았으나 이를거부, 최씨와 결별한 김씨는 "음모사건 가담설은 재판과정서 밝혀질 것이다. 우리부자에 대한 소문은악랄한 낭설"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수사중인 연방경찰도 이런 사실을 토론토총영사관에 통고한 줄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건수사전담반의 수사반장은 앞서 김영일씨가이번 사건에 전혀 관계 없음을 통고했었다.

5개월된 초기에 암을발견, 회복한 김씨는 수술 의 부산물로 12년된 고질 당뇨병이 저절로 나았고 담배마저 끊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주범 문부식 체포
미문화원 방화사건

(부산1일=연합)미문화원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문부식(25)군과 동료 김은숙(25)양을 1일 오후 원주시교외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구체적 사실을밝히지 않았으나 문의 체포로 방화사건의 배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이 조직한 신좌파지하 학생서클의 일원인다른 4명의 학생들은 이미체포됐 :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전쟁물자 수송신속
한·미 국방협정체결

(서울31일=연합)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비상사태발발시에 전쟁물자 보급을 신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캐스퍼·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이 31일 서명한 협정은 한반도에 군사위기 발발시 전시군수품보급에 관한 현대화및 전쟁물자고 증대에 합의했다.

大田에 地震발생
30일새벽 震度 2

(서울본사전화) 서울과 경북울진에서 금년들어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한달만인 30일 새벽 6시10분께 충남대전에서 또 진도2의 지진이 발생, 단잠을 자고 있던 충청도 주민들을 놀라게했다.

이날 지진은 초진에 이어 30초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여진이 발생했으며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다.

지난번, 지진에 놀랐던 시민들은 잠자리에서 깨어나 기상대등에 전화를 걸어 [illegible] 했다.

蘇, 氣象관측용衛星
미티오2號를 發射

〈모스크바 〉 소련은 25일 사진촬영인공위성인 미티오2호를 발사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인공위성은 기상학연구를 위한 것으로 가시광선과 적외광선투시 촬영기구와 방사선측정기어도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오늘의 예금금리 3월22일현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	13.75~15%
	90일	14.25%	
	180일	14.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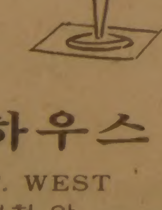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신장개업
동창, 단체회의, 계모임 이라고요?
당연히 크링톤 하우스지요.
○회의실(20명-
○댄스룸(디스코·재즈,
○게임룸
○식당(스낵바. 주문에 따라 간소한 한식도 써비스함)
○TAVERN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EST
크리스티·지하철 앞
☎535-9541 김 영 규 배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수출취소된 GM차 총33,000대

불황이 아니라 품질미달, 이락대사주장

(오타와)제너럴·모터즈(G.M)자동차 회사는 총33,000대의 승용차를 이락에 선적직전 판매취소 당했다고 이락대사가 31일 밝혔다.

압도·알다이리 대사는이 33,000대는 캐나다가 이락에 팔기로한 5억달러 총45,000대의 쉐보레 말리부승용차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락은 45,000대중 이미 수입한 첫 선적분 12,000대가 기준에 미달 흠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GM차 수입은 거부키로 했다.

알다이리대사는 대이란 전쟁과 세계유가 하락으로 이락의 경제가 곤란을 겪고있기 때문에 판매를 취소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GM은 이미 13,500대의 81년도 말리부 선적중지로 인한 보험료 8 천만달러를 연방수출개발공사에 청구했다.

말썽난 미국쌀 대신

제3국 원자재 수입

(서울1일=연합)한국정부는 금년도에 도입키로한 쌀37만톤을 제3국의 원자재와 교환할 것이라고 31일 고근 농수산부장관이밝혔다.

고장관은 이문제로 발단될 외교상의 문제처리는 외무부, 상공부및 경제기획원과 협의할 것이라고 국회쌀도입 조사위에서 증언했다.

5천만불짜리 잔치

김일성 생일맞아 외국서 축하 모금

2월16일부터 4월15일 까지를「충성의 축제기간」으로 정한 북한은 이기간중 충성의 선물증정운동 전개 각종 기념물의 4.15전 완공을 위한「건설돌격대」조직, 외국서의 축하회사금 모금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오는4월15일 김일성의 7순생일찬치를위해 약5천만달러를 소비할 예정이다.

북한은 외국부채를 못갚아 국제사회서의 신용이크게 하락, 차관을 얻거나 외상으로 생필품을 수입해오는데 큰 애를먹고 있으며, 개인당 소득은 아주낮아남한보다 훨씬 떨어진다.

김의생일을 계기로 김일성부자의 우상화와 세습체재를 국제사회에도 선전하려 하고있으나 외국서의경축사절이 극소수에 불과, 계획에 차질을 빚고있다.

「건설돌격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생일축하를 위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것 자체가 김일성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정치지도자의 생일을 기념하기위해 무려2개월간의 축제기간을 설정한 것도국제사회에서는 극히 넌센스이다.

토론토의 최홍희 전한국군장성은 이런사회를"지상천국", "의식주의 걱정이없고 무병장수하고… 인류의 이상적 참 세상"운운했고, 김일성을 역사적 위인중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정세의 위인",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영걸", "어떤 강적도 초풍기절하게하고, 무릎꿇게하는 지략과 담력의 소유자", "영원불멸의우주의 광망(※한국일보 4월1일자)전외무장관으로 휴전회담때 한국측 주석대표였던 최덕신씨는"북반부는 낙원"무릉도원, 인류가 염원하던 이상향"이라고 말하고 김은"위대한 영장,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교육가, 위대한 건축가, 위대한 예술가" 라고 극찬했다(※한국일보4월1일자)

최홍희씨는 현재 미시사가에서, 최덕신씨는 워싱톤에서 살고있다.

최홍희씨는 본모등이 전대통령살해음모사건 보도에서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절차를 취하고있다.

창립총회

한국부인회

1년여 동안 발족을 준비해오던 가칭 캐나다한인총연합회 부인회(준비위원장 양혜신)가 오는10일 하오5시 토론토한인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날행사는 하오5시 식사, 6시 총회, 7시부터는 김용순무용단의 고전무용을 관람한다.

총회는 회칙을 마련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증언자" 공연

록·뮤지칼

킹스톤·로드 연합교회(975 Kingston Rd.×빅토리아 팍)는 오는 4일(일) 저녁7:00 유회자씨의 지휘로 부활절 칸타타 "증 언자"를 공연 한다.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의 생애를 그린 "증언자"는 현대의 북미 대중에게 친숙하도록 쓰여진 록뮤지칼 이다.

서울五輪 참가여부 北韓 아직결정안해

IOC委員長 밝혀

〈북경 〉 북한방문후 30일 중공에 도착한 국제올림픽 위원회(IOC)후안·안토니오·사마란치위원장은 북한은 오는 88년 서울 올림픽 참가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인구 80% 30億사망

美國·소련간에 核戰爭벌어진다면

크랜스톤議員, 軍備제약협정 促求

(와싱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이 전개 된다면 세계인구의 80%인 30억 정도는 사망할 것이라고 알란·크랜스톤 상원의원이 말했다.

콜럼비아대학에서 열린 외교정책컨퍼런스에서 크랜스톤의원은 핵전쟁이 발발하면 방사선낙진으로인해 적도상에 주거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사망하고 또 지구남반부에서도 수백만명이 사망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랜스톤은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미·소 양국간의 군비제약협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정동훈씨

정동훈씨, OCA에서 연구중

동·서 예술을 도자기에…

전북대에서 강사를 지낸 도예가 정동훈(34)씨가 온타리오 예술대학(칼리지·오브·아트 : OCA)에서 동서 예술을 도기에 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경희대 요업공예학과 및 대학원을 나온후 서울에서 3회의 개인전등을 가진 정씨는 작년9월부터 1년계획으로 OCA 에서 도예를 닦고있다.

정씨는"캐나다의 도예는 역사가 불과 10여년으로상업적인 생활품이외에는 거의 개발이 돼있지않은 상태이며 캐나다 사람들은아직 한국 도자기가 얼마나 우수한지 모르고 있는것같다"면서 이곳서 작품전시회를 갖고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캐네디언 도예가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며 만든 작품이 자기배여점, 모양과 색은 동양적이며 자기에 그려진 그림은 서양적이다.

한국서는 도자기를 만들때 나무를 때서 가마에서 구웠으나 이곳 스튜디오에서는 개스를 사용, 굽는다.

정씨에 의하면 캐네디언 도예는 과학적인 기술은있을지 모르나 예술적면 또는 테크닉 면에서는 1천년 역사의 한국 도예공들을따라갈수 없다.

오는6월 한국으로 돌아가는 정씨는 전시회를 후원해줄 단체나 개인을 찾고 있다.

정씨는 76년 대한민국상공미전 입선.

77년 전국 관광민예품경진대회 특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입선, 78년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 입선, 80년 한국일보주최 한국·일본 화기전(花器展) 출품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졌다.

81년도분 개인세무 보고

경제생활과 우리 ⑰

세무상담편 = 김명숙회계사무소 제공

〈편집자주 : 지난호 소개된 외국에 사는 부양 가족 공제는 82년도 인컴 부터 해당되므로 금년에는 캐나다국내 부양가족기준과 같이 외국 부양가족의 세금 공제도 인정된다. 개인세무 보고는 이번호로 끝내고다음주부터는 기업주 세무보고를 연재한다〉

교육비는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T 2202(혹은T 2202A)를 첨부해야하며 이는 풀타임으로 학교(대학교나 칼리지)에 다닌 동안에 한해서 매달$50씩이 된다. 학생을 부양한 사람(부모 혹은 형제등)이대신 공제받을수 있다.

신체장애자들은 (장님이나 지난12개월동안 병상에 있거나 휠체어를 타신분) 특별공제($1980)가 있으며 배우자가 이상과 같은 신체장애자로서 과세대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편 배우자가 대신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외에도배우자끼리 공제액을 대신이용할수 있는 것으로서는이자, 주식배당금, 자본증가에 대한 공제금, 연령공제액(65세이상), 연금수입에대한 공제금등이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정부나 온타리오정부에 증여한 기부금(현금이나 물건)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를받을수있다.

이상과같이 모든 공제금들은 순수입(Net Income)에서 뺀 금액이 과세대상액(Taxable Income)으로여러분의 세금계산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최종세금을 계산하여 정부에게 낼 금액 혹은 정부에서 되돌려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주식배당금 수입이 있는 분이나 과세대상금이 3만달러가 넘는 분들은 스케줄1을 따라서 세금계산을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세금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세금표를 참작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총세금액이 계산이 되면 그동안 낸 세금과 여러가지 세금 크레딧을 합하여 총세금액에서 공제하여 그 차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정부에 세금을 더 내야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온타리오 주민으로서(1981년12월31일 현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온타리오

아파트세도 크레딧대상

8주안에 환불 또는 추징

텍스 크레딧이다. 이는 네가지로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첫째, 재산세에 대한 크레딧, 둘째, 물품세(Sales Tax)에 대한 크레딧, 셋째, 난방비에 대한 크레딧 (1981년도에만 한함), 마지막으로 온타리오 정부나 정치인 선거운동에의 기부금에 대한 크레딧이다.

첫째, 재산세의 크레딧은 아파트세나 재산세(집을 가지신 분), 혹은 기숙사에서 거주한 학생이 받는 $25 등으로서 별도의 스케쥴인 온타리오 세금 크레딧 양식(보라색)을 완성해야 한다. 물품세에 대한 크레딧은 재산세 크레딧에 가산되어 총액에서 본인의 과세대상액의 2%를 공제한 금액(과세대상액이 $1,874 이하인 경우는 0)을 제외한 나머지가 크레딧이다.

난방비 크레딧은 재산세 크레딧을 받는분에 한하여 역시 또 과세대상액의 1%가 제해진다. 다시 말해서 과세대상액이 6만달러가 넘으면 난방비 크레딧이 없어지게 된다. 아파트세와 재산세의 영수증은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온타리오 정부나 정치인에게의 기부금은 스케쥴을 따라 크레딧을 계산하면 된다.

이상과 같이 온타리오 세금 크레딧을 계산 했으면 스케쥴 맨 아래에 주어진 난에 싸인을 하여 세금보고서 4페이지에 총 크레딧을 옮겨 적는다.

다음은 유아 세금 크레딧으로 1981년12월31일 현재로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둔 어머니(어머니가 안계실 경우에는 아버지)가 받는 것으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하나당 $261(1981년도)이다. 부부의 순수입의 합계가 $23,470이 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5%를 총 크레딧에서 공제해야 한다. 비록 어머니가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이상과같이 세금보고를 하면 보통 8주정도 걸려서 통지가 오게된다. 미비한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게되니 세무서로반송하기전에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다.

이상의 세금계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내준수표의 금액(Refund를 받을 경우)이 자기의 계산액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세금을 내신분은 일부를 돌려받을수도 있음)그이유는주로 연금, 실업보험(초과 불입금)이나 세금평준화의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세금평준화는 세무소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서 지난 4년간의 평균수입을 참작하여 금년의 수입이 많이 늘었을 경우 세금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제도이다. 특히 수입의 기복이 심한 사업이나 처음으로 일을하는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게된다. 연금이나 실업보험 초과불입금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계산한다.

늘어나는 目擊者

UFO의 正體는….

올해는 첫목격 35년째…아직 베일속 수수께끼로

우리가 사는 지구상이 아닌 외계의 별나라(?)에도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이런 의문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케 하는 것이 이른바 「비행접시」라는것. 세칭 UFO라는 「미확인 비행물체」다. 미국·소련·중공은 물론 일본에서도 최근 다시 비행접시를 잇따라 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인간이 발사한 우주선이 태양계의 여러별 사진을 찍어 오긴 했어도 외계를 날고있는 비행접시, 다시 말해 「이성인」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정체를 못가리는 가운데 목격자만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비

美·蘇·日·中共등에 잇단 出現소동

"추락된 飛行접시·屍體도 발견

日人"異星人만났다" 주장까지

행접시가 추락했고 우주인의 시체까지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AP통신은브라질의 여객기가 비행접시로 부터 1시간 반가량이나 추적을 당했다는 조종사의 주장을 보도했다. 원반모양으로된 이 비행접시는 [illegible]백색과 [illegible]색의 오렌지색의 빛을 발사하고 있었으며 기장의 기내방송으로 이를 알게된 많은 승객들도 UFO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뉴스로는 북미구상공 16~19km에 정체불명의 길이 3km정도의 거대한 구름덩이가 나타났다고. 한달째 지구궤도를 선회중인 이 구름덩[illegible] 우주전문가들은 이것이야 말로 비행접시의 모선을 베일처럼 감싸는 [illegible] 속에는 우주정류장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추정까지하고 있다.

금년은 비행접시를 첫발견한지 35년째가 되는 해이다. 어쩌면 우주인들이 이때를 기해 행동을 재개한 것일지 모른다고 점치는 과학자들도 있다.

1947년 6월24일 미국의 민간파일러트 K·아놀드씨가 워싱턴주 상공을 비행중 이상한 물체하나를 발견할것이 시초. 이때부터 미공군에서는 UFO라 불렀다. 이것이 속칭 비행접시 1호이다. 다음해 T·만델대위가 P51전투기로 UFO를 추적중 갑자기 추락, 사망하자 온세상은 UFO로 떠들썩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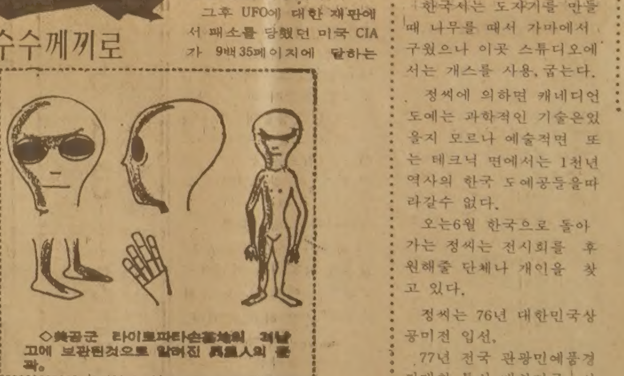
사태를 중시한미국 의회에서는 UFO에 대한공청회까지 열었으며 68년 공청회때 세이간 박사(코넬대천문학부장)등 유명한 우주과학자들이 UFO의 존재를 주장했다.

그러나 UFO는 국방상의 위협이나 과학적인 의의도 없고 지구바깥을 선회하는 우주기도 아니라고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정했었다.

이로써 UFO에 대한 홍포감은 일단 진정됐다.

그후 UFO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를 당했던 미국 CIA가 9백35페이지에 달하는 3백40건의 극비자료를 공개(78년), 이의 존재를 부인했다.

어쨌든 UFO와 여기에 타고 있는 이성인(?)은 자상의 인간과 우호적이라는것이 과학자들의 일치된 얘기.



◇美공군 라이트파타슨基地의 격납고에 보관된것으로 알려진 異星人의 윤곽.

신태호침술협회장

노벨의학상후보에

(서울 1 일=연합)유럽침술과학위원회는 한국침술협회장 신태호박사를 83년도 노벨의학상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유럽침술위위원장 앤톤·자야수리야씨는 신박사에 보낸 사신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6 월 5 일부터 3 일간 열릴 유럽침술심포지엄 개막식에서 " 현대세계의 침술"에 관해 연설토록 초청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노벨상 시상위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유럽침술위는 신박사를 83년도 노벨상후보로 지명할 것이라고 자야수리야씨가 편지에서 말했다.

사진교양강좌

교민에도 공개

지난 26일 시내 심우스튜디오(랜스다운×블로아)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사진교양강좌가 개최됐다.

사진협회(회장 전경수) 월례회로 개최된 동강좌에는 약20명 회원 교민 들이 모였다. 이기성총무의 사진용어 해설에 이어 전경수회장이 카메라 사이즈에 따라 특정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범위등을 도표로 해설해가며 자세히 설명했다.

이 강좌는 매월 1회씩개최하며 사진협회회원뿐 아니라 일반교민들의 참가도 환영된다.

Without fear
or
favor
—The Korea Times—

프로축구를 즐깁시다

HOME GAMES AT Exhibition Stadium

Dates	Opponents	Times
Saturday, April 17	Tulsa Roughnecks	8:00 pm
Wednesday, April 21	Edmonton Drillers	8:00 pm
Saturday, May 1	Ft. Lauderdale Strikers	8:00 pm
Wednesday, May 5	New York Cosmos	8:00 pm
Saturday, May 15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May 20	Chicago Sting	8:00 pm
Tuesday, May 25	San Diego Sockers	8:00 pm
Wednesday, June 16	Portland Timbers	8:00 pm
Saturday, June 19	San Jose Earthquakes	8:00 pm
Wednesday, June 23	Seattle Sounders	8:00 pm
Wednesday, July 7	Montreal Manic	8:00 pm
Thursday, July 22	New York Cosmos	8:00 pm
Sunday, July 25	Vancouver Whitecaps	3:00 pm
Wednesday, July 28	Chicago Sting	8:00 pm
Saturday, Aug. 14	Jacksonville Tea Men	8:00 pm
Sunday, Aug. 22	Tampa Bay Rowdies	3:00 pm

홈게임 오픈

브리자드 : 틀사·러프넥스
4월17일(토)밤8시

장 소 : CNE 축구장
입장권 : $12(A석), $9(B석), $6(C석)
※학생및 유아, 노년입장권은 반액.

입장권예매처 : 한국일보사(4월초순부터)

Brandon Sports Co.

성금요일
수난예배

수난음악 : 김정준 작사 박재훈 작곡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을"
말 씀 : 이 상 철 목사
지 휘 : 박 재 훈 박사
특별초청 : 테너—박인수(뉴욕 에밀레오페라단 단장)
합 창 : 연합교회 성가대
오 르 간 : 유 회 자
피 아 노 : 서 혜 경
시 일 : 1982년4월9일 금요일 저녁 7시반
곳 :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300 BLOOR ST. W. TORONTO

※당일 한국의 수난자들을 위한 헌금이 있읍니다.
어린이들의 입장을 금합니다.

마가렛·앳트우드와의 인터뷰①

은밀한 가운데 삶은 의미 있는것

인간의 유대로 긍정적 힘 키워야

작가와 세계

문:당신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방금 당신의 근작소설 「상처」(Bodily Harm)를 다 읽었다. 거기에서 나는 차라리 공포에 질려서 세계를 지켜보고 있는 작가의 눈을 보았다.

앳트우드: 그렇다. 그래도 나는 소설을 실제만큼은 공포스럽게 만들지않은 셈이다. 작품의 현장을 카리브해안으로 하지 않고, 라틴·아메리카로 잡았더라면, 나의 여주인공은 살아 남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암네스티·인터내셔날과 조금이라도 무슨 관계가 있거나, 그들이 펴내는 뉴스·레터를받아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데모크라시」의 근사치에라도 속하는 나라들을한번 꼽아보라. 정말 그 수가 얼마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수는 줄고있다. 어디선가 그 수가 늘어났다 하면 다른 데서 줄어든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나의 견해라기보다는 사실이 그렇다.

사람들이 나에게, 마치 내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라도 하듯, "왜 그렇게도 각박한 이야기만 쓰는가?"라고 말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나는 소설을 쓸 때 실제 바깥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덜한 정도로 써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상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사실 그대로이다. 약간의 각색과 재편성은 있을 수있다. 그러나 이야기 자체는 세계 속에서 구한 것일뿐, 여기 있는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각박하나

작가는 결국 낙천주의자

문:그럼, 세계는 다만 추하고 암울한 것으로 차있는가?

앳트우드: 그렇지는 않다. 만약 추한 것, 어두운 것 뿐으로 가득 찬 세계라고 한다면, 작품을 쓸이유마저 없을 지다. 세계가 쓰레기 천지이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야수에 지나지않는다고 단정했을 때, 당신은 더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모든작가는 가슴속으로는 설령 작품속의 멧시지가 때로는암울하게 나타나더라도, 낙천주의자이다.

문:그와 같은 낙천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문:그 말을 좀 더 부연해 본다면?

앳트우드: 내 생각에는, 내가 주로 쓰고 있는 그런종류의 책이 가지는, 가치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공포와 마주치게 해준다는 데 있을 것이다. 가령 할레퀸 로만스들 시리즈의 통속소설 따위가 갖는 가치와는 반대의 가치다. 이런 책은 사람들을 소원성취 속으로 데려다 준다. 종류가 다르다. 그래도 나는 한번도내 작품 속의 인물을 죽여버린 예는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 것이다. 나의 인물들은 결국은 다 살아 남는다.

문: 당신의 작품속의 인물들이 다 살아 남는다고

앳트우드: 컴뮤니케이션행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만약 무언가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당신이 독자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당신이 큰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한, 누군가가 당신 말을 들어준다는 것을 당신은 상징하고 있다. 당신은 바로 그와 같은 컴뮤니케이션 행위 속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바로여기에, 작가들 자신이 인정하든 않든간에, 모든 작가는 은밀한 가운데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정할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미래에 대한 무슨희망이 있는가?

앳트우드: 글쎄, 이렇게 말해 보면 어떨까. 내가만약 돈을 나누어 주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돈을 주고 싶은 사람들은 인간의 공격성의 비밀을 캐내는 (그와 같은일에 종사하는) 이들이 될 것이다.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 왜 인간은 전쟁을할 줄 아는 또 다른 피조물들 죽 쥐나 개미처럼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하면 인간은 이러기를 그만 둘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누군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답을 찾아 내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를 파멸시켜 버리고 말것이다. 나는 또, 악을 이해하기가 선을 이해하기보다는 훨씬 쉽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이 남을 위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들을, 내가 만약 돈을 나누어 주는 입장에 있다면, 지원하겠다. 인간이 부패하고, 악해지기가 그렇게도 쉽다고한다면, 앨버트·슈바이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슈바이쩌와 같이 행동 못하는 이들은 왜 그럴까? 암네스티·인터내셔날이나 퀘이커교를 시작한사람들은 어떤이들일까? 왜 이 사람들은 강간하고 살인하지 않을까? 무엇이 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까? 이런 부면에주의를 기울여 보는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가렛·앳트우드는 억눌린 자들 특히 여성, 투옥된 지식인 들과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다.

종교

문: 그런면에 있어서 종교는 어떤일을할까? 당신이 지금 언급한것 같이 가령 슈바이쩌와 퀘이커교 신자들로 말할라치면 분명히종교적인 동기가 있었던 사람들일텐데.

앳트우드: 이런사실을 당신이 아는가 모르겠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오래

종교는 참종교와 거짓종교

이교도 배타는 종교의 타락

산다. 종교는 분명히 긴장이라든가 초조감 같은것을 없이 해 준다. 내 생각에는 종교란 참종교와 거짓종교 꼭 두가지 밖에는 없다고 본다. 거짓종교란"오냐, 이제나는 나와 다른놈들은다 '죽여 버리겠다."이런 태도를갖는 종교이다. 어떤 종교라도 이런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종교란 근거없는 정치적 선동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확실히그 주 목표를 기독교 정신에 동의하지않는 다른 모든사람들을 쳐부시는 것으로삼았던 여러시기를 지나왔다. 내 눈에는 이것은 종교의 타락일 뿐이다.

문: 왜 그와같은 타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앳트우드: 글쎄, 불행하게도 기독교 신자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근거가 성서에 있다. 구약성서에는 원통 아주 그런 사례들로 가득하니까, 알다시피 하느님께서는 저들을다 없애 버려라, 너희가 저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없애겠다. 이렇게호

탑·하퍼 대담
김정근 역

통을 치셨으니까.

문: 그렇다. 그럴때 신이내린 선택의 조건이란 과히 탐탁한 것이라고 볼수 없겠지.

앳트우드: 소련의 비밀경찰(KGB)과 다를게 무엇이겠는가? 신약성서를 훑어보아도 역시 그런대목이 상당히 있다. 내가보기에는 성서가 갖는문제는 어떤피에 굶주린 광신자가 이놈저놈을 죽여야 한다고 일단 생각했다하면 그 생각을 뒷받침 할수있는 다양한 근거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것이다. 추측했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평화주의자이다.

문: 당신은 자신이 신을믿는다고 생각하는가?

앳트우드: 글쎄. 어느 신을 얘기하는가?

문: 마가렛·앳트우드의 신은 무엇인가?

앳트우드: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동성연애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겠다고 떠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그와같은 신을 나는 믿지않는다.

문: 어떤종류의 영적 실제가 있다고는 믿는가?

앳트우드: 나는 분명히 느낀다. 인간들을 통하여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편에서서 움직이고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인간은 인간끼리 유대를 유지함으로써 이 긍정적힘을 키워나갈수 있다고 믿는다.

문: 그러면 요새 보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종교가되살아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앳트우드: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라, 사람들을 억누르라,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말하는한 내가 할 말이란…

문: 한켠에서는 일부 서적을 금지시키라고도 하는데.

앳트우드: 그 사람들이 큰 고기를 잡으려 하지 않는한 내가 관심둘게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마가렛·로렌스를 잡으려 든다면 그건 말짱 헛 장난질이다. 그건 너무나 쉬운일이다. 그 여자편에는 힘이없다. "바위천사"(Stone Angel: 캐나다 여류작가 마가렛·로렌스의 대표작) 를 금지시켜라"고말 하기는 쉽다. 만약 그들이 "저 질이 고약한 포노그라피를 소탕하자, 마피아가경영하는 수십억 단위의 이 비지네스를 추방하자"하고 나선다면 그들의 용기를가상히 여겨줄만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일에 나선다는말을 들어본 적이없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심성의껏、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한국인이 경영하는

"TORONTO PLUMBING SERVICE"

(토론토 수도 상사) 24시간 응급써비스 (work 개런티)

본사는 허가를 취득한 유능한 기술진으로 된 회사로서 저렴한 값과 신속한 써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식당, 배수관, 시설및 수리, 온돌방 시설, 변소시설및 수리, 그외 각종 배수관 수리

★★★★★범위(RESIDENTIAL, COMMERCIAL) ★★★★★

● REASONABLE RATES, SPEEDY SERVICE, WORK GUARANTEED

–Plumbing–drains–Heating–Gas –Installations and Renovations, remodellings, Repairs, additions, hot water steam–

★집에 방하나를 온돌식 난방으로 개조하셔 고국의 방안장식으로 생활을 즐기시기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그럴듯한 침대에서 잠을 이루셨지만 드실때와 달리 일어나실때는 몸과 기분이 개운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온돌식 난방으로 허리병 및 각종 신경통 예방 및 치료와 고국의 옛정취 및 고국에 있을때의 취침후 상쾌했던 몸과 기분을 되찾아 우리들의 긴시간의 중노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422 QUEEN ST. W. ☎: 535-787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협회 고문변호사에 강찬영씨

추천변호사에Levine, Klein, Chilco 씨 선정

협회는 회원및 회원상점에서 야기되는 법적인 문제를 신속, 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줄고문및 협회추천 변호사들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그간 협회는 Catzman & Wahle법률사무소의 Catzman씨를 고문변호사로 이용해 왔었으나 회원의 확대와 더불어 많은 회원들이 비지니스, 형사, 이민등 다양한 케이스로 유능한변호사의 추천을 협회에 문의, 또는 의뢰해 옴으로써 협회고문및 추천 변호사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상의 변호사들은 협회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하고저하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요망하며, 선정된 변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전문직	전화번호
고문변호사	강찬영	Busines's, Family	537-3171
추천변호사	M. Chileo	Family, Criminal Impair driving	657-1960
	M. Klein	Criminal, Immigration	535-3797
	R. Levine	Business	536-1151

처녀출전 실협배구팀 준우승

박남희, 강문원, 최상수맹활약

협회는 협회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지난3월27일 West Humber College에서 개최된 배구협회 주최의 교민친선배구대회에, 처녀출전하여 영예의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수백명의 협회원중에는 학창생활에 선수생활을한 많은 인재들이 있을것이나 시간적인 여유의 부족으로 널리 등용치 못한채 조기연 부회장의 주도하에 팀을 구성하여 출전하였으며, 아깝게도 우승의 영광을 놓쳤으나 타팀 선수들에 비하여 평균년령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여섯게임이라는 강행군을 선전분투하여 위의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날 시합을 위하여 식사제공등 수고하여주신 Mrs. 김풍수, Mrs. 정상우 회원께 감사드리며, 출전한선수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단장 : 조기연, 코취 : 박남희
감독 : 정상우주장 : 강문원
선수 : 백경락, 이춘수, 최상수, 김풍수, 정상우, 장영대 조기연, 박남희, 강문원, 조성준, 임항순.

◇왼쪽부터 Clockwise 문영환, 차선겸, 조성준, 장영대, 임항순, 강문원, 정상우, 백경락, 김풍수, 박남희, 최상수 이춘수, 조기연 제씨.

실협 메트로뉴스사 간부진 회담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진지한 토의—

지난 3월17일(수) 본협회의 김태진 이사장, 차선겸 회장, 강공선 상담실장은 현재까지 협회원들 사이에 가장 문제점이 많고, 협회내 불만 상담실이 설치된 이후 상정 의뢰건수가 항상수를 차지하고 있는 메트로뉴스사를 직접 방문하여 Alex C. Petraitis 부사장, Tom Myatt(Jobber Manager)등 간부진과 장장 3시간에 걸쳐서 메트로뉴스와 본협회, 회원간에 야기되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김이사장, 차회장의 Return 및 Credit의 정확성, 델리버리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부터 시작된 회담은 모든 오후의 미팅약속을 취소하는 등의 열의를 보여준 Petraitis 부사장의 문제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예상외의 유익한 회담이 되었으며, 차후 협회간부진과 메트로뉴스사 간부진이 매3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회담을 가질 것을 결정하고, 그럼으로써 본협회 회원들에게 야기되는 불평이나 문제점들을 해소하잔고 쌍방합의 하였다.

이날 토의되고 합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왼쪽부터 김태진 이사장, Petraitis 부사장, 차선겸 회장.

협회측 항의

(1)Return과Credit간에 차실이 있어 회사에 보고하면 무조건 회사측의 Count가 정확하다고 주장.
(2)주1회배달하고, 2회의 Delivery Charge를 한다.
(3)매상에 관계없이 회원이 희망하면 Jobber System으로 전환하게 할수없는가?
(4)개개인의 회원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협회의 상담실장이 처리할수 있도록 당사내의 특정인을 지적해 달라.
(5)분명히 메트로 뉴스의 Invoice에 의하여 받은잡지를 Return하였는데"Not Shipped by Metor News" 라고 되돌아 오는예가 허다하다.
(6)회원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회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제기할 경우 어느회사를 택하느냐?라는 설문에 메트로 뉴스가 절대다수였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7)Pocket Book에 대하여 K.B.A.와 특별 딜을 할 용의는 없는가?
(8)회원중 Pocket Book을 타회사로부터 공급받겠다고 하면 잡지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회사정책상 사실인가?

		비회원	회원 Regular품목	회원 Special품목
Cash & Cassy	Retail품목	정규Discount Plus 7%감	추가 5%감	추가 2%감
	Net품목	없음	2%감	없음
Charge	Retail품목	없음	3%감	없음
	Net품목	없음	없음	없음
Delivery C.O.D	Retail품목	2%감	5%감	없음
	Net품목	없음	2%감	없음

메트로 뉴스의 주장및 부탁

(1)Retern할 때에는 단단한 Box를 사용할 것이며, 반드시 튼튼한 끈이나, 넓은 Maskin tape를 이용하여 내용물 분실이 일어나는 사례를 방지해줄 것, 리턴과 크레딧의 차이는 90%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다.
(2)리턴시 박스에 반드시 레벨을 붙여줄것.
(3)당사의 리턴 시스템은 작성 리턴 용지의 액수에 의한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 카드 넘버와 액수로만 계산된다. 그러므로 정확하다.
(4)필요이상의 부수가 배달되더라도 적어도 배달후 1주일 이후에 Return해 줄것. 그 이전에 하면 컴퓨터가 Kick out하여 크레딧을 못 받을수가 있다.
(5)잡지 Rack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줄것. 메트로 뉴스가 요구하는 잡지를 다루는 10가지의 유의사항.
1. 배달즉시 인보이스와 대조하실것.
2. 새 잡지를 진열하기전에 리턴요청서(Call—in—Notice)를 체크하여 구잡지를Rack으로부터 내려주실것.
3. 새잡지는 가능한한 신속히 진열해 주실것.
4. 같은부류의 잡지는 함께 진열하실것.
5. 잡지선반의 손질에 신경을 쓰셔서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 주실것.
6. 조기리턴을 삼가해 주실것.
7. 리턴시 반드시 주어진 크레딧용지를 사용하실것.
8. 리턴은 정확하게 계산해 주실것.
9. 리턴시 포장을 튼튼히 하실것.
10. 문제발생시는 즉시 회사로 연락하실것.

합의된 사항

(1)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이나, 협회원은 리턴시 포장이 파손되어 내용물이 분실되는 사례가 없게끔 각별히 유의한다.
(2)딜리버리 차지의 2중부과는 4월1일부터 시정한다.
(3)주잡지 매상 $125이하의 상점인 경우는 언제든지 Jobber로 변경이 가능하다.
(4)매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회담을하여 협회원에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5)개개인의 회원이 해결치 못하는 문제는 협회상담실이 아래의 인사와 접촉하여협회차원에서 해결한다.
Main Line—Rick Morandini(Marketing & Sales Manager)
Jobbers—Tom Myatt(Jobber Manager)
(6)4월16일 실협교육 Seminar에 Petraitis부사장이 슬라이드와 함께 Return과Credit 과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기로 한다.

—최고 리베이트 24%에 리베이트는 매배달시 디스카운트—

NEILSON ICECREAM과 협상완료

리베이트율표

매 상	회사장비	자기소유장비
$3,000–$5,000	12%	16%
$5,000–&7,500	18%	22%
$7,500 이상	20%	24%

○장비제공

one new pieces – over $ 5,000
one new preces & one used piece – over $ 7,500
two new pieces – over $10,000

지난 3월 22일 협회집행부는 세계 굴지의 쵸코렛 회사로 유명한 W.M.NEILSON LTD.의 넬슨 아이스크림 회사와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본협회는 욕 아이스크림과 더불어 두개의 아이스크림 공급회사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현재 실배우, 실테스트롱의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협회원들이 욕회사에 또다른 공급회사와의 딜을 요구하는 실안이 강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연매상 $7,500이상은 리베이트 24%로서 아이스크림의 유수회사로서는 협회원에 대한 파격적인 제외이며, 특이한 것은 현재 모든 아이스크림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도말 리베이트 시스템이 아닌 매상품배달시 예상판매량에 따른 리베이트를 특석에서 디스카운트해 준다는 것이다.

모든 리베이트는 인보이스 가격에서 매 배달시 디스카운트되며, 연도말 (fiscal year Nov.1.– Oct.31)에 실지판매량의 확정에 의하여 리베이트가 조정된다.

현재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모든 상점은 협회에 가입과 동시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중(특히 $3,000–$5,000 그룹에 속하는 상점) 협회의 리베이트보다 현재 높게 받으시는 분은 변동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란다.

협회원에게 특별할인(5%)제의

Dominion Smallware 도매상

협회 집행부 강경하 사업부장은 3월중 수 차례의 끈질긴 접촉끝에 도미니온 스몰웨어 도매상(사장 Mr. Sol Dennis)로 부터 협회원에 대한 특별할인(5%)을 받을 수 있는 딜을 체결하였다.

협회 차회장은 "앞으로 회원증의 제작과 발급이 완료되면, 기존 Cash & Carry 도매상에서 우리 회원들이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할 것 이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도미니온과의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보
533-2361

母系를 이어 6代

◆여섯번째 여성세대까지 뻗어내려간 살아있는 대가족—킴벌리·피터스(19세·중앙)가 여섯번째 여성세대로 처음 태어난 딸은 안고 있다. 왼쪽은 갓난 아이의 할머니 조앤재코비(37세), 오른쪽은 갓난 아이의 증조모 캐스린·팽젤라(55세). 〈레드우드시티, 캘리포녀—AP〉

12일 카이저病院서 慶事…레건도 祝電

90세 6代증고조모도 크게 흥분

〈레드우드시티, 캘리포녀 〉12일 카이저—퍼머넌트병원에서 태어난 타라·피터스는 현재 살아있는 어머니편 가족으로 여섯번째 여성세대의 첫딸이라는 가장 긴 여성가족계보의 기록을 수립했다.

7파운드6온스의 피터스가 이날 세상에 태어나자 수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으며 레건대통령은 피터스의 산모에게 축전을 보냈다.

산모의 친구들은 세계기록들만을 수록하는 기니스북을 조사한 다음 아직까지 살아 있는 여성계보 가운데 여섯세대까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은 없다고 밝혔다.

타라·피터스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증고조모가 된 조지아주 피츠제랄드의 프랭키·언더우드(90세)는 『믿을수 없을 정도로 흥분해있다』고 즐거움을 표시했다.

타라·피터스가 이룩한 여섯세대는 1891년으로부터 1982년에 걸쳐 조지아주와 캘리포녀주사이에 흩어져 살고있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타라·피터스의 아버지는 산·마테오에 거주하는 21세의 조지·피터스쥬니어.

타라·피터스의 어머니인 킴벌리의 어머니는 포스터시티에 살고 있는 37세의 조앤·재코비, 할머니는 버링게임에 거주하는 55세의 캐스린·팽젤라, 증조모는 조지아주매콘에 거주하는 73세의 올린·콕스, 고조모는 조지아주 피츠제랄드에 살고 있는 90세의 프랭키언더우드로 각각 밝혀졌다.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고층 아파트먼트 빌딩들
①12층, 89Unit, 100대의 주차장을 가진 10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 2,400,000

②15층, 104Unit, 129대 파킹시설, 3에이커, 실내수영장, 11년된 아파트 건물, 가격 : $ 3,450,000

③12층, 241Unit, 오타와에 소재
가격 : $ 5,780,000

이외에 여러종류의 사업체
(버라이어티, 식당, 도넛샵, 기프트샵등)

※메트로 토론토 전역을 카바하는 가옥매매에 대해, 문의바랍니다.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실협교육세미나

회원 여러분의 사업경영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져 교육쎄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신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 시: 1982년 4월 16일(금) 오후5시
◉장 소: INN ON THE PARK HOTEL, OAK ROOM LESLIE & EGLINTON E. TORONTO
◉회 비: 1인당 $15 (DINNER 포함)
◉순 서:

5:00–6:00	CASH BAR (친교)
6:00–7:00	DINNER
7:00–7:30	HOW TO BUILD UP THE LINE OF CREDIT. 최승낙외환은행장
7:30–8:00	RETURN AND CREDIT SYSTEM, ALEX C. PETRAITIS (METRO NEWS 부사장)
8:00–8:30	STORE LEASING 시 유의할 사항 강찬영 고문 변호사
8:30–9:00	STORE OWNER 의 INCOME TAX DEDUCTION 한계. 김인규 공인회계사
9:00–	질의응답.

1982년 3월 26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s (each case=100 rolls)

SIZE	Regular Price	Special
27mm ×79.5mm	$72.60	$50.82
37.5mm×79.5mm	$81.40	$56.98
40mm ×76mm	$83.10	$58.98

3. NCR Style (수동식)

53mm ×12mm	$154.00	$107.80
33.5mm×50.5mm	$50.60	$35.42

◆캐쉬 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 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 675-1295~6 (R) 671-0938
김인환

멀티메디아 포켓 북
(MULTIMEDIA DISTRIBUTORS)
127 TELSON ROAD MARKHAM
ONTARIO, L3R 1E7
TEL. (416)495-9499

실협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한인 실업인협회 (O.K.B.A)와 협약을 체결하고 Pocket Book을 공급 써비스하게 되었읍니다.
협약내용은 아래와 같사오며 자세한 것은 언제나 전화를 주시면 세일즈맨을 보내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협 약 내 용〉
1. Net Billing – 30% Discount
2. Rebate(매 3개월 분기별)

$800이하	없음
$800–$1,500	2.5%
$1,500–$2,000	5%
$2,000 이상	7%

(Rebate는 매분기말 15일이후 지급)
1982년 2월 19일
사 장 Joe C. Dwek

"美、對韓군사借款 계속增額"

와인버거演說 정밀軍事장비 自體생산支援

"北傀의 多面的 위협에 對處"
駐韓美軍·극동海軍力 증강

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29일 가중되고있는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기위해 미국은 주한美지상군과 공군부대가 최신형 정밀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태평양지역 美해군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추진, 극동지역 해상방위능력을 향상시킬것이라고 말했다。

제1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28일 내한한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하오5시 조선호텔에서 가진 「80년대의 지역안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82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국군현대화계획기간중 미국으로부터 이양된 기술의 도움으로 더많은 정밀군사장비를 자체생산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또 미국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정밀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기위해 대외군사판매차관(FMS)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회계연도중의 對韓FMS차관액수를 現회계연도의 액수보다 26%가 늘어난 2억1천만달러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전력증강에 관해 언급하면서 『오늘날 북한은 전투사단 탱크·야포 및 인원수송용 장갑차량등에서 한국에 비해 결정적 우세를 보이고있으며 해상공격을 위한 소형잠수함과 고속미사일함정부대를 발전시켜오고있을뿐아니라 전투기의 보유에서도 한국을 2배나 앞서고있고 세계최대규모인 10만명의 특공대를 유지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이같이 방어적성격이 결여된 북한의 多面的 위협의 확대에 대비, 미국은 계속 충분한 전략군을 발전시키고 배치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지역의 우방국들이 이지역에 존재하는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자기몫을 다할것과 지역적 협력을 갖도록 권장하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수교1세기를 맞는 한·미양국정부의 협력관계는 다음1세기동안에도 계속되고 아울러 상호안보 또한 잘 보호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와인버거 前方시찰
방한중인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이 29일하오 中西部전선의 OO전방 GP를 방문, 한국군장교의 案內를 받으며 視察하고 있다. 【29日中西部전선—聯】

"戰力增強의 새章 열렸다"
韓美 軍事委개최

제4차 한미군사위원회가 29일상오9시부터 2시간50분간 국방부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양국합참의장이 공동주재、비공개로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괴의 군사력증강에 대한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고 그대응책이 협의되었으며 또 유사시 한미연합사의 운용계획및 연합훈련、정보체제의 통합계획、한국군 전력증강문제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되었다。

우리측은 이 회의에서▲한국군 현대화에 핵심이 되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차관(FMS)의 증액과 조건개선▲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강화▲전쟁물자의 비축 증강등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측은 주한미군 불철수정책을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제2차 전력증강계획을 적극 지원하며 주한미군의전력증강화대에 관한 구체적인 언질을 준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우리측수석대표인 柳炳賢합참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한반도의 안전보장과 동북아평화를위해 진지한 토론하자』고 제의했으며 존스美합참의장은『올해는 한미양국군의 전력증강에 새로운 장을 열게되는 해가될것』이라고 말했다。

教師들은 꼭 표준말 쓰도록

全대통령 慶北道순시
"行政조직 上·下意통달 잘되게"

【大邱=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29일상오 大邱시내 慶北도청에서 金聖培지사와 관계국장으로부터 慶北道의 올해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모든 행정조직이 上·下意가 통달되는 체제로 되어있으면 행정의 면에는 좋은 北韓의 不純分子가 침투하는경우에도 수사관의 힘을 빌지않고도 행정조직을 통해 색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인구증가억제, 食생활개선,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의 노력및 부정부패일소와 공무원들의 美民봉사정신등을 아울러당부했다.

이날 보고에는 徐廷和내무장관, 金海泰 民正黨慶北지부장등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慶北도청에서 경북도및 大邱市의 각계대표들을 접견한뒤 오찬을 함께나누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우리2세들에게도 통일에대한 관심과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있는 국제정세등에 호응해서 전국민이 단합한다면 80년대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大邱】全斗煥 대통령은 29일하오 大邱直轄市를 순시, 鄭鎬鎭시장과 主務국장들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語文교육의중요성을 강조, 『일선 교사들이 교육 과정에서 표준어를 쓰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교사들이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사투리를 쓰면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했을때 의사소통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에 따라 어휘가 다르더라도 어휘는 반드시 표준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드웨이 艦上서 팀스피리트 參觀
全대통령

【미드웨이號艦上=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28일낮 82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하고있는 美7함대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艦上에서 약1시간30분동안 함정을 시찰하고 美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상오 東海○○해안에서 있은 韓·美합동상륙작전을 참관한뒤 헬기편으로 미드웨이함상에 내린 全대통령은 A6·A7·팬텀·E2·호키등 艦載機들의 離着陸작전훈련을 참관한뒤 합참정훈식당에서 워커駐韓美대사·롱 美태평양지역사령관·휴즈美7함대사령관·오웬 미드웨이함장·李範錫 대통령비서실장·張世東경호실장·金炳薰의전수석·李雄熙공보비서관등과 오찬을 들며 환담했다.

慶州관광개발 살펴

【慶州】全斗煥대통령은 28일 팀스피리트훈련 參觀을마치고 慶州일원의 관광개발현황을 살펴보았다.

全대통령은 이날 오후 佛國寺에 들러 金月海주지의 안내로 境內를 둘러보고 造景사업에 큰관심을 보였다.

陸軍部隊도 시찰

【OO部隊】全斗煥대통령은 29일하오 慶北道와 大邱直轄市순시를 마치고 歸路에 육군OO부대를방문, 장병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 어제歸京

全대통령은 2박3일간의 韓美 兩國軍의 82팀스피리트 훈련참관과 慶北道및 大邱시청순시를 마치고 이날저녁 귀경했다.

"투자촉진資金 더 안풀겠다"

金부총리 通貨관리 탄력적으로 운용"

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9일 鄭壽昌商議회장, 鄭周永全經聯회장등 경제5단체장과 가진 월례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상황에서 투자촉진을위해 자금을더 풀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현재의 투자부진은 「돈」 금리나 자금부족때문이 아니라 해외경기등 불투명한 사업전망때문으로 본다』고말했다.

그러나 金부총리는 실물경제동향에 맞춰 앞으로 통화관리는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들어 지난 석달간 연율26~27%로 늘어난 총통화증가율을 연말까지는 정부의 억제목표선인20~22%선으로축소하겠다고말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경제를 불경기라고보는 주장이 있지만 지난2월들어 그동안 부진했던 기업의생산 出荷활동도점차활기를 보이기시작한 것등으로 미루어 우리경제가 서서히 회복단계에들어서고 있음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재단체장들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金利인하등 금리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신규투자자금에 대한 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對韓經協 軍事성격 없게"
日外相, 社會開發에 限定"

【東京28日=聯】사쿠라우찌 요시오(櫻內義雄)일본외상은 27일 일본의 對韓경제협력문제와 관련,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관해 이웃나라인 일본으로서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할것인가에 대해 냉정히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사쿠라우찌 외상은 이날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野黨인 사회당의 한 의원이 對韓경제협력이 안보협력이 아니냐고 따진데 대해 일본의 對韓經協은 민생안정및 사회개발에 용도가 한정된 것이며 군사적 경협의 성격을 띠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일政府각로·政黨3役會同

劉彰順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관계장관과 民正黨·民韓黨·國民黨등 3黨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총무등 3역이 오는 4월2일하오 國會의 공관에서 모임을 갖고 國政전반에 관해 意見을 교환할 계획이다.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29일정부와주요사항 당정간 회합계획을 밝히면서 『이자리에서는 韓·美안보협의회 내용과 부시 美부통령의 방한등에 관한 정부측의 보고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短資·社債등 金利도 1일부터 2%引下

◇短資및 會社債金利		현행	조정	조정폭
수신금리	발행어음최고금리	14·5635	13·0	△1·5635
	담보어음최고금리	16·0235	14·0	△2·0235
	무담보어음최고금리 (우량)	17·0455	15·0	△2·0455
	(기타)	17·5565	15·5	△2·0565
여신금리	어음할인 (우량)	17·5200	16	△1·52
	(기타)	18·0675	16·5	△1·5675
會社債 기준금리		19·5±2	15·0±2	△1·5

◇자금별 財政資金	현행	조정	조정폭
농수산관계 지원 자금	15·0	13·0	△2·0
영농·영어 자금	14·0	12·0	△2·0
사회간접자본및 기간산업자금	13·0	13·0	—
유통근대화및 중소기업지원자금	16·5	14·0	△2·5
농촌 주택개량 자금	12·0	11·0	△1·0

정부는 3·29금리인하조치에따라 産銀자금、국민투자기금、재정자금과 단자및社債등 제2금융권의 금리도 2%내외씩 인하키로하고 정책금융은 29일부터、그리고 사채금리는 31일、단자금리는 4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특히 재무부는 단자회사의 수신금리를 최고금리범위내에서 자율화하고 단기수신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이는 통화는 늘지않은데대해 총통화만 과잉공급되어 실물유통에비해 통화공급이 상대적으로 모자라、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자회사의 단기자금을 우대하여 총통화를 억제하고 통화를 늘리려는 정책적인 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재무부가 확정한 정책자금 조정내역을 보면▲산은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현행15·5%에서 13·5%로 2·0%포인트씩 인하하여 시설자금은 별로금리에、운영자금은 상업어음할인금리에 연동시키고▲국민투자기금은 연13·5%이하의 자금금리는 현수준을 유지하되 연13·5%를 초과하는 자금금리는 연13·5%까지 각각 2%포인트내지0·5%포인트를 인하하여 금리체계를 통합단순화 한다

콜럼비아 오늘歸還

地球 110번선회 科學실험 모두成功

【케이프카내베랄29日AP·UPI=聯】3차우주여행에 나선 美유인우주왕복선콜럼비아호는 무중력상태에서 곤충등의 상태등 각종 실험을 훌륭히 수행한뒤 7일간의 우주비행을 모두 끝내고 예정대로 29일낮12시27분(한국시간30일새벽4시27분) 뉴멕시코주화이트샌즈의 노드롭활주로에 착륙한다.

콜럼비아호의 두우주인 잭·루즈머선장과 고든·풀러톤조종사는 28일 몇가지 과학실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모든 장치들을 다시한번 점검한후 29일의 지구귀환을 위한 최종준비를 완료했다.

당초 콜럼비아호 통제팀은 화이트샌즈미사일기지의 기상관계등으로 콜럼비아호의 조기귀환을 검토했으나 기상이 좋을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따라 예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 우주체공7일 3시간27분만에 지구궤도를 1백16번 선회하고 귀환한다.

콜럼비아호는 이번우주비행에서▲무중력 상태에서 곤충비상▲로보트팔작동▲태양표면의 [illegible] 등 일련의 과학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 우주상업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言論보도…」주제 創立 한돌 토론회
언론중재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安又熙)는 창립1주년을 맞아 30일 하오 1시반~6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갖는다。

이번토론회에는「텔리비전보도와 시민의권익」(李相回 연대교수)、「잡지보도와 시민의 권익」(李京子경희대교수)、「신문보도와 시민의 권익」(金東喆梨大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社会漫評

地平線

사람은 원래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일까。나무열매나 곡식、또는 푸성귀를먹는 채식동물일까? 육식동물이었다면 짐승을 잡아오는 사냥꾼은 남자였으니까 인간역사는 시작될 때부터 남자가 지배했다는 말이 된다。이와 반대로 채식동물이라면 들이나 산에서 먹을것을 찾아오고、땅을 파서 농사를 짓기시작한 여자가 역사의 주인이었다는 말이 된다。▼지난1월8일 미국 과학발전협회의학술발표회에서는 이도 저도아니라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아득한 옛날 類人猿이나 사람의 이빨、턱、뼈를 분석한 결과 고기도 먹고、푸성귀도 먹었다는 것이다。이스라엘의 한 동굴에서 나온 1만1천년전 사람 뼈에 포함된 스트론튬을 재봤더니 육식과 채식의 중간이었다한다。채식이면많고、육식이면적다는것이다。▼그래서 스미드소니언연구소의 앤드루·실렌등 젊은학자들은 사람은원래 육식·채식을 겸했다고 말하고있다。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손잡고 살았다는 것이다。더구나 산업화시대인 지금 세상은 남녀평등이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어쩔수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있다。적어도 산업화가 앞선 유럽이나 미국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고있다。▼예를들어 전체취업인구의 51·2%(80년)를 여자가 차지하고있는 미국에서는 이제 이혼위자료제도가 사실상 없어져가고있다고한다。어차피 여자도 남자처럼 돈벌이를하는판에 위자료란 번거롭고、치사하다는 생각때문인것 같다。그뿐만이 아니다。돈많은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타내는 남자들이 심심치 않게 화제거리가 된다。지난 10일만해도 영화배우 제시카·랭이 위자료 지불명령을 받았다。▼남녀 평등은 미국에서도 7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일어난 사회적 변화다。그것은 여성의 취업률과 관련된 현상이다。미국에다댄다면 우리나라의 여성취업률은 아직 비교가 되지않는다。81년현재로 전체취업인구의 38·2%로 나와있지만 이중의 37·6%는 농사를짓는 것으로 돼있다。그러니까 소위「취직여성」은 전체의 23·8%에 지나지않는 것이다。▼여러가지 차별이 있는건 부인할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자가 호주로인정될만큼은 돼있다。그러나 집안에 초상이 났을때 상주노릇을 해내는 여자는없다。법으로는 어쩔수없는 역사적 관습때문이다。보사부는 이런관습을 깨고 여자도 상주가 될수있다는 가정의례준칙의 유권해석을 내렸다。인식으로 볼때 당연한 일이지만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이것을 실천하려면 더욱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전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533-2361

모국 방문을계획하십니까?

미도파 백화점에서는 고급화장품, 금·은보석시계, 양품, 썬그라스, 고급의류, 여행용가방, 핸드백, 한약및 비타민등 유럽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한자리에서 짧은시간과 적은 경비로최대의 염가와 최선의 써비스로 봉사하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미도파 백화점 백

※ 좋은제품 좋은가격은 항상 만족한 기쁨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青白吏賞 선발基準 강화

創意力·정책開發 위주로

職級등 제한철폐 退職者도 국영企業·硏究所직원 포함

정부는 올해 青白吏賞 수상대상자의 선발기준을 강화, 청렴하고 성실할뿐아니라 創意的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개발한 공무원을가려 —

"쌀導入 不正없었다"

李감사원장, 9人小委 답변

高價구매·특정業者특혜說 無根

政治관계法 小委 週內 활동本格化

와인버거 美國防 劉總理예방 환담

豫算제도硏究委 民韓, 설치提議

국제條約·협정 올해 68件체결

社說

景氣회복에 全力을

—金利引下와 企業이 보답할 道理

정부의 뜻에따라 金融通貨운영위원회는 은행금리를 또다시 引下키로 의결, 어제 29日부터 일반대출은 종전 16%에서 14%로 내리는 한편 예금利子는 1年定期 12.6%(종전15%) 수준으로 각각 引下 실시키로 하였다.

海外旅行의 量入計出

—健全한 나들이로 自由化뜻 살려야

國際마라톤 4위 金鍾允

"最善 다했지만 아쉬움 體典땐 한국新 내겠다"

5分 인터뷰

金鍾允이 35㎞ 지점을 향해 역주하고 있다.

政局往來

"教師들 사투리 곤란… 外國語 배우기전에 標準語 배워야"

北美 親北傀儡인사 유럽에 대거集結 對韓공세모색

공무원 生活扶助金 올해 2백억원策定 4만명에 貸付

濠洲上院의장 來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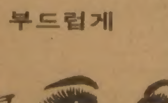
韓·벨기에 親善協 議員사절단 出國

理事長에 成樂正씨 한국 에너지硏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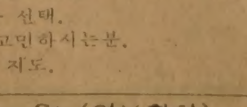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회소식♥
美의센타 탄생



* 최신식 장비구입
* 여드름 치료
* 잔주름 제거
* 노화방지
*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 매니큐—패티큐



* 불란서 최고급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 털이 많아 고민하시는분.
* 바른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휜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 223—7884~5 Mrs. 리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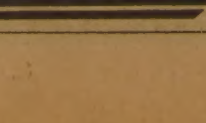
Apr.5-Apr.17

Jersey milk thick bar	36x55¢	$13.25
Laura secord frenchmint family	24x99	14.45
Rowntree snack pack	36x9 box+12 free bar	94.45
Wilson pop	24x10oz.can	5.39
FBI Pure apple juice	24x10 oz.	7.99
Sunpec juice	24x10 oz.	7.99
Sunpec nectar (Aprico + Peach)	24x10 oz.	8.35
Toplerone bar 50g.	20x79¢	9.99
Toplerone bar 85g.	24x$1.45	21.19
Tober family bar 85g.	12x 1.45	10.59
Dare peg top candy	12x 1.29	9.19
Glad garbage bag	24x10	30.99
Sun light detergent	12x3 lit	22.05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Crac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May16(일)8:00a.m.-2p.m. May22(토)8:00a.m.-1p.m.
May23(일)8:00a.m.-2p.m. May(Victoria day)8:00a.m.-3p.m.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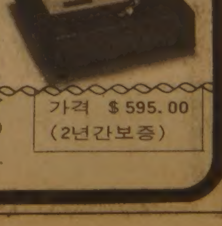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E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 2년간 보증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톤)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 595.00
(2년간보증)

「金日成王朝」秘史 〈3〉

「終身首領」명분위해「神聖化」조작

前 北傀共産黨간부 林隱「잔혹성」폭로

날조 誇張투성이「家系」

事實은 숨겨놓고 想像만 앞세워 一家모두를「革命家」로 둔갑시켜

金日成의 경력을서술할때 그의 어용학자들에게맡겨진 기본과업은 사실을 있는그대로 쓰는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쓰는 것이다. 즉 실제로 있었던 사실보다 쓰여진「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 상황과 논리, 배경과 조건에 구애됨이없이 다만 그럴듯하게 조립하면 되는 것이다. 과장과 날조가 그 전제가 될뿐아니라 金日成의 사상과 업적을 찬양한다든지 그의 경력과 활동을 서술할때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기도 하다.

어용학자들은 우선 金日成이 보기드문 명문 가계의 비범한 혈통을 이어 태어난것처럼 만들어 내고있다. 檀君, 王建, 閔妃, 許筠, 林巨正처럼 하늘이나 神의 뜻을 받고 민중을 다스리기위해 나타난 神話속의 인물들과는 달라도 오늘의 역사적 주인공이 되는데는 가장 적합한, 수대에 걸친 애국지사와「혁명가」집안의 출신인 것으로 조작했다.

金日成의 부모, 숙부, 숙모, 조부모, 증조부모, 심지어는 먼 친척이 되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제1급의「혁명가」나 애국자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사실과 관계없이 이렇게 조작된 그의 경력과 공적은 레닌, 스탈린, 毛澤東을 모두 합친것보다 화려하다.

李命英은 그의 저서「金日成列傳」가운데 金日成의 경력날조에대해 다음과같이 썼다. 『즉 그 하나는 레닌의 투쟁경력을 모방한 것이고 또하나는 毛澤東의 투쟁경력을 모방한 것이다. 레닌을 모방한것은 金聖柱=成柱(金日成)의 소년시대를 날조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고, 毛澤東을 모방한것은 金聖柱의「청년시대」에 잘나타나 있는데 단순한 모방뿐 아니라 이 양자를 더욱 위대한인물로 만들려는 작위가 극명하게 엿보인다』(1백53페이지).

이 글은 극히 적절한 비유로 명석한 통찰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李命英은 문제의 본질을 놀랄만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레닌의 아버지는 진보적 교육자, 어머니는 교양있는 부인이었고 스탈린의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 어머니는 農奴출신이었다. 毛澤東의 아버지는 완고한 지방豪族, 어머니는 평범한 시골 아낙네였다. 그러나 金日成일가는 대대로 뜻을 이어 자유와 독립을위해 외부침략자와 싸워온 애국적이고「혁명적」인 가정으로 되어 있다.

金日成은 자기와 자기 선조의 참가없이 이루어진 모든 북한공산주의 운동과 독립투쟁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걸출한 혈통을 가진 명문출신이라는설을 만들어내고 이에따라 세상에 하나밖에없는「金日成王朝」를 성립시키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아버지 金亨稷이「朝鮮國民會」의 창설자이며 그 지도자였음을 확인하는 문헌은 어디에도 없다.「朝鮮國民會」(大韓國民會), 間島國民會, 그밖에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어떤 국민회조직 지도간부들속에서도 金亨稷의 이름은 전혀 발견할수 없다.

또 金日成의「革命活動약력」을 글자그대로「창작」한 사람들은 金亨稷을 애국적이고「혁명적」인 교육자로 만들어냈다. 金亨稷은 撫松에서 白山학교를 설립하고 가난한 농민의 자제들에게 교재와 학용품까지 주면서 교육시켰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金亨稷이 白山학교의 설립자라는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상습적인 거짓말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다.

李命英의「金日成 列傳」을 보면—

『白山학교에 관해서는 史料에도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正義府(민족주의자 단체)系의 白山武士團團長은 金虎이며 撫松에있던 白山학교(무관학교라고도 불렸다)는 金虎가 창설, 운영한것으로 독립사상을 품고 조선에서 만주로 건너온 청년들을 교육, 훈련시켰다. 正義府에서는 국어, 역사등의 교과서를 만들어 각지의 민족주의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金虎는 1907년의병운동때 北靑, 三水등에서 이에 참가한후 만주로 건너와 撫松을 중심으로 정력적으로 독립운동을전개한 투사이다. 본적은 함경남도咸興, 金虎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1881년출생. [illegible] 金虎의 白山학교설립과 正義府가 교과서를 배포한 교육사업을 [illegible] 金亨稷의 경력美化에 盜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있다』고 돼있다.

어째서 國民會나 白山학교에 관한 자료가운데 소위「구창설자」이며「지도자」였다는 金亨稷의 이름만이 무시된것인가. 해답은 간단하다. 金亨稷은 오늘날 북괴가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한 위대한선구자로서 시끄럽게 선전하고있는것과는 전혀 달리,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만한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金亨稷은 사회활동가나 교육자가아니라 평범한 漢方醫로서 그럭저럭 세상을살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데 불과했다. (어떤사람은 그가 아편密賣업자였다고도한다) 金亨稷은 漢醫라는 직업적입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공산주의자보다는 민족주의자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졌을가능성이 크다.

또 정신생활면을 봐도 그는 유명한 기독교계통 학교인 崇實중학에 다녔다. 妻 康盤石의 친가도 독실한 기독교도로, 장인인 康敦煜이 딸 康盤石을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문에 그는 외손자인金日成도 彰德학교에 보내고, 성경을 가르친 것이다.

金日成의 탐욕은 어머니 康盤石을 여성정치활동가로 조작한데서도 잘 나타나있다. 얼굴과 마음이 아름답고 상냥하며 근면하고 부모를 잘 섬기며,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자식을 잘 길렀다는 것으로 충분히 한 여성의 훌륭함을 나타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金日成은 그를 겨우 13~14살밖에 안되는 아들(金日成)의「領導」아래 부녀회를 조직, 지도한『탁월한 여성정치활동가』로까지 조작해냈다.

13~14살의 어린아이정도지능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정치활동가가될수있겠는가? 이는 金日成이 어머니를 위대한「혁명가」, 정치활동가로꾸며냈려는 욕심과 어릴때부터 자기가 민족의 영도자였다는것을 조작해내려 한데서 나온 당연한 모순이다.

金日成「神聖家系」의정체는 이처럼 모조리 거짓, 창작으로 날조된 것이다. 자랑과 영광에 가득찬「神聖家系」의 역사를 만들어낸 동기는 무슨 자기의 부모를 높이려는 孝心이나 감상에서가 아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자기처럼 훌륭한 가계와 혈통을 가진 자만이「終身首領」이 될수 있으며, 또앞으로도 그 피를 이어받은 가계만이 대대로「首領」의 지위에 오를수 있다는 전통을 확립시키려는데있다. 이처럼「神聖家系」는 과거가아니라 현재를 위해, 현재보다 장래를위해 만들어낸 神話이며,「金日成王朝」를 萬世一系로 연면히 이어가기위한수단이며, 金日成과 같은 봉건적「首領」을 창조하기위한 제1조건인 것이다. 【끝】

海外토픽

"15세이전性經驗 3분의1" 美보이어博士지적

요즘의 미국청소년들은 예전보다 훨씬 조숙하고 회의적이며 순진하지못한면이 많지만 미국사회가 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의 회장이며 前미교육위원인 어니스트·보이어 박사가 지적했다.

보이어박사는 28일 미중북부 교육기관협회에서행한 연설문에서 청소년문제의 현실태를 다음과같이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美청소년들의 3분의1가량이 15세 이전에 성경험을 갖는다. ▲현재 14세에이른 소녀중 40%와 향후 5년내에 최소1회이상 임신을경험하게 될것이다. ▲고등학생의 40%가 지난 2주간에 5일 이상씩 계속 음주했다고 밝히고있다. ▲매시간마다 10대청소년 57명이 자살을 시도한다. 보이어 박사는 특히 이처럼 암울한 경향은 청소년문화가 그들자신의 고립된 지경에 빠져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少女吸煙 더많아 ★WHO, 報告書통해경고

전세계적으로 10대소녀들의 흡연인구가 소년들보다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흡연을 할 경우 남성보다 여성쪽에 더 건강상의 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대소녀들의 흡연인구가 점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최근 22개국의 10대흡연인구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14개국에서 16~18세의 소녀들의 흡연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동년배소년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제네바=AP】

世界루빅스 大會 ★헝가리서…考案者심판

제1회 세계루빅스큐브 챔피언선발대회가 오는 6월5일 이 장난감의 발상지인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헝가리의 관영 MTI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부다페스트=聯】

한국國民위해 기도 敎皇, 孔商銀長접견

【바티칸시티27日AP=聯】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27일 한국과 한국국민모두를위해『쉼없이』기도하고있다고 말했다.

요한·바오로2세 교황은 이날 한국가톨릭실업인회 회장인 孔德鍾상업은행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오는 84년 한국가톨릭선교2백주년을 맞아 한국가톨릭교도들이 자신을 한국으로 초청하려하고있음을잘알고있다고덧붙였다.

財形저축金利 積金수준인하 政府、4월중으로

정부는 재형저축가입대상을 월급여 40만원이하로 축소조정한데 이어 재형저축의 수익률도 인하할 것을 검토중이다.

"和解제의 行動으로"

中共、蘇의 관계개선 제안에 言及

직접拒否표명 회피

【北京27日聯=聯】20여년간 얼어붙은 中蘇관계의 개선은 소련이 對中共화해의를 실제행동으로 보일때까지 이루어질수없을 것이라고 中共의 관영 新華社통신이 27일 소련에 경고했다.

新華社통신은 이날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최근 제안한 對중공화해제의에 논평, 그같이 경고하면서도 소련의 이번 제의에대해 직접적인 거부표명은 회피했다. 중공외교부도 앞서 26일 이같은 의사를 밝힌바있다.

이 통신은 브레즈네프가 臺灣문제로 美中共관계가 악화되고있는 시기를틈타 20년간계속돼온 中蘇적대관계의 개선을제의했다고지적했다.

新華社통신은 이어 소련지도자가 그동안 이같은 제안을 여러번 내놓았으나 소련이 中蘇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실제행동에 옮긴적은 아직까지 한번도없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중공북부국경을 따라 배치된 대규모 소련병력을 예로 들면서 브레즈네프가 제안한 이번제의의 진실성여부는 소련의 실제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火曜 안테나

對臺灣 武器販賣 議會에 승인요청

레이건 미 대통령은 미중공간의 관계악화위험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대해 대만에대한 무기판매안을 승인해줄것을 요청할것이라고 정통한소식통들이 28일 전했다.

이 소식통 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2개월이상에 걸친 대만 무기판매문제를 검토한 끝에 의회가 (는 4월9일 휴회에 들어가기전 무기판매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워싱턴=AP】

歐洲경제등 論議 EEC 頂上會談

歐共市(EEC) 지도자들은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고있는 유럽경제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中東및 中美사태를 토의하기위해 29일 브뤼셀에서 2일간의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EEC 25주년과 때를맞추어 열리는 이번정상회담에서는 유럽경제문제와 中東및 中美의 최근사태가 집중토의될것이나 회원국 상호간의 견해차이로 경제문제에 있어 공동정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EEC소식통들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中美에대한 EEC의 경제지원문제가 검토될것이며 이밖에 폴란드사태, 아프가니스탄사태등도 의제에 포함될것이라고 전했다. 【브뤼셀=AP】

中共학자들 訪蘇 양국간 交流위해

중공국가기획위원회에 소속된 중공경제학자3명이 中蘇간의 경제·과학연구 교류를 위해 소련을 방문중이라고 東歐외교소식통들이 27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들 경제학자들이 駐蘇중공대사의 개인손님일뿐이며 정부나 黨관리의 자격으로 蘇聯을 방문하는것은 아니라고말하고 이경제학자들의 방문을 中蘇관계의 완화나 中共의 對蘇관계개선의사의 표시로 추측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北京=AP】

대규모 肅淸작업 베트남, 黨대회서

베트남지도자들은27일하노이에서 개막된 제5차베트남共產黨대회에서 베트남이 심각한經濟문제에 직면하여 국가기관의 과오를 시정하기위해 대규모 숙청작업을 단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共產黨서기장 레·두안은 1천33명의 당대표와 47명의 외국공산당대표가 참석한 黨大會에서 베트남은「많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지난 76~80년의 5개년계획이 국가 경제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노이·방콕=AP】

黃華 연내에辭任 후임 張文晋내정

중공외상 黃華(68)가 연내에 사임하고 후임에 北美대양주담당차관 張文晋이 내정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黃의 사임은 중앙정부기구 개혁및 지도자의 세대교체에 따른것으로 이와함께 현재10여명에 달하고있는 차관수도 4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東京=聯】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방글라데시의 계엄사령관 모하마드·호사인·에르샤드 중장(왼쪽)과 부사령관 바볼·알리·칸 제독. 【대카(방글라데시)27日UPI특約=聯合】

방글라데시 軍政 2년내 憲政복귀

지난24일 무혈쿠데타를 통해 방글라데시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모하마드·호사인 에르샤드(52)중장은 28일 앞으로『2년안으로』가능한한 조속히 총선을 실시, 방글라데시에 민주헌정을 복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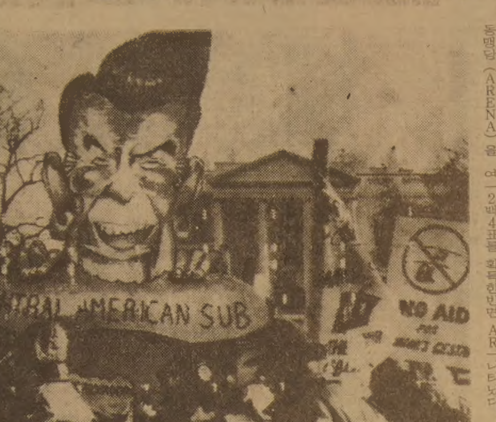
에르샤드 장군은 이날외신기자들과의 회견을통해 그러나 이러한 헌정복귀는 현재 군사정부가 설정한 여러목적이 완수된 뒤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다. 【뉴델리=聯】

"아랍人市長해임 PLO선동때문"

이스라엘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점령 요르단江西岸과 가자지구의 아랍인시장 3명을 해임한것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5월중에 이지역에서 폭동을 선동하려는 비밀계획을 적발한것이직접적인 계기가됐다고 우리·포라트 이스라엘수상대변인이 28일 말했다. 【텔아비브=聯】

집권基民黨, 여유있게 리드

엘살바도르總選 중간開票서



◇白堊館앞에서의「反레이건」示威
레이건美 대통령의 對엘살바도르 정책에 반대하는 일단의 시민들이 27일 백악관앞에서 시위를 벌이고있다. 【워싱턴28日UPI특約=聯合】

左翼게릴라 妨害격렬 선거당일 74명사망… 投票중단도

【산살바도르29日=聯】호세·나폴레온·두아르테 대통령의 집권基民黨(기)이 29일 상오(한국시간)에 나온 엘살바도르 제헌의원 선거의 첫중간개표결과 강력한 경쟁세력인 極右의 민족주의공화동맹당(ARENA)을 여유있게 앞지르기 시작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나라 3대도시인 산살바도르, 1백37㎞의 산미구엘市의 중간개표결과에 따르면 基民黨은 개표가 완료된 4백66표의 43.8%에 해당하는 2백4표를 획득한반면 ARENA는 26.4%인 1백73표만을 확보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국민 화합당이 21%에 해당하는 93표를, 민주행동당이 6.6%에 해당하는 31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엘살바도르 좌익반정게릴라들은 이나라 제헌의회선거일인 28일 지난1년이래 최대규모의 對정부군공세를 가해 1개성도를 포함한 6개지역의 투표를 중단케했으며 이날의 폭력사태로 최소한 74명이 사망한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게릴라들이 투표가 개시되기전 산살바도르 교외의 4개지역을 급습, 최소한 17명을 희생시키는한편 동부지역 5개성도를 공격해 이날 모두 최소한 35명이사망했다고 전하고 희생자들은 대부분 정부군과 게릴라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게릴라들의 공세가 가장 치열했던 우술루탄성도의 경우 최소한 10명의 정부군이 사살되는 바람에 투표가 중지됐다고 전하고 이밖에 인근 5개지역에서도 투표가 저지됐다고 덧붙였다.

美의 엘事態개입 규탄 白堊館앞 대규모 示威

【워싱턴27日=聯】수만명의 미국인들은 엘살바도르의 총선을 하루 앞둔 27일 워싱턴의 백악관앞에 모여 미국의 엘살바도르介入을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시위군중들은 이날 주최측인「3월27일 연합」의 주도로 백악관 맞은편의 라파이에트공원에 집결, 엘살바도르에대한 美國의 지원과 레이건 대통령의 인권정책을 신랄히 비난했다.

「3월27일 연합」은 미국의 엘살바도르介入에 반대하는 16개위원회의 연합단체인데 주최측은 이날 시위군중수를 7만5천~8만으로, 경찰측은 2만2천으로 추산했다.

波언론인, 官製協會결성 抗議

【바르샤바29日UPI=聯】폴란드언론인 51명은 계엄당국이 폴란드언론인협회를 해체시킨데 대해 항의하는 공개서한에 서명, 이를 관영신문편집인에게 29일 전달했다.

이들 언론인은 관영 지치에·바르샤비지 편집인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해체된언론인협회가 사회와 독자, 그리고 언론인들의 이익을위해 봉사해왔다고 지적하고 새로 결성된「인민 폴란드 언론인협회」가 진정한 폴란드언론인의 이익을 대표할수없다고 강조했다.

폴란드계엄당국은 지난20일 계엄후 활동을 정지시켰던 언론인협회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관제 언론인협회를 결성했다.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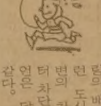
봄빛이 화창한 여의도광장에 7천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운집했다가 호포를 신호로 마치 시위에서 화살이 떠나듯 일제히 뛰어나가는 모습의 힘찬 아름다움은 극적이었다. 28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린 82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는 도합 25개국이 참가,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것이었다.

「다친 거위」라는 별명의 호주대표「로리·위티」선수가 뒤따라오던 용병을 보아야하는 고비까지 넘기면서 [illegible]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의 [illegible] 시원스런 폼과 보람찬 승리는 보는사람들로하여금 마라톤의 진가를 [illegible] 느낄수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 기록은 2시간14분33초로서 세계기록 보다 6분20초가 뒤졌다. 또 의외의 대성과를 올린 우리나라 김종윤선수의 4위입상과 그기록 2시간16분58초도 한국기록과는 43초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대회자체의 뜻을 수놓게 하는데 손색이 없을만큼 알찬것이라 할수있을 것이다.

다만 경기실황중계중 누군가가 간혹「죠오시」니「고오바이」니 하는따위 일본말을 우리말처럼 쓴 실수가 있었다하고 또 대회의 시작과 시상의 과정에 사소한 혼선이 있었다 함은 고양된 흥분속의 소이일지언정 좀 씁쓸한 느낌이든다. 그렇다고 굳이 시비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

마라톤 새싹



대체로 세상의 일이란 단숨에 배가 부를수 없는게 이치이다. 여자1위인 뉴질랜드의 앨리슨·로선수가『공해가심해서 기록이 저조했다. 차량의 배기가스등이 충만한 이런 도시에서는 적어도 코스주변의 차량통행은 하루전쯤부터 차단시켜야 한다』고한 고언은 달게 받아 들여야 할것 같다.

무어니 무어니 해도 이번대회의 가장 큰 수확은 무명의 김종윤선수가 8년만에 우리마라톤을 16분대로 재진입 시킨 일이다. 또 이에 못지 않게 7백명의 선수들이 완주의 기록을 세운것은 마라톤대중화의 조짐이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것이라 할만 하다. 연도의 관중이 인산인해로 이어져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표시했던 일 또한 그렇다.

마라톤한국 소생의 싹이며 신호인 것이다.

MOZART COLLEGE OF MUSIC

음악원생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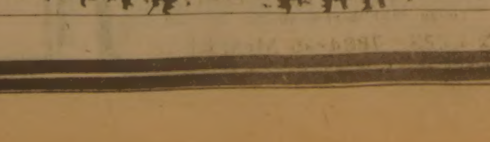
본 음악학원은 최신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음악전문학교 입니다.

교수진 : 명문음악대학을 수료한 BA, ARCT학위 소지자로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있는 교사들로 구성됨.
교수명 : GRACE SCOTT, ORELL FRITZ, LYUBOV SHILLER, SEMY SHILLER, ALICE YU, TATIANA GUTLIN, LAMBERT DANIELLE, KATHY SAUVE, TANYA DEMENTEVA, MICHAEL BRACKEN, HYE S YUN, ROBERT ROBERTS, JANET KOH, VESNA SALIB, MILANA MULGREW.
과 목 : 피아노, 올겐, 바이올린, 기타, 홀룻, 성악, 이론및 화성.
편 성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개 강 : 4월5일
접 수 : 오전9 : 30~오후9 : 00까지 수시로 함.
장 소 :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883-9407
MARKHAM PLACE, DON MILL RD.& STEELES AVE. 881-8211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 구함

본사 확장발전을 위한 뜻있는 자본주를 구합니다.
MOZART MUSIC CENTER LTD.
881-8230
※보다상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윤 호 섭



濠 로리·위티(2시간14분33초)우승
무명 金鍾允(2시간16분58초)4위
서울國際마라톤 한국記錄보다 43초뒤져

◇覇者의 환한 웃음 우승을 차지한 로리·위티㊨와 앨리슨·로.

「한국 대표」는 어디서무엇했나. 무명선수들만이 빛을 낸 마라톤이었다. 제1회 서울국제마라톤이 28일 낮12시의도를 출발, 강변을 일주하는 42·195㎞환상코스서 벌어져 濠洲의 신인 로리·위티가 2시간14분33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세계 최고기록보유자인 앨리슨·로가 독주끝에 2시간43분12초의 부진한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선수로는 무명의 신인 金鍾允(22·육군3사)이 한국대표급선수들을 모조리 따돌리고 역주끝에 2시간16분58초로 4위를 차지, 새로운 유망주로 등장했다.

한국신기록의 숙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8년만에 金16분대로진입했다는점에서金의분발은이대회의수확이었다. 섭씨14도,습도51%,풍속초속3m의 화창한 날씨속에진행된 이날 레이스는 국내외에서 7천여선수가 참가한 사상초유의매머드마라톤잔치였다. 레이스중반까지는(스웨덴)과 마송(탄자니아)이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였으나 40㎞지점인 서울대교에서 로리·위티가 스퍼트, 마송을제치고우승했다.

女子1위 앨리슨·로

金의 기록은 지난74년3월 文興柱가 세운 2시간16분15초의 한국최고기록에 불과 43초차로육박한 호기록이다.

마라톤 大衆化 기틀마련
代表선수탈락 强訓에 허점
새코스開發…우수코치確保 급선무

제1회 서울국제마라톤은 7천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마라톤 페스티벌을 펼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첫 대회에서는 기대했던 호기록이 작성되지 않아 실망적이었지만 이번 대회는 한국마라톤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마라톤을 대중화시키는 목적을 일단 달성했으며, 여자세계최고기록 보유자 앨리슨·로가 참가하여 力走, 우리여자마라톤의 자극제가 되었다.

무명의 金鍾允이 한국 최고기록에 43초 뒤지는 2시간16분58초대로 4위를 마크, 주최국으로서의 체면을 간신히 살려주었다. 金의 발굴은 이대회의 가장 큰수확이었다. 그러나 한국기록 경신을 기대했던 대표선수 15명 가운데 崔慶烈(한전)만이 2시간22분12초로 19위를 차지했을뿐 나머지선수들은 31위 이하로 처지거나 도중 기권했다. 1백50위까지 완주한 선수는 林相圭(32위) 黃奎勳(38위) 등 6명 뿐이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마라톤대표팀구성과 強訓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대표선수가 아닌 金 외에 李?熙 11위, 李?熙 13위, 李?前 17위를 마크, 대표선수보다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그냥 웃어넘길수없는 아이러니다.

한국마라톤의 최대 과제는 무수한 신인의 발굴과 신인들을 키울수있는 우수한 코치의 확보다. 고등학교때만 해도 유망주로 각광을받던선수들이 대학이나 실업팀에가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경우가 많다. 유망선수를 우수선수로 길러낼수있는 코치육성이 아쉽기만하다.

매머드대회를 처음 치르는 육상연맹은 대회운영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진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모순점을 드러냈다.

출발때 출발대가 좁아 … 스타트한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모순점은 이번대회를 거울삼아 시정할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다음대회때부터는 완벽하게 대회를 운영해야 하겠다. 4차례의 수정끝에 확정된 강변도로 환상코스는 …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새로운 코스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閔炳宅기자】

◇서울國際마라톤 기록

▲남자부

순위	이름	소속	기록
①	로리·위티	(호주)	2시간14분33초
②	마송	(탄자니아)	〃15분10초
③	토미·퍼슨	(스웨덴)	〃15분36초
④	金鍾允	(육군3사)	〃16분58초
⑤	에로타보	(이탈리아)	〃17분06초
⑥	가따수미	(일본)	〃17분18초
⑦	엘로이·슈레테	(브라질)	〃17분22초
⑧	오르테가	(스페인)	〃17분39초
⑨	슐레진저	(주한외국인)	〃17분59초
⑩	필립·스티브	(미국)	〃19분32초
⑪	金賁珊	(한국체대)	〃19분41초
⑫	요젠슨	(덴마크)	〃19분52초
⑬	李善熙	(육군3사)	〃20분04초

▲여자부

순위	이름	소속	기록
①	앨리슨·로	(뉴질랜드)	2시간43분12초
②	신디·해밀톤	(캐나다)	〃49분13초
③	수·크렌	(미국)	〃49분49초
④	드레이크	(호주)	〃54분54초
⑤	安春子	(산업기지)	3시간1분50초
⑥	안젤라	(서독)	〃3분08초
⑦	崔敬子	(산업기지)	〃4분40초
⑧	크리스탈·하이네	(서독)	〃8분10초
⑨	투시니트·수우라	(브라질)	〃12분01초
⑩	具惠淑	(고려대)	〃16분03초
⑪	吳敎美	(한국중)	〃19분17초
⑰	李?	(육군3사)	〃21분28초
⑲	權?	(한전)	〃22분12초

李萬洙(三星) 홈런
프로野球 2일째 서울·釜山·大邱

서울·釜山·大邱서 프로야구열풍이 일고 있다. 프로야구 이틀째인 28일 1만5천의 관중이 모인 서울운동장에서는 OB베어즈는 美마이너·리그 출신 朴哲淳의 역투와 申慶植 楊世鍾의 연속홈런을 비롯한 안타로 홈·그라운드의 MBC靑龍을 9-2로 완파, 서전을 장식했다. 호화타선의 롯데·자이언츠는 1만여 釜山팬들의 성원을 받으며 라이벌 해태의 水源申泰山을 난타, 14-2로 대승했다. 三美·슈퍼스타즈는 예상을 뒤엎고 大邱에서의 원정경기에서 三星·라이언즈를 5-3으로 격파, 1승을 올렸다. 三星의 李萬洙는 이날도 자신의 2·3호 홈런을 날려 통산 3개로 홈런 레이스 1위를 마크했다. 大邱시민운동장에도 1만2천여 유료관중이 스탠드를 메워 이날 3개 구장에서는 총3만8천6백여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전기동안 각팀성적

팀	승	패	율
OB	1	0	1·000
롯데	1	0	1·000
三美	1	0	1·000
MBC	1	1	0·500
해태	0	1	0·000
三星	0	2	0·000

◇28일 경기

OB-MBC

팀	1	2	3	4	5	6	7	8	9	계
OB 베어즈	0	1	0	0	3	1	1	0	3	9
MBC 청룡	1	0	0	0	1	0	0	0	0	2

▲홈런=李[illegible]範(6회) 申慶植(9회·2점) 楊世鍾(9회·이상OB)

팀	1	2	3	4	5	6	7	8	9	계
三美 슈퍼스타즈	0	1	0	0	1	3	0	0	0	5
三星 라이언즈	0	0	0	1	0	0	2	0	0	3

▲홈런=李萬洙(4회·6회2점 三星)

팀	1	2	3	4	5	6	7	8	9	계
해태 타이거즈	0	0	0	0	0	1	0	0	1	2
롯데 자이언츠	7	1	0	0	0	6	0	0	X	14

롯데-해태

三美-三星

中央大, 약체仁川體大 대파
大學야구 劉誠容 2타점올려

대통령기쟁탈 제16회 전국대학야구대회가 29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대회첫날 1회전에서 中央大는 …

亞洲 주니어테니스 한국남녀 2회전에

아시아 주니어 테니스선수 …

작년 廣告費 1,310억원
매출액 0.77%…前年比 34%늘어
1백大기업 현황

주요 상장기업들은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한햇동안 광고선전비를 前年보다 34·1%나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증권관계기관이 분석한 1백대 상장기업 81년도 광고선전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지난 한햇동안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총 1천3백10억3백만원으로 前年보다 34·1%나 증가했다. 광고선전비 지출액은 매출총액인 16조9천3백20억원의 0·77%에 달하는 것이다.

업체별 광고선전비 지출규모를 보면 ▲太平洋化學이 한햇동안 73억6천8백만원을 광고비로 사용, 前年에 이어 가장 많았고 ▲2위는 三星電子의 71억4천3백만원 ▲3위는 大韓航空의 61억6천3백만원 ▲4위는 金星社의 48억3천3백만원 ▲5위는 럭키의 46억5백만원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매출액규모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大熊製藥으로 18·3%나 됐으며 ▲다음이 韓一藥品의 15·4% ▲3위는 日東製藥의 10·9% ▲4위는 韓國化粧品의 10·1%등으로 4개社에 달했다.

반면 매출액규모에 비해 광고선전비의 비중이 가장 낮은 기업은 大宇의 0·01%로 3억1천9백만원에 그쳤고 大林産業은 0·02%인 2억8백만원을 광고비로 사용하는등 0·1%이하의 광고비를 지출한 기업은 13개社였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⑲

바쁘고 화려한 나날을 보냈다. 후일 전매청장을 지낸 대학예과의 동료 朱忠植과 전 서울大 수학교수와 山口高等학교교장을 지낸 刀根?(재일)를 등경에서 만나 우리는 ㅡ가준 말벗이 되었고 大學을 졸업할때까지 서로 하숙을 찾는 허물없는 친구들이 되었다. 또 法政大에 적을 둔 ?英十과 明治大學의 樺木山(작고)은 고보동창들이다. 후일 와세다大의 李鍾?과 明治大의 樺木山과는 東中野에 집을 얻어 한동안 자취생활을 한 잊지못할 친구들이다.

1932년이 저물어갈 무렵 엄친으로 부터 편지가 왔다. 명달후면 대학예과를 수료하는데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해서 후일 취업을 빛낼수 있는 인물이 되라는 것이었다. 뮤직이나 음악이나 영화니하고 취미생활에 열을 올린 2년동안이 아쉽고 부끄러웠다.

九州帝大 편입실패
父親, 法科진학 다시독촉
33年3月 九州行 열차에

죄책감 같은 것이 갑자기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예과 성적이 그런대로 우량한 편이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고 자부해 보았다.

미국유학에서 돌아온담임교수 오오미야(大宮)선생을 자택으로 방문했다. 영어교육을 담당하던 오오미야교수와는 수업시간 때나 평소에 남다른 친분으로 대해오던 터이라 꼭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九州帝大에 편입시험을 칠수 있는 학교승낙과 서류작성의 부탁이다. 오오미야교수의 특별한 배려와 노력으로 … 받을 수 있었다. … 시험준비에 들어갔다. 학교도서관과 하숙에 틀어박혀서 몇달동안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변모했다.

1933년 3월 … 하행열차에 몸을 싣고 아름다운 해안으로 된 … 밀려오는 세토내해의 풍경을 보면서 내미래의 설계를 … 조작해 보았다.

서울을 떠나올때 李?이 한 말도 생각났다. 「좋아하는 예술을 어떻게 집어치울 수가 있는가」 … 는 아름답지 못한 것을 버리고 좋아하는것을 택하는 것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복잡한 사색에 사로잡혀 차창에서 푸른 백일몽은 한없이 벌어나갔다. 해가 질무렵 九州후쿠오까에 도착했다. 하꼬자끼(箱崎)에 있는 조그마한 일본여관에 투숙했다. 이른날밤 나는 목욕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여수도 풀고, 머리도 식힐겸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거리를 방황했다. 하꼬자끼 수족관을 지나 이름모른 거리로 접어들었다. 많은 꿈들이 海風을 타고 왔다. 하나 하나 주마등같이 내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어느덧 나는 조그만한 영화관앞에서 발을 멈췄다. 「모로코」란 극작 「모로코」(morocco)는 게리·쿠퍼와 마를레네·디트리히가 그 명연기로 엮어놓은 그시대에 드문 … 쳐다보고있는 내자신을발견하고 … 못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조제프·본·스턴버그의 수

◇게리·쿠퍼가 주연한 영화 모로코。나는 이영화 때문에 늦잠을 자 九州帝大 편입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전날밤 散策중 영화「모로코」관람
밤새워 幻想…늦잠들어 試驗놓쳐

명작이다. 아프리카의 정열이 타는 로맨티즘과 인간애가 물씬 풍기는 이색적작품으로 유명하다. 쿠퍼의 커다란 얼굴높이 … 네온사인을 받으면서 수험생을 … 없이 유혹했다. 웨딩드레스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 하사의 뒤를 따라 사막의 열사를 달려가던 아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가는 대목에서 장내에는 환하게 불이 켜졌다. 관중들은 한동안 넋을잃고 앉아있었다. 이 감격적이고 인상적인 에필로그가 여관밤에 돌아온 나를 밤늦도록 환상의 세계로 방황하게 했다.

새벽2시, 얼마동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잠을 깬 것이 오전9시. 세수도 못하고 허둥지둥 해안가에 있는 법학부교사로 달려갔다. 흰 모래밭으로 태평양의 파도가 밀려오고 여기 저기 서있는 종려(棕梠)나무들이 남국의 정서를 펼쳐놓은 대학교정에는 이미 인기척이 없었다. 시계를 보니 論學시험이 시작한지 25분이나 지난 뒤였다. 영화가 유죄였다.

나는 멍하니 소철나무와 종려수가 있는 남국의 교정을 목표도 없이 걸어갔다. 거센 파도가 나를 공격하듯이 와르르 밀려왔다. 영화에의 집념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의 판도는 이때가 전환점이 되어서 전혀 다른 세계를 구축했으리라.

朝鮮大、延大 제압
湖南大도 國民大이겨
대통령盃全國축구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3>
朴婉緒 作 金光培 畵

明暗 ⑦

인재는 곧 수지를 알아봤다.

『언제 왔어?』

『아까부터』

『그런 것도 모르고 안오는줄 알았어』

『빠져나오느라고 혼났어. 외갓댁 식구까지 스무명도 더 되지 뭐야? 곧 가봐야 할 것 같아』

『곧 갈걸 뭣하러 왔어?』

인재가 시무룩했다.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받아』

수지는 장미꽃다발과 작은 선물꾸러미를 내밀었다.

『고마와. 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으니 어쩌지?』

『괜찮아. 인재는 그런 사람인거 알고 있었으니까』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전에 없이 냉담하게 말했다. 여자에게 선물이라곤 손수건 하나 쥐본적이 없는것도 인재의 특별한 것중의 하나였다. 수지는 「특별」의 환상이 소멸된 후까지도 남아있는 그 특별의 잔재에 혐오감을 느꼈다. 수지는 졸업식날 느닷없이 그리고도 새록새록 자신을엄습하는 인재에대한 환멸에 차라리 난감했다.

『인재야, 가야, 가야냐?』

노파가 그들사이로 끼어들었다. 어느틈에 떨어져서 불때보다 한결 되바라진 노파였다.

『네 어머니』

인재가 어쩔줄을 모르면서 노파를 가로막더니 뒤로 조금 밀쳤다.

『얘야가 왜 이래? 내가 무신 죄졌냐?』

노파가 바락 악을 썼다.

『네 어머니』

노파가 사나운 눈으로 수지를 쏘아보면서 말했다. 수지는 지랄스러운 수치심때문에 잔뜩 기가 세진 노파한테 장난기 비슷한 친근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인재 친구 수지예요』

『그 삭시 말버릇 한번 고약허네. 워째 놈의 남자이 …』

『이놈아가 벌써부터 지 에미를 …』

노파는 지치지않고 되레 인재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

『양친은 생존해 계시구요』

연습해둔 말씨처럼 단어를 … 점잖았다.

『아뇨, 두분 다 안계세요』

그러면 그렇지 하는 것처럼 노파가 의기양양해졌다.

노파가 의기양양하다못해 살기까지 등등해질수록 수지는 웃음이 북받쳤다. 그러면서도 그 장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소화할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럴마음도 없었다.

… 세사람의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 사진사가 적시에 끼어 들었다. … 얼떨결에 두사람이 나란히 섰다. 수지는 노파를 의식하고 일부러 더 친하게 인재의 팔짱을 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流星의 賦 <34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⑳

홍계남은 경기도 접경에 주둔하고 있는 왜병들을 교묘한 전술로 공격하는 한편, 연락병을 내어 도원수(都元帥)의 행방을 찾았다.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이 임진강의 북안(北岸)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배는 북안에 가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래서 북진하려는 왜군을 북안에있는 아군(我軍)과 호응하여 공격하면 전과(戰果)를 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고 동작이 기민한 병사 몇을 골라 파견하였던바 중도에서 왜군을 만나 백열전을 벌인 끝에 전사했다.

그리하여 홍계남은 군을 영남으로 돌아 실함된 지구를 수복할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었던차에 해유령(蟹踰嶺)에서 부원수 신각(副元帥 申恪)이 이끄는 군대가 적을 크게 무찔렀다는 낭보(朗報)가 들어왔다.

해유령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白石面) 연곡리(蓮谷里)에 있는 고개이다.

한성을 점령한 왜군들은 안하무인으로 한성 근처의 마을에 출몰하여 식량조달을 겸한 약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범위가 양주읍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때 부원수 신각은 유도대장 이양원과 같이 양주의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러한 정보를 듣고 그들을 격퇴할 작전을 세웠다. 5월10일 경, 적의 부대가 양주근처에 나타나 대대적인 약탈행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각은 피난민들을 다른 방면으로 보내는 양동작전(陽動作戰)을 펴서 해유령 근처엔 무인지경(無人地境)이란 인상을 그들에게 주도록 꾸며 놓고,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여 우리 군사를 매복하여 대기했다.

이윽고 소, 말, 돼지, 닭 그 밖에 많은 식량을 실은 왜군이 질서도 없이 한성을 향해 행진하는 광경에 부딪쳤다. 아군은 이때 해유령을 중심으로 하여 왜군을 완전히 포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신각의 호령이 있었다.

우리 군사는 아수라처럼 적에게 덤벼들었다. 허(虛)를 찔린 적은 우왕좌왕 어쩔 바를 몰랐다. 아군은 순식간에 적의 수급(首級) 70여개를 베어버렸다.

이 전투에 있어서 신각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다. 말을 타고 대검을 휘두러 분신(奮迅)하는 모습은 눈부신 바 있었다. 신각 혼자 죽인 적병만도 수십명이 되었으리라고 한다.

이 전투에 이어 유도대장 이양원과 신각은 곧 병을 수습하여 임진강쪽 대탄(大灘)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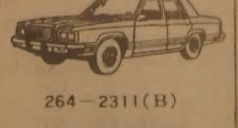
이 승전의 소식이 평양으로 전해지자 임금은 이양원에게 염의정을 제수했다. 그랬는데 신각의 운명은 비참했다. 신각의 공로가 평양에 알려지기 전에 임금은 신각을 참형(斬刑)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한성을 비린 도원수 김명원이 임금에게 신각이 무단전지(戰地)를 이탈하여 행방을 감추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임금은 신각의 승전을 뒤에야 알고, 곧 그 명령을 취소하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임금의 취소명령이 도착하기 전 신각은 이미 처형되어 있었다.

홍계남은 신각의 군과 합류하려고 행동을 일으켰을 때 이소식을 들었다.

『왜 어찌 이다지도 숨이 가쁜지고』

홍계남은 억울한 신각을위해 앙천탄식 눈물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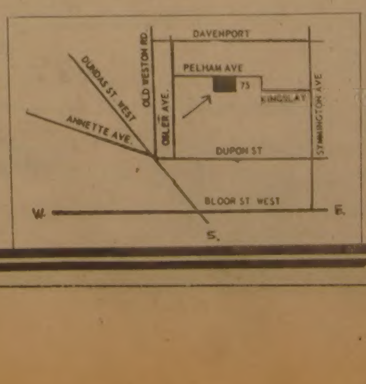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Annette's Donuts Ltd.
=QUALITY·SERVICE, RELIABILITY=
◎도넛츠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온갖 종류의 도넛츠를 취급합니다.
●YEAST FILLED 종류
●YEAST RAISED 종류
●FANCIES 종류
●각종 CAKE 종류
●스페샬 JELLY FILLED CAKE 도넛츠 종류
●CRULLERS 종류
●MUFFINS 종류



75 PERHAM AVE. TOR.
☎ : 656-3444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소형漁船 침몰 선원6명 失踪

6명탄 새우잡이배도 7일째 감감

【木浦】전남新安郡都草面牛耳島里 어라도앞 5마일해상에서 지난24일 하오6시30분께 김종실씨(59·신안군임자면도찬리48)소유 무등력선 대복호(12톤·선장 林楠口·55·목포시산정1동)가 침몰, 선장 임씨등6명이 실종됐음이 뒤늦게밝혀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9일 해경목포지구대에 따르면 대복호는 지난달 15일 새우잡이를 위해 출어, 사고해역에서 조업중 심한풍랑으로 침몰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선주 김씨가 28일까지 소식이없자 29일상오 현지해상에나가 수소문하던중 인근선단이 침몰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확인된것이다.

실종된 대복호선원명단은 다음과같다.

▲선장 임종일(55) ▲선원 김기좌(42·목포시달성동5통4반) ▲金東鎬(52·여수시광무동1통3반) ▲김용덕(48·목포시죽교1동9통2반) ▲김재학(25·해남군송지면월암리) ▲李承泰(40·완도군금일면등벽리)

한편29일 해경목포지구대에 따르면 전남新安郡荏子面전장포리 朱吉住씨(42)자 이날상오 신안군에 자신의소유인 새우잡이 무등력어선이 지나23일이후 조업중이던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칠팔도등대앞 해상에서 실종됐다고 신고해왔다.

선주 朱씨에 따르면 7톤급 무등력선인 이배에는 선장 南正植씨(49)등 선원6명이 타고있었는데 23일하오부터 연락이 끊겨 지금까지 조업하던 해상부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못해 실종된것으로 보인다는것.【韶】

새벽 商街에 불나 金房등4店舖 피해

【光州】29일 새벽5시13분께 光州市東區忠壯路4街 순창상회(주인 金斗鉉·43)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순창상회 내부를 모두 태우고 이웃 영빈의상실과 사모아의상실, 태화라사, 태화금은방등 점포 4칸을 태워 7백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후 20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순창상회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가던 金永玉씨(31·靈岩郡新北面유곡리)가 발견,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전기누전에의해 불이난것이 아닌가보고, 순창상회 주인 김씨를 불러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韶】

東萊에 山불

【釜山】28일 하오7시50분께 부산시東萊區社稷洞 주공아파트 뒷산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임야3천평의 10년생 소나무 1백여그루를 태우고 긴급동원된 소방대·민방위대원등 1천여명에의해 1시간30분만에진화됐다.【韶】

老人승차거부 暗行단속

교통부 "불친절" 業體 운행停止도

교통부는 시내버스를 상대로경로무임제를실시한이후노인들을 불친절하게 다루거나 잦은 승차거부사례등 말썽이 잇따르자 시·도및 버스조합 주관하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4월3일까지 종업원에 대한 특별교육을실시토록 29일 각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 지침에의하면 4월5일부터 15일까지 「노인친절하게 모시기 캠페인」을벌이며 노인에게 불친절하거나 승차거부를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처분등 강력한 단속을하도록하고 이시행여부를 살피기위해 암행단속반을 파견 하기로 했다는 것.

또교통부는 버스 이용자들도 경로무임제 위반사례에대해서는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활용토록 당부하고 있다.

오토바이 타고가다 버스에 치어 숨져

【光州】28일 하오7시50분께 전남 羅州郡西面九萬里앞에서 1백25cc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趙甲均씨(25)·金昌植씨(25·光州市東區鶴洞)등 2명이 마주오던 순천교통소속 전남5아 1-3 2호 시내버스(운전사 빈차량·42)에 치여 숨졌다.

이날 사고는 시내 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일어났다.【韶】

용의자追跡 허사

美文化院방화, 문제學生 계속수사

【釜山=盧基昌기자】속보=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9일 범행전 래스팅물통을 든 범인을 목격한 張모씨(56·H식당주인)로부터 범행전 4~5차례 식당에 드나든 범인이 대학생풍의 청년들과 함께 온일이 많았다는 진술을 받아 문제학생과 종교서클 관련자라는 용의점을 굳히고 사진 대조를 계속하고있으나 진전을 보지못하고있다.

이와함께 경찰은 산장여관 지하인쇄소에서 발견된 巨堤교회 장로 장립식기념보자기 출처수사에서도 배포된 5백여장중 35장만 회수했을뿐 나머지의 행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경찰은 또 붉은전단의 지질과 잉크 글씨체 등을 조사하기위해 美문화원근처의 학교, 종교단체, 인쇄소등 50여개소의 타이프용지 잉크등을 수거, 감정했으나 특이점을 찾지못했다.

한 수사관계자는 정확한 목격자 張씨가 釜山지방의 문제학생층을 대상으로 사진대조결과 용의자를 찾지못함으로 [illegible] 수사범위를 넓혀 전국의 문제학생과 불량서클 가담자, 좌경색이 짙은 전과자등에 대해 계속 사진대조를 하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1용의자로 꼽고있는 李鎬喆(24)이 범행에 관련됐다는 심증이 굳기때문에 그의 행적수사도 계속하고있다고 밝혔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都市계획에 꽁꽁묶인 「自立의지」

裡里市 馬洞신설지 마을

도박·술타령추방 犯罪서 손떼고 難民村을 모범 마을로 일궜는데…

여기는 移動讀者部

◇난민촌을 모범새마을로 바꾼 주민들의 소박한 꿈은 주택개량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그꿈을 이해해주지못해 안타깝다.

"公園地로편입 4년째 집수리못해 불붙은再生의몸부림 헛될까겁나"

【裡里=裵琪哲기자】자립과 성장, 개혁을 계속하려는 주민의지가 도시계획에 묶였다. 특히 주민들은 裡里에서도 유명했던 난민촌을 9년만에 모범새마을로 만들었으나 일대가 지난 78년 공원지구로 묶여 4년째 개발을 중단하고있다고 불평, 당국의 재고를 바라고 있다.

전북 裡里市馬洞 신설지마을. 보잘것없는곳을 지칭한 「녹두밭윗머리」라면 裡里지방에서는 모르는이가 없던 빈민촌이었다. 철도를비롯, 각종 우범자들이 살던곳이었지만 이제 과거의 오명을 말끔이 씻은지 오래다.

그런데 재산세나 취득세를 꼬박꼬박 내지만 78년부터공원지구로 도시계획에 묶이면서 방한칸이라도 늘리려면금지사항이라 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형편이라는것.

허허벌판이던 이곳에 마을이 들어선것은 해방직후 부터. 귀환동포수용소가 세워지면서 사람이 살기시작했지만 귀환동포가 하나 둘 자립해나가면서 세상살이에 실패한 빈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동안 1백여세대가 하루 막걸리 40여말을 먹어치우는것으로 유명했었고 裡里시내에서 소매치기나 절도 사건이 나면 형사들은 이곳부터 찾아왔었다.

한푼벌면 두푼을 쓰려들었고 날마다 술타령과 도박으로 세월을보내던 주민들에게 새마을정신이 들기시작한것은 지난73년, 朴福圭씨(60)등 마을의 뜻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선 마을에 질서를잡자고 경의, 경로당을 짓기로했다.

맨손으로 흙벽돌을 찍어만든 경로당에서는 매일같이 「우리도 잘살아보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방탕한 생활에대한 비판이 일었다. 『우리도 떳떳한 시민이되자』고 시작한 새마을사업은 李漢基씨(48)등 젊은층이합세했다. 흙탕길을 넓히고 시멘트로 포장도했으며 구판장도 세웠다. 새마을유아원을 만들어 어린이부터 올바른 교육을시키기시작했다. 날로 달라지는 모습에 외부에서도 주목, 대통령하사금을 2번이나받았고 수차례 표창을받았다. 문제지구라고해서 당국에서도 새마을사업을 외면했던곳에 놀라운 변화가일어난것이다.

금년부터는 자립마을로 성장했다. 대부분이 노동자들이지만 2백50세대 주민들은 새마을금고에 저축하는것도 앞장서 지난해까지 자산이 7천만원으로 늘어났고 규모를 확대하기위해 이웃마을까지 회원으로 규합, 이제는 1억원대에육박했으며 은행보다 약간 이윤은 높지만 장기 분활상환등 혜택이많아 빈민들에게는 더없이좋은 금융기관이돼버렸다.

이제 가정마다 푼푼이 모은돈과 마을금고의 지원으로 대부분이 가건물을 헐고 주택을 제대로짓고싶어 하게됐을때 도시계획이란 벽에 부닥치게됐다는 것이다.

전에는주거지역이었으나지난78년 갑자기공원지구로 편입돼버렸기때문.

마을이 들어선곳은 대부분이 국유지. 주민중 사유지에 집을지은 사람은 5가구뿐인데 이5가구만 집같은집의모습을 갖추고있다. 나머지세대들은 한결같이 새집을짓든지 방한칸이라도 늘려보려하지만 법을 어길수가 없는것이다.

마을의 지도자 朴福圭씨등은 裡里市의 처사를 비판한다. 사람도 살지않는 마을뒷산사유지는 공원지구에서 풀어 준공장지역으로 변경해줘 1백50평이상에 주택이들어설수있으며 따라서 고급주택가가될수 있게됐으나 오랫동안 주민이 살고있던 곳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공원지구로 묶어버린것은 이해할수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들의 요청은 소박하다. 공원지구중 마을이모여사는 2천5백여평만 해제해주면 모처럼 불붙은 자립의욕에맞춰 주택을 개량, 새로운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것이다.

이에대해 裡里시부시장 許承萬씨는 원래부터 공원지구였던곳인데 76년 도면작성때 주거지역으로 잘못표기돼 감사원의 지적으로 78년 다시 공원지구로 지정했을뿐이라고 말하면서 이를해제하려면 건설부의 승인이있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婦女복지회관에 放火

강제收容 불만 두少女가

釜山

【釜山】10대소녀 2명이 부녀보호시설에 강제수용된데 불만을 품고 대낮에 불을질러 5백여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28일하오 3시35분께 부산시西區峨嵋洞2街37 감리교 재단소속 부녀복지회관(원장 金모양·58)에 수용중이던 金모양(16·慶南統營郡)등 2명이 회관 기숙사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1백15평의 2층 슬라브기숙사중 2층방11개66평과 침구44개, 가구등을 태워 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후 1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기숙사에는 59명이 수용돼 있었으나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15일 이 복지회관에 강제수용된 金모양등 2명이 이곳에 강제수용된데 불만을 품고 이날 성냥으로 10호실 옷장에 불을 지른것으로 밝혀내고 소양을 방화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김양을 현상수배했다.

이 부녀복지회관은 가출및 윤락여성을 강제수용해 직업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그동안 일부 부녀자들의 탈출사례가 있어왔다.

맹장手術 入院치료중 페니실린副作用 死亡

【釜山】28일하오1시께 부산시北區德浦2洞 1064 제일의원(원장 담도훈·35)에 맹장환자로입원중이던 임종란씨(44·여·北區鳴旨洞456)가 이날상오11시께 페니실린과 링게르주사를 맞은후 발작을 일으켜 2시간만에 숨졌다.

임씨는 지난24일 상오9시께 제일의원에 입원, 맹장수술을받고 경과가 좋은상태로 치료중 변을 당했다는것.

경찰은 정확한사인을 가리기위해 임씨의 시체에대한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원장 담씨를불러 과실유무를 조사중이다.【韶】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

20代주부 變死

莞島, 사촌오빠 結婚式에갔다가 慘變

개펄 구덩이에 半裸로, 목졸린 흔적

【光州】28일하오2시께 전남莞島郡外面東津里앞 외딴바닷가 구덩이에서 魏炯씨(27·여·昇州郡樂安面西內里)가 이마를 둔기에 찍힌듯한 깊이1·5cm의 상처를 입은채 브래지어로 목이 죄어 숨져있는것을 이마을 金花德씨(52·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에 따르면 숨진 魏씨는 하의가 벗겨진채 깊이 50cm, 직경2m가량의 개펄구덩이에 반듯이 누워 숨져있었는데 주위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돌이 여러개 놓여있었다는것.

魏씨는 사촌오빠 결혼식에 참석한뒤 22일상오10시 昇州에있는 시가로 돌아가기위해 짐을 꾸려놓고 밖에나가 바람쐬고 오겠다며 莞島친정집을 나간후 소식이 끊겼다.【韶】

폭발물 갖고놀던 어린이 3명死傷

【春川】27일하오4시께 강원도 麟蹄郡瑞和面瑞和2里 앞 개울에서 이마을 김호정군(13·서성국교6년)등 3명의 어린이가 종류미상의 폭발물을갖고 놀다가 터져 김군이 그자리에서숨지고 최병철군(16·서화중3)과 김삼룡군(13·서성국교6)등 2명은 중경상을입고 麟蹄종합병원에입원 가료중이다.

이들은 이날 마을앞 개천에서 놀다가숨진 김군이 주워온 종류 미상의 폭발물을 바윗돌에 던진것이 폭발, 변을 당했다.【韶】

아파트分讓 미끼 詐取

11명 2천여만원 떼어

【光州】光州경찰서는 29일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2천6백만원을 가로챈 光州市東區錦南路4街 대광주식회사 대표 文斗植씨(25)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文씨의형 문일씨(4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형제는 지난해 10월30일회사 사무실에서 光州市北區牛峙洞387 대지 2천여평에 26평규모의 초원아파트를지어 분양해주겠다고속여 金民源씨(46·光州市北區中興洞371)등 입주희망자 11명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천6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것.【韶】

船員 의문의 죽음

멍든자국 他殺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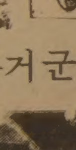
【蔚珍】경북蔚珍郡平海邑厚浦里 동방 55마일 해상에서 꽁치잡이를 하던 후포항소속 제2대광호(45톤·선장 유영부·32)선실에서 선원 김월동씨(29·蔚珍郡平海邑厚浦2里)가 숨져있는것을 선장 유씨가 발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선장 유씨에 따르면 대광호는 지난26일 상오9시 선원10명을 태우고 후포항을출항, 꽁치잡이를 나갔는데 27일밤 10시께 숨진 김씨가 작업중 복통과 두통을 일으켜 선실에가서 쉬도록 한뒤 28일상오 4시께 선실에 내려가보니 숨져있었다는것.

경찰은 숨진 김씨의 얼굴에 코피를 흘린 흔적과 타박상 자국이 [illegible] 가 보고 [illegible] 중이다.【蔚】

「아바이」신랑

디자이너와 結婚한 歸順兵 李英鮮군



귀순용사 李英鮮군(26·고향 咸南新興·라이프주택 근무)이 결혼식(사진)을 올렸다. 臨津江을 헤엄쳐 건너는 용기로 자신이 살아갈 땅을 선택했던 그가 한여인을 평생 인생의 반려자로 만드는데도 성공한 것이다.

24일하오2시 시내 鍾路예식장에서거행된 李군의결혼식은 비록 北의家族친척들은 없었지만 어느누구의 결혼예식장보다도 풍성했다. 회사선배, 동료, 대공관계자들, 그리고 妻家친척들 하객들로 꽉들어찬식장에서 신랑은 긴장하기도하고 싱글벙글웃기도하면서 「기쁨」을 감추지않았다. 검정예복으로 말쑥이 단장한 李군은 지난77년8월 당시의 北傀軍 상등병(2군단9사단직속경보병대대)때와는 전혀 달랐다. 촌티는 간데없고 건강한 도회지생활인의 모습의 말쑥한 댄디였다.

李군이 신부를 처음 만난것은 지난1월초. 평소 李군이 잘가는 음식점아주머니가 소개한 패션·디자이너 崔玉子양(25)이었다. 1m65cm의 훤칠한키에 미모를갖춘데다 忠南瑞山의 崔부잣집 셋째딸이어서 말하자면 지주가문.

李군은 사랑을 쟁취하기까지 큰고생을했다. 첫눈에 반해버렸지만 벙어리 냉가슴을 앓은것. 만나기만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여자를 만난적이 없었고 「웨이트」라는건 난생 처음이었다.

매일같이 만나긴했지만 그많은시간을 산책과 토론으로 보냈다. 아무리 부드러운 언어를 써보려해도 화제는 어느사이 딱딱해져가고 있었다.

신부 崔양은 이 생소한 데이트를 계속하는동안 그가 활달하고 성실한 「사나이」를 만나고 있다는걸 느끼기 시작했노라고 했다. 『처음엔 귀순용사라고 해서 좀 겁이났어요. 하지만 교제하는사이 그가 요즘 세상에는 보기힘든 순진파고 정의파라는것을 알게됐지요』

그들이 합치는데까지는 李군주위의 노력도 컸다. 회사의 선배·임원, 그리고 李군을 아는 모든이들이 적극적으로 돕고나섰다.

결혼식날 李군의 직장인 라이프주택에서는 1백만원과 1계급특진을 선물했고 사랑의 보금자리도 신랑은 함경도 아바이촌신답게 龍山區青坡洞에 25평 아파트까지 어느사이 준비해두고 있었다.

"이게 自由라는거군요" 눈물 글썽

3박4일의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李군은 눈물을 글썽였다. 『이게 自由라는 거군요』【金宗來기자】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금.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금.토.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K.T.PUBLISHING
WHY NOT PRINT YOUR PAPER HERE?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신문인쇄 전문
(윤전기 4대 가동중)
WHY NOT GIVE US A CALL
☎ : 533-2361
Ask for Susan or Lawrence
9:00 a.m.-6:00 p.m. Monday - Friday
NO JOB IS TOO SMALL!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532-0602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貸出 年16%→14%로 預金 年15%→12.6%

金利 내일부터 또引下

"景氣자극 必要性따라"

——어젯밤 임시金融通貨運營委서 의결

企業 年2千億 부담덜어…輸出금리는 1%내려

한국은행은 27일밤 임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긴급소집, 대출금리는 2.0%, 예금금리는 2.4%씩 각각인하,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 일반대출금리는 연16.0%에서 14.0%로,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는 15%에서 12.6%로 내리게됐다. 수출금융금리는 12.0%에서 11%로 인하된다. 수출금융외에 다른 정책금융금리는 조정되지 않았다.

◇金利引下내용 (단위 : 연%)

		종전	개정
與信	일반자금대출	15.5 / 16.0	13.5 / 14.0
與信	어음할인	15.5 / 16.0	13.5 / 14.0
與信	당좌대출	15.5 / 16.0	13.5 / 14.0
與信	적금관계대출	15.5 / 16.0	13.5 / 14.0
與信	[illegible]	15.5~17.5 / 16.0~18.0	13.5~15.5 / 14.0~16.0
與信	中小企業자금	15.0	13.0
與信	수출지원금융	15.0(12.0)	11.0
與信	연체대출금리	24.0	22.0

※ ( ) 안은 잠정금리

受信		종전	개정
정기예금	1년이상	15.0	12.6
정기적금	3년	15.0	12.6

高位실무委 常設 협의

30·31일 韓美安保협의회

「敬老優待푸대접」是正

民正黨방침 "福祉우선위해 坐視못해"

프로野球 40分관람 全대통령, 選手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27일 하오 서울운동장야구장에서 거행된 한국프로野球開幕戰에 참석, 선수와 국내외 프로야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始球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6개球團主들과 잠시 환담하고 2개의 야구공에 기념서명을 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벌어진 MBC청룡과 三星라이언즈의 첫경기를 약40분간 관람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멋진 폼으로 始球하고있다.

프로야구時代 활짝 열렸다

全대통령 始球 6개팀 熱戰의 大長征

"함께웃고즐기며 規則지키는國民으로" 劉총리

프로야구가 드디어 힘차게 출발했다. 한국 스포츠의 새 章을 장식하는 프로야구가 27일 하오2시30분 서울운동장 야구장서 6개구단 1백38명의 선수들이 참가한가운데 MBC靑龍―三星 라이언즈간의 개막전을 스타트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갔다. 靑龍―三星 개막전에 앞서 全斗煥 대통령은 3만여관중의 박수를 받으며 마운드로 걸어나와 始球, 뜻깊은 프로야구의 개막을 축하했다.

◇그라운드 쇼도 즐거운 3萬관중 프로야구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3만관중이 환호하는가운데 개막식에앞서 화려한 그라운드 쇼가 펼쳐졌다.

社會漫評

…셋、넷、다섯…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갈비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카나다한인총연합회부인회 창립총회

한인 부녀자 여러분! 한인사회 수많은 단체가 있어도 부녀자들만의 친목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하여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들만의 단체는 없읍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만을 양육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만이 안고있는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여성의 권익을 우리 스스로가 힘을합해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의 민족혼을 지켜가기 위하여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참여해야 겠으며 우리자신의 권익 보호와 사회봉사에 앞장서야 겠읍니다.

이러한 취지로 아래와 같이 캐나다 대한부인회 창립총회를 갖고자 하오니 뜻을 같이하시는 여성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982년2월24일

일 시 : 1982년4월10일(토)오후5시
장 소 : 한인회관(20 Moblie Dr.)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이 있겠읍니다.

시 간 : 오후5시~6시 식사
오후6시~7시 총회
오후7시~7시30분 무용

창립준비위원 일동

쌀·쇠고기·연탄등 10개품목

매월 需給동향 예측制로

庶民생활안정대책 발표

生必品 새指數작성

農·畜産物 계통出荷 대폭확대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쌀·콩·쇠고기·연탄등 10개생필품을 대상으로한 기본생필품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7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이들품목에 대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매월 1회씩 수급동향을 점검, 예측하는 需給豫測制를 실시하고 현재 조사 발표하고 있는 도·소매물가와 별도로 10개품목만을 대상으로한 기본생필품지수를 작성, 발표하는등 가격동향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비축재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쇠고기·돼지고기·석탄등의 비축을 늘리고 세제, 금융면에서의 지원도 강화, 국제원자재가격이 오를경우 원당 소맥 牛脂등의 관세율을 인하, 가격안정을 기하고 석탄비축자금지원을 확대키로했다.

이와함께 농·축산물에 대한 농·畜協을통한 계통출하를 늘리고 소비지의 물량부족이 예상될때는 출하를위한 先給金을 지원하고 국민입맛에 맞는 농축산물의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대상품목은 전도시 가계지출비중 구성비가 높고 물가변동률이 큰품목으로 소득및 가격이 비탄력적인 생필품 중심으로 선정했다.

올들어 지난 2월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1% 올랐는데 비해 이들 10개품목은 0·3%밖에 오르지 않았다.

10개 품목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쌀=가격조절용 정부미의 적정방출, 종합식품 계획실시로 식품간 소비조정.

▲콩=가격조절용으로 3만톤수입비축, 대량수요자에 대한 직수입확대.

▲고추=5천톤수매비축, 비축고추를 일반소매상에 直販.

▲쇠고기·돼지고기=쇠고기 2만9천톤 수입, 국내산 쇠고기 5백톤·돼지고기 6천7백톤수매비축, 포장육을 식품점까지 판매토록 허용, 계통출하자금 20억원지원.

▲밀가루=할당관세의 탄력적운용, 장기적인 가격안정으로 식빵 탁주등 관련제품의 가격안정유지.

▲라면=부자재인 牛脂관세의 국제가격이 오를경우 탄력관세율을 인하.

▲설탕=원당의 국제가격추이를 철저히분석점검하여 할당관세율을 탄력적으로조정.

▲소금=필요할경우 긴급수급조정자금으로 비축생산자금지원확대.

▲연탄=재정자금 2백19억원을 투입, 국내 석탄 3370만톤을 비축하고 1천1백억2천만원(조달기금 저탄기금 금융자금포함)을 지원, 4백50만톤규모의 '82년夏季저탄을 앞당겨 실시.

〈금년도10개생필품수급계획〉

품목	단위	수요	공급	전년이월	올해생산	수입	내년이월
쌀	천석	39,310	48,506	9,890	35,160	3,456	9,196
콩	천%	770	856	62	257	537	86
고추	〃	137·6	137·6	—	137·6	—	—
쇠고기	〃	97·0	101·6	4·6	68·0	29·0	4·6
돼지고기	〃	231·0	236·0	—	236·0	—	5·0
밀가루	천袋	66,000	67,782	1,282	66,500	—	1,782
라면	천상자	40,720	40,750	—	40,750	—	30
설탕	천%	710	727	15	712	—	17
소금	〃	690	914	131	783	—	224
연탄	〃	22,276	29,773	7,443	19,700	2,630	7,497

수출입 連繫를강화

商工部 完製品들여올때 部品사가게

상공부는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기위한 방안으로 외국에서 완제품이나 시설재를 들여올때 우리나라 부품을 반드시 사가도록하는 수출입 連繫化정책(오프세트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했다.

이와함께 관세환급등 수출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섬유류원료등 국산원자재가격을 인하조정하는 한편 정부안에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수출촉진대책위원회를 구성, 업종별동향을 점검하면서 강력한대책을 펴나가기로했다.

徐錫俊상공부장관은 27일 올들어 수출신장률은 당초예상보다 다소 떨어지고있으나 이는 세계경제가 침체된데다 선진국의 보호무역강화등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데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내적으로 소액주문과 중소기업 제품 다양화 등 「티끌모아 태산」격의 수출촉진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徐장관은 수출여건이 좋지 않지만 2백45~2백50억달러 목표가운데 2백45억달러 달성은 무난하다고 전망하고 수량적 목표달성만을 위해 무리하게 업종별·업체별로 목표액을 배정하는 방법은 쓰지않겠다고 말했다.

徐장관은 수출입 연계화정책은 획일적으로 적용치않고 경우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中小企業振興公團이사장 柳鍾烈씨 내정

中小企業振興公團이사장에 靑瓦臺경제비서관 柳鍾烈씨(43)가 내정됐다.

프로野球 1號

▲홈런=李萬洙(三星4번·포수) 5회초 솔로
▲안타=李萬洙·1회초 좌전 2루타
▲타점=李萬洙·1회초
▲득점=咸學洙(三星3번·1루수) 1회초
▲타자=千普成(三星·3루수)
▲포볼=金仁植(MBC 1번·3루수) 1회말
▲에러=金容允(MBC 1루수) 1회초
▲병살타=金容允 1회말
▲보크=李吉煥(MBC투수) 2회초
▲탈삼진=柳鍾傑(MBC) 3회초

李鍾道(靑龍)굿바이 滿壘홈런

MBC 初盤열세 延長10회말 大逆轉

三星 한때 快走 홈런3發에 쓰러져

프로野球 開幕戰 첫날부터 打擊戰…11對7

歷史的 1호 홈런의 환희

…을 때리고 홈인, 徐永武감독의 축하를 받고있다.

프로야구 제1호 홈런. 三星4번 李萬洙㊧가 5회초 통렬한 좌월솔로 홈런

4발의 홈런이 프로야구의 탄생을 축하하는 아치를 그렸다.

개막 경기의 출전영광을안은 홈 그라운드의 MBC 청룡은 연장10회말 2死후1안타 1포볼 1死球로 얻은 3번째의 만루찬스에서 6번李鍾道가 三星 라이언즈의구원투수 좌완李善熙의 제3구를 통타, 좌월만루 결승 홈런을 날려 11-7로 통쾌한 역전승을거두었다.

三星은 초반 1·2회에 MBC의 수비실책, 2버크로 5점을 선제, 기세를 올렸으나 MBC는 감독겸 5번지명타자 白仁天의 6회말 솔로호머와 4번 柳承安의 7회말3점호머에 힘입어 7-7의 동점을 만들었다.

프로야구 1호안타를 기록했던 三星의 李萬洙는 5회초 선두로 등장, MBC 구원투수 柳鍾傑과 끈질긴 승부끝에 볼카운트 1-3에서 제5구를 좌측외야석 중단에 떨어지는 장타를 날려 홈런 1호를 기록했다.

柳承安의 3점호머 한방으로 기세를올린 MBC는 8회와 9회에 각각 안타와 포볼로 2차례나 만루의찬스를 맞았으나 三星중견수 鄭丘旺이 극적으로 타구를잡는바람에 결승점을 얻지못했다.

알루미늄배트에 길들여져 나무배트로 3~5점선에서 승부가 나리라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양팀은 모두 3개의 홈런을포함 26개의안타를 날리며 난타전을 벌였다.

선공에나선 三星은 1회초 2死후 MBC 1루수 金容允의수비실책에 편승,행운의 선취점을 올렸다. 3번 咸學洙의타구가 1루수 글러브를 튕기며 더아웃쪽으로 구르는 사이 2루까지진출했으며 4번 李萬洙가 3루수옆을 뚫는 프로야구 첫2루타로 타점을올렸다.

三星은 긴장한 MBC내야진의 실책으로 1·2회의 초반공격에서 대거 5득점, 기선을 잡았다.

1회초 李萬洙는 MBC유격수 鄭永基의 실책으로 홈을 밟았고 2회초에는 MBC의 선발투수인 언더드로어 李吉煥이 연속버크를 범하는 등의 혼란을 틈타 9번鄭丘旺이 3루타, 2번 裵大雄이 적시타를 터뜨려 3점을더했다.

5회까지는 三星의 일방적우세. 그러나 MBC는 日本프로야구에서 기량을다진 감독겸 5번지명타자 白仁天이 6회초 선두로나와 우중월솔로호머를 날리며 맹렬한 추격을 전개했다.

7회말 2死후 4번 柳承安은 연속안타로나간 宋榮植 金龍達을 2·1루에두고 三星의 선발 黃圭奉의 초구를 강타, 우측외야 MBC응원단속에 동점 3점호머를날려 MBC진영의 근심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개막전

三星라이언즈 230 011 000 0 — 7
MBC청룡 010 111 300 4 — 11
〈10회연장〉

▲홈런=李萬洙(5회三星) 白仁天(6회) 柳承安(7회·3점) 李鍾道(10회·만루·이상MBC)

歡呼터지는 스탠드 농악까지동원

華麗한 응원전으로 들먹

그라운드 쇼에 興趣 고조

3만여 관중이 스탠드를꽉메운 서울운동장 야구장서는 현란한 오프닝·쇼와 열띤응원전이 펼쳐졌다.

개막식은 하오 1시25분 車仁泰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됐는데, 劉彰順 국무총리, 徐鍾喆 한국 야구위원회 총재와 6개 프로야구 구단주, 그리고 日本의 커미셔너 시모다(下田武三)씨, 요미우리·자이언츠의 쇼오리끼(正力亨)구단주등이 참석, 한국프로야구의 출발을 축하해주었다.

개막식이 끝난뒤 하오 2시24분께 全斗煥 대통령이 입장, 마운드에 올라서서 저고리를 벗고 2~3차례 와인드·업을 한뒤 정확히 포수의 스트라이크·존에 공을 던졌고 이때 관중들은 갈채를 보냈다.

「환희의찬가」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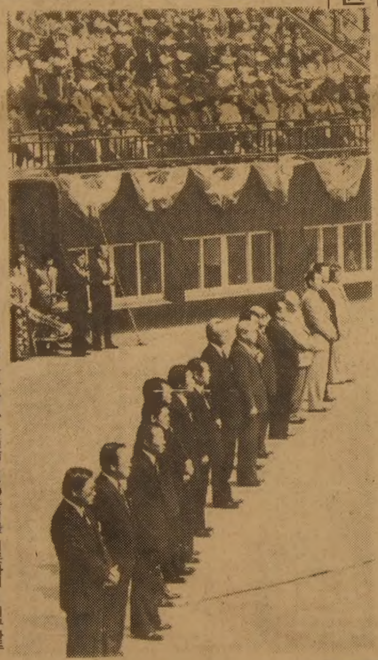
이에앞서 정오부터 MBC가 마련한 1시간짜리 매머드 그라운드·쇼가 펼쳐졌다. 우렁찬 팡파르와 함께5백여마리의 비둘기가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작된이날 그라운드·쇼는 東豆川여상, 섬암여상학생등 1백70명으로 구성된 연합고적대, MBC 무용단과 합창단의 「환희의찬가」로 막이 열렸다.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화려한춤과 노래의 퍼레이드에 관중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한국 국악예술학교생 2백50여명의 장고춤과 농악이 인기를끌었다.

갖가지 應援경쟁

스탠드에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군데군데보였다.

이어 6개구단의 치어·걸 96명이 등장, 소속구단을 상징하는 옷차림으로 흥겨운 디스코잔치를 벌였으며, 인기탤런트 코미디언들의 춤, 고적대의 행진, 자매가수들의 노래로 그라운드의 흥을 한껏 돋우었다.

한편 이날 전광판을 중심으로 좌측 스탠드엔 三星라이언즈응원팀이, 우측에는 MBC청룡의 응원단이 자리를 차지, 열띤 응원전을벌여 눈길을 끌었다.



◇國旗에 경례하는 來賓들

개막식에서 劉彰順 국무총리, 徐鍾喆KBO총재를 비롯하여 6개구단주와 日本프로야구 거물급인사들이 도열, 경례를 하고있다.

팬들 祝祭에 들떠

三星은 1천여명의 응원단을 동원, 꽃술 카드등으로 조직적인 응원전을 펼쳐 갈채를 받았으며 MBC는 대형용을 만들어 그라운드를 누볐다.

이날 유료입장객은 2만2천6백여명. 상오9시부터입장을 시작해 큰혼잡은 없었다.

관중들은 야외 나들이를하듯 음식을 장만해와 쇼와 경기를 보면서 즐겨먹기도 했다.

이날 오픈게임에는 일본日刊스포츠, 文藝春秋, NTV등 60여명의 취재기자와 중계요원들이 몰려 취재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첫날入場수입6千5百萬원

外野席 암표6千원에 거래

프로야구 첫날의 입장수입은 6천5백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내야 8천5백석 (3천원) 외야 1만6천석 (2천원) 특석1천5백석 (5천원) 등 입장권은 모두 매진됐다.

입장권을 미처 구하지못한 팬들은 운동장앞에서 암표를 구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었고 2천원짜리 외야석 암표가 6천원에 팔렸다.

한국代表 28일出國 킹스컵 아마복싱

31일 泰國방콕서 개막되는 제8회 킹스컵쟁탈 국제아마복싱대회출전 한국대표선수단 15명(임원4 선수11명)이 28일상오10시반 떠난다.

◇한국선수단 ▲단장 趙東河 ▲코치 朴炯春 蔡用錫 ▲국제심판 李在寅 ▲선수=金光善(라이트플라이) 柳在珉(플라이) 文成吉(밴텀) 徐熙宗(페더) 李潤官(라이트) 金七星(라이트웰터) 張潤鎬(웰터) 金義振(라이트미들) 李南儀(미들) 洪起鎬(라이트헤비) 蘇培元(헤비)

'82~'83 재미교포 사업의 길잡이!!

재미한인 기업년감

재미 한인 기업년감 편찬 발행 취지

한국일보 뉴욕지사에서는,한국 및 북미에서 날로 발전하여 가는 한인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신속한 경제 정보를 교환 제공하고, 기업체 사이에서의 상호 협조 및 유대 강화를 돕기 위하여서 〈82—83 재미 한인 기업 년감〉을 편찬 발행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사업은,한국일보 뉴욕지사가 주관하고, 북미 안에 있는 한국일보 전 지사들이 협조하여서, 가장 정확한 재미 한인기업 년감을 편찬할 것입니다.

이 년감을 통하여서, 현재 북미 안에서 운영 발전하고 있는 한인 기업체들의 현황, 기업 경영의 개선책 및 국제적 경제력을 쌓아 올림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80년대의 한국 경제 발전과 한인 기업의 발전 면모를 직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재미 한인 기업가들이 앞으로 이룩하여 가야 할 경제성장의 길을 모색함에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한국 기업체의 재미 지사들은 물론이고, 북미 안에서 이룩한 주식회사와 그 지사들, 그리고 개인 기업체로 운영되는 모든 기업체들이 이 편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뜻하시는 바의 발전을 이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 상: 북미 한인 기업체와 북미 주재 한국 상사, 지사 및 개인기업체 (카나다 포함)
신청마감: 1982년 4월31일
접수방법: 한 기업체가 신청서와 신청비 $100불 동봉하시면 됨
특 전: 년감이 발행되면, 년감 1권을 우송하여 드림 (송료 본사 부담)
제출처: THE KOREA NEWS, INC.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42-22 27TH ST, L.I.C., N.Y. 11101
(212) 784-4800

목차

1.수록 기업의 기준
전미주 기업체 주재상사, 지사, 합자회사 일체를 대상으로함.
2.업종분류
전미주에 미정부, 주, 시로 부터 등록된 기업종류에 대체를 따랐음.
3.수록 순서
업종별로 가나다 순서에 따랐고 한기업체가 여러 업종을 가지고 있을때는, 대표 업종을 기준으로 삼음.
4.자료 수집 방법
직접조사(방문, 전화문의)와 간접조사(우편, 협회, 단체, 관련업체)에 의존함.
단: 상기 방법으로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역 한국일보 신문 혹은 자매지에 보유된 자료로 사용함.
5.부록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료

'82-'83년 재미 한국 기업 년감 신청서

대표자명 영어		한글
생년월일	년 월	일
본 적	특별시(도)	시(군)
사업명		
설립 년월일	년 월	일
경영 형태	개인경영	주식회사
자본금 $		
본사		
종사원수	전화	
주요취급은행		
사업내용 (상세히)		

※CHECK나 MONEY ORDER로 TO : THE KOREAN BUSINESS YEAR BOOK IN AMERICA.

주관 : 한국일보 뉴욕지사

42-22 27th ST. L.I.C.,N.Y.11101 TEL. : (212)392-5671(입) (212)784-4840(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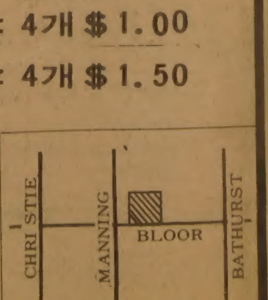
내고향통닭집

특별봉사가격

김밥	$2.95	곰탕	$3.50
생선초밥	$4.50	설렁탕	$3.95
오뎅	$3.00	빈대떡	3개 $1.50
오뎅백반	$3.75	만두	4개 $1.00
가끼우동	$3.00	에그롤	4개 $1.50

658½ BLOOR ST. W.

537—0432 Mrs. Lee



金利인하 得과失

問答으로 알아본다

금리인하로 기업과 가계가 상당액수의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은행저축을 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이자소득이 줄게 됐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바로 어제 1년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어떤금리가 적용되는지。

어제預金 15%적용

▼종전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변경된 금리는 29일이후 계약된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8일이전에 계약된 저축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금리가 적용된다。 어제(27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15%이므로 이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다음利子 낼때부터

▼대출이자는 선이자를 떼므로 이미 낸 이자에 대해서는 인하된 금리가 소급 적용될수 없다。 따라서 다음번이자를 낼 때부터 내린 금리를 적용한다。

—2백만원을 은행에 맡기려고 하는데 이자가 종래보다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백만원 2千원줄어

▼1년만기 정기예금을 든다고 할 경우 종래에는 연15%로 1년간 이자가 30만원, 한달에 2만5천원 꼴이었는데 이번에 금리가 2.4%포인트 내려서 연12.6%가 됐으므로 1년간 25만2천원, 한달에 2만1천원 꼴이 됐다。

—5백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 경우 이자는 얼마나 줄어들게되나?

月 5만8천원꼴

▼금리인하폭이 2%포인트이니까 연간이자부담이 10만원 준다。 종래에는 연16%…

景氣浮揚위해 불가피…預金격감 걱정안돼

2백만원 預金이자 年 25만원·5백만원貸出 年 10만원 利子줄어

物價한자리數 억제되면 預金者 손해없어

企業負擔 크게덜어

輸出금융 변동없고 換率 대폭變動없다

이번措置 효과기대

…금리인하는 일반적인 경기부양 【朴武기자】

◇검문하는 방國계엄군 방글라데시 계엄군이 26일 대카 공항에서 민간인 2명을검문한뒤 연행하고있는모습。 방글라데시 군사평의회는 장관3명을포함 모두 2백15명을 체포했다고 26일발표했다。 【대카26일AP합동=聯】

蘇, 南아시아에 海·空軍기지

印度·페灣등까지 作戰수행

美誌보도 장거리항공기 美本土도 위협

【뉴욕25日UPI=聯】 소련은 광범한 지역에서 미국의 방관 에 중대도전을 가한 정도로 남부아시아에 일련의 현대식 해공군기지를 「은밀히 그리고 설득적으로」 건설했다고 미국뉴욕에서 발행되는 잡지 퍼레이드가 25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를 기지를 이용하여 소련이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입구의 아라비아해에까지 광범하게 작전할수있게 되어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시베리아항구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게되었으며 특히 소련장거리항공기들은 호주 북부와 필리핀에서 알래스카해협에 이르는 중요한 해로를 전쟁또는 긴급시에 공격할수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잡지는 미국이 건설했던 …

▲베트남은 인도양및 그 다음과같다。 …

엘살바도르 오늘總選

6개政黨에서 3백31명 출마

【산살바도르27日=外信綜合】 수도산살바도르까지 좌익게릴라들의 공세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엘살바도르는 3년간에 걸친 처절한 내전을 종식시키기위한 방안으로 28일 60명의 制憲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실시한다。

좌익게릴라들의 불참선언과 끈질긴 방해공세속에 실시되는 이번선거에는 두아르테현대통령이 이끄는 基民黨을 비롯, 민족공화동맹당(ARENA) 국민화해당(NCP)등 6개정당후보 3백31명이 출마하고있다。

관측통들은 다크호스로 등장한 로베르토·다우비손(前보안군소령)의 極右세력인 ARENA등 右派정당이 집권 基民黨을 누르고 승리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있는 두아르테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정권의 취약점만 노출시킨반면 다우비손은 군부와 부호의지원아래 군사적 해결을 내세워 「強者」로 급격히 부상했다。 힌튼駐엘살바도르美대…

◇네발달린병아리 行動도 자유로와 3주전 헝가리의 한시골에서 알을깨고나온 네발달린 기형병아리。 이 병아리는 발이네개임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데 불편함이없다는것。 【부다페스트(헝가리) 26日UPI=聯】

콜럼비아 飛行계속 通信채널 3개고장

【케이프카내베랄(美플로리다州) 26日AP=聯】 …

日우라늄工場가동 세계3위시설

【東京26日AP=聯】 …

旅券 여행目的표시 外務部·폐지하기로

…

債券시장 活氣 잇따른 金利인하로

잇따른 금리인하로 채권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자 …

수입炭量 줄여 消費줄고 生產늘어

…

地方短信

◆신문배달소년6명에장학금 …

賞金百萬원 불우이웃돕기에 선뜻

【淸州】 …

내년豫算편성 올水準으로

民正豫決委구성 政府보고들어

民正黨은 26일 …

市場·버스터미널에 다방·食堂설치許容

建設部, 規則개정

…

各國議會지도자등 올해2백여명訪韓

국회의 초청외교강화방침에따라 友邦각국의 의회지도자들및 의원들이 내주부터 대거 訪韓한다。 …

人事異動

在鄕軍人會 …

民韓黨 …

社說

國際亂氣流속의 韓國

—안팎으로 잘살펴 平和地帶가 꿔야

최근의 세계대세는 미묘한 변화와 流動, 그리고 해묵은 모순 대립의 새로운 양상이 교차되는가운데 不確實時代의 國際政治에서 방심못할 亂氣流를 관측케한다。

韓半島로만하면 흔히 「대륙의 북풍과 해양의태풍이 마주치는곳」 또는 「4대국세력의 교차지대」라고 불려왔는데 어차피 우리는 分斷時代의 對話단절상태에처하여 한결더 國際情勢의 동향에대해 민감할수밖에 없는 처지에놓여있다。 그런데 작금의 周邊情勢는 美·蘇관계가 첨예화되는 다른 한편에있어 臺灣문제를에워싸고 美·中共관계에 심상찮은 재검토가 진행중이라고 전해지는 중이다。 이에 편승하려는 蘇聯의 對中共접근책모색이 주목을 끌고 美·日관계도 무역분규와 방위분담 문제에 얽힌 異見이 해소된것은 아니다。

그러한 強大國관계 외에도 불안의 먹구름이 지속적인 긴장을 동반하면서 中南美의여러나라와 폴란드사태 및 시나이半島에 걸친 中東일대에 드리워져 있음을 본다。 北大西洋條約기구에 들어와있는 西歐각국의 反核운동이나 石油수출국기구(OPEC)에 관찰되는 복잡한 반발과 새出路의 모색도 다단하기만 하다。 극소수 국가를 제외한 세계적인 經濟不況도 간단히 트일것 같지는 않다。 폴란드事態와 아프가니스탄의 소용돌이는 美·蘇간의 긴장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러는 동안 北傀는 온겨레가 바라는 南北對話를 일방적으로 중단, 외면하였고 세계 최대규모라는 特攻武力의 증강에 광분하면서 소위 「결정적 시기」의 「혁명적 대사변」을 획책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국제적 갈등과 불안요인의 가중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차려 대응할 환경·조건의 정돈을 촉구케한다。 안으로는 가장큰 난제로 부각된 경제의 안정과 치안의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戰略의 座標認識과 더불어 비록 고정된것은 아니라해도 敵我를 식별하는데 입각한 기존紐帶의 강화와 외교적 新境地개척에 가일층 발분할 때라고 생각된다。

다행히 美國의 레이건行政府등장 이후 韓國安保를 위한 두나라의 見解一致가 밀접하게 과시되고 있으며 내일부터는 3일간 서울에서 와인버거美國防을 맞아 韓·美年例安保協議會(SCM)가 개최된다。 하나 「어떻게 지킬것인가」에 관한 협력의 다짐은 「무엇을 이바지 할것인가」와 장래 전망의 관측에 연결되어 마땅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오늘의 國際情勢는 「政治的 多元化」와 「軍事的 兩極化」 내지 三極化」를 추축으로하는 流動的 狀況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蘇聯의 패권주의자들은 美國과의 직접대결을 회피하면서도 세계 도처에 걸친 팽창 노력과 政治的反擊에 매우 정력적이다。 그들은 또 北傀에 대한 각종 지원태세를 거듭 과시하려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美·中共관계의 귀추는 당연히 우리의 커다란 관심사중의 하나이게 마련이다。 中共은 美國의 臺灣(自由中國)에 대하여 무기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에 거센반발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主權」을 무시하는 모순」에는 「타협의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奇貨로 蘇聯은 브레즈네프의 24일자 타시켄트發言에보듯이 北京에대한 미소어린 유화노력을 시도해보고자한다。 그에대한 中共政府및 新華社통신의 26일자 反應은 루리 깊은 對蘇不信을 표명하면서 모스크바가 「말보다도 실제행동」으로 그 「성의」를 증명해야할것임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蘇聯의 「성의」가 과연 어떻게 표현될것인지 두고볼일이다。 우리는 그 3角증수를 지켜보면서 美國의 벗들이 中國的 發想자세에 특징적인 「大義名分」과 「中華의식」등 體面(面子) 관념을 홀시하거나 또는 合理的打算으로만 예측하는 것같은 오류를 범하는일 없도록 당부해두는바이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세계戰略의 요충」이니 「위험한 화약고 중의 하나」라고 간주되고 있다。 하나 우리의 진정한 염원은 조국이 안팎으로 和合된 平和地帶로 되게 하는데있다。 물론 北傀의 金日成集團과 그 아리송한 背景세력의 방심못할 동향에 대해 경각심을 해이시켜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와 함께 최대의 民族史的 課題인 平和統一접근을위한 南北對話재개 노력 또한 강인한의지력으로 계속 견지되어야 할것임을 생각한다。

노인푸대접 소리

—敬老의 根本的對策 마련할때다

노인을 우대하자는 경로우대증이 나온뒤부터 노인푸대접현상이 일고있다는 불평과 비판이 일부에서 문제되고있다 (한국일보 27일자 11면보도)。 이런 말썽은 주로 시내버스나 목욕탕같은 대중적인 서비스업의 현장에 관련돼있다。

노인이 정류장에 혼자 서있으면 버스는 지나쳐버리기 일쑤고, 버스에 탔다해도 푸대접이 눈에 띈다는 불평이다。 이런 종류의 불평은 대중목욕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요금의 절반만이라도 내는 게 낫겠다는 노인들의 의견이 나오는사정은 딱한 일이다。 오히려 돈을 내는 쪽이 낫겠다는 의견은 돈을 안내게 되니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심리적인 면도 있고, 공짜손님 대접을 감수해야된다는 현실적인 면도 지니고있다。

지난3일 여성단체의 모임에서 공개된 이런 의견은 말하자면 경로우대정책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노출하고있다。

노인정책은 몇푼의 돈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인문제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여합살설」에서 출발하는 문제임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상당수가 일자리를 원하고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엔 양로원 노인들의 22%가 이성교제를 원하고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서울·부산·대구 같은 대도시에서는 결혼상담소를 찾는 노인들이 2~3년전부터 부쩍 늘어, 최근엔 한달 평균 4~5건씩 되고있다한다。

대도시의 시대적, 핵가족의 사회에서 방황하고있는 노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노인들도 한 가정과 사회안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의 자리를 원하고 있고, 노인문제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소외됐다는 데서 시작된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

政局往來

…

"30만원 補助…찌든 野黨살림에 큰 活力素"

…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뻥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주간女性

절찬리에 판매중인 주간 여성지

새 가격 $2.50

(한국에서 송료 상승으로 인해 4월초부터 소매가격 50¢씩 인상을 알립니다.)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Bayview / Keele / Bloor / CHINA HOUS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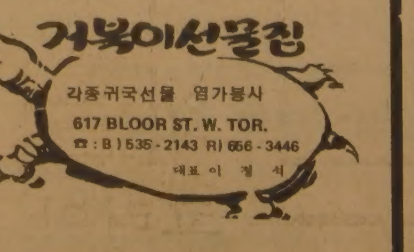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Hunts 개업인사

Hunts Bakery

카나다의 유명 제과점인 Hunt's를 소생이 개업하였음을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포여러분께는 생일 결혼 Cake에 대해서 10% 할인해 올리겠읍니다. 일차 왕림바랍니다.

김 준 호 배

Jane & Finch Shopping Mall

☎ : 635-0187

景氣활성화의「最後카드」

3·29金利인하 背景과 效果

不況타개 일환

무엇엔가 쫓기듯 서둘러 金利를 인하했다。지난11월말 은행대출이자를 내리기 시작한이래 다섯번째 6%포인트가 내렸다。

정부가 서둘러 금리를 인하한것은 좀처럼 풀리지않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것。경제관료들은 오래전부터 81년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된다고 소리높이 외쳤다。그러나 연말이 다가와도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을치자 경제정책입안자들은 그때까지 禁문로 여겨오던 금리인하를 서두르게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申秉鉉經濟팀은 금리인하 시리즈를 완결짓지못한채, 또 경기회복을 실현하지못한채 연초改閣에서 물러나고 말았다。이어 새로등장한 實物經濟팀은 취임10일만에 당면경제대책이라는 이름의 1·14경제활성화시책을 내놓았다。그러나 소문난잔치 먹을것없다고 기껏해야 금리1%인하로 얼버무린 1·14조치때문에 경기가 회복될수는 없었다。다만 새로등장한 실물경제팀에 대한 기대가컸고 또 좀더 관망해보자는 무드가 팽배하여 경제계의엄살은 론이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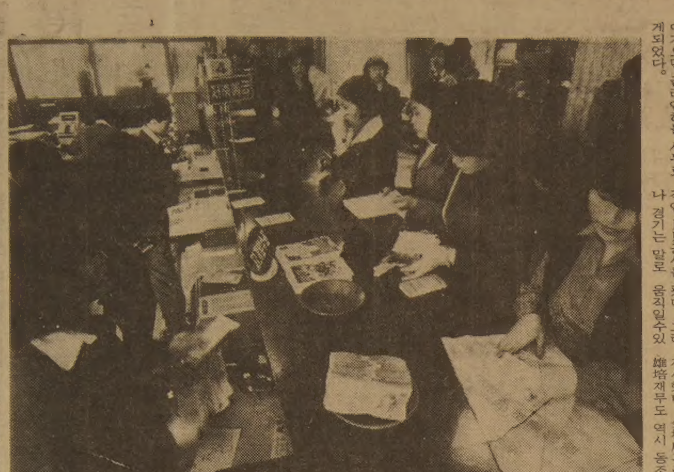
이런 분위기속에서 새경제팀은 1·14조치로 경기가차차 회복되고 있노라고 일방적인 PR공세를 폈다。그러나 경기는 말로 움직일수있는것이 아니다。업계의 반응은 냉담했고 피부로 느끼는 실감경기는 여전히차가왔다。마침내 지난2월초 정부고위보좌관은 금리의 재인하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經濟企劃院 財務部 韓國銀行 개발연구원(KDI)등은 각자 재나름의분석결과를 제시했다。모두 불가전망에대해 확신이 서지않고 국제금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좀더 관망하자는 의견이지배적이었다。

경기회복신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수출은 더욱 어려워져 3월들어 실물장관들도 비관론쪽으로 기울기시작했다。3월10일께는 고위보좌관이 금리3% 인하안을 제시했다。金埈成부총리 羅雄培재무도 역시 동조하는입장。다만 단기부여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빠른 결단을 못내렸다。

한편 재무부의 실무자들은 철하태평한 입장。작금의 경기침체는 오히려 당연한것이고 따라서 대책이필요없다는 얘기마저서슴지않았다。장관과 실무자간에 경기진단과처방이 달랐다。

마침내 결단의 시기는 왔다。지난22일 金부총리、羅재무、그리고 고위보좌관은 수출을 자극하고 경기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때부터 정부는 허겁지겁서둘렀다。관계장관들은 금리인하를 부정하지않았다。24일부터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강력한 암시를하기시작했다。27일아침에는 金埈成부총리와 羅雄培재무장관이 청와대를다녀와 인하시기와 폭을 최종확정했다。결국 1:4분기실적을 분석한후 4월10일께 내리려던 금리가 예정보다 2주일가량 앞당겨 단행되었다。



◇27일 은행의 셔터가 내려지면서 금리인하작업이 진행되었다。사진은 하오一시 은행셔터가 내려지기 직전의 붐볐던 은행창구。

「잦은小幅」실효없자「大幅」으로

「貸出」보다「預金」더내려 資金難 크게 완화

投機바람 再燃등은 경계해야

經濟에의 影響

3·29금리인하조치는 경기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단행되었다。종래의활성화시책이 금리인하에 잡다한 보완조처를 곁들인데대해 이번조처는 군말없이 금리만2%내려놓았다。또 종래1%씩 야금야금내리던것을 이번에는 2%를한꺼번에 내린것은 경기가 그만큼 심각하고 또그만큼 강력한 자극이 필요했다는 애기로 풀이할수있다。

경제정책당국은 또 경기활성화의 돌파구는 수출에서찾아야한다는 견지에서 환율의 인상과 수출금융금리의 인하를 검토하기도했으나 환율의 과도한 인상은 物價를 자극하고 수출금리의 인하는 일반금융과 정책금융과의 금리격차를 시정한다는 정책방향에 위배된다해서 모두 실현되지않았다。

이번 금리2%인하로 혜택을받는 자금은 민간여신25조중 수출금융과 정책금융을뺀 16조원。연간 금리부담 절감액만도 3천2백억원에 달한다。뿐만아니라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면 단자、보험등 제2금융권의 금리도 같은비율로 내려갈것이 확실하기때문에 연간 금리부담절감액은모두4천억원에달한다。

다만 여기에는 상당량의개인자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범위는 약3천억원에달할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의 금리부담이 경감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강화된다。우리나라 기업은 빚이 워낙 많기때문에 금리부담이 많고 따라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제조업부문의 매출액에대한 금융비용의 비율은 7·4%、부가가치구성비는 28%를 오르내리고 있다。기업이 이토록 금리부담에 짓눌리다보면 도무지 오금을 펼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금리인하로 금리부담이 연간3천억가량 경감될수있다는 것은 기업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는기업의 자금수요를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요즈음 기업의 자금수요는 원리금상환을 위한것이 대부분이다。말하자면 빚얻어 빚을 갚고있다。따라서 금리부담이 떨어지면 자금수요는 그만큼 줄어든다。다만 금리인하는 새로운 투자수요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날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금리2%때문에 투자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할수는 없다。이론적으로 볼때 기업은 금리와 자본의 한계효율을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한다。무손실고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어다 그돈으로 장사를해서 원금과이자를 갚을수 있어야 돈을 꾸고 장사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경기가 나쁘기때문에 장사를 해도 利를 남길 자신이 없다。그렇다면 금리2%때문에 자금수요가 크게늘어난다고 볼수는 없다。

景氣 풀리려나

3·29금리인하조치는 또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욱인하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특히 통화의흐름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저축예금의 금리를 대폭 낮추었다。

예금금리를 낮추면 저축성예금에비해 통화(현금및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런데 최근의 통화구성을 보면 통화에비해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너무 높다。그때문에 총통화(통화와 저축성예금을 합한것)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통화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지난 2월중 돈의 공급실적을 보면 총통화는 1년전에 비해 26·9%나 늘어났는데 비해 통화는 2·8%가 늘었을 뿐이다。통화에 저축예금과 통지예금을합한 자금、소위 조정통화라는것은 25·5%가 늘었는데 저축예금이 한것이 대부분 저축성예금과 같은것이어서 실제 시중에 흘러다니는돈(통화)은 항상 빠듯하다。

그때문에 기업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통화당국은 들은체도 않고 돈이 많이 풀렸는데 무슨 엄살이냐고 핀잔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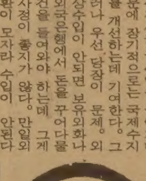
그러나 예금금리가 많이떨어지면 사정은 달라진다。일부 예금자는 월1%도 안되는 이자를 바라고 은행에 예금하느니보다는 달리 활용하게 되는 방안을 찾게 된다。특히 저축예금의 금리를 많이 내리면 그만큼 요구불예금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 즉 통화를 늘어나게 한다。

통화의 증가는 곧 자금사정의 완화를 뜻한다。여건변화가없다면 확실히 이번 금리인하로 기업의 자금난은 상당히 완화될것이 틀림없다。뿐만아니라 금리인하는 금융코스트절감을 통해 수출증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도 없지않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혹시 금리인하가 한물간 투기바람을 다시 불러들인다면 정말큰일이다。투기가 재연되면 안정기반이 흔들리고 기업의 경쟁력제고도 물거품이된다。따라서 정부는 투기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못하도록 보완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한다。

또 국제수지에대한 대책은 서있나 묻고 싶다。이제 우리나라는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낮아졌다。금리인하이전에는 벌써 단기무역신용(외상수입)이 줄어들어 외환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장기적으로 보면 금리인하는 국내산업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수입을 줄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한다。그러나 우선 당장이 문제。외상수입이 안되면 보유외화나 외국은행에서 돈을 꾸어다물건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게 사정이 좋지가 않다。만일외환이 모자라 수입이 안된다면 경제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의문은 또있다。이번 금리인하로 경기는 회복될 것인가。그렇지가 않다。우선 국제경제환경이 나쁘다。우리기업의 체질이 너무약해져버렸다。혹자는 경제외적인 요인을 거론하기도 한다。경제외적인 요인을 꼬집어말하기는 거북하지만 이를테면 전화하면서까지 혹시 누가 엿듣지 않나하는 분위기가돼서는 안된다。남의 눈치만보고 심리적으로 위축돼있으면 경기는 기를 펴지못한다。이런상태는 민간주도 경제원리에도 위배된다。



금리가 인하되었다。물가안정·저축증대·국제수지등 제반 경제여건에 비추어보아 더이상인하는 어렵다。현재의 여건아래서는 이번 금리인하는 마지막인하라 보아도 무방하다。인하한 수준에서는 경기가 침체에서도헤어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라。투기기회를 봉쇄하라。그리고 경제외적인 질곡을 제거하여 우리경제가 지난날의 활력을 되찾도록하라。

【朴炳潤기자】

메아리

科學敎材

과학은 한치의 誤差조차 허용않는다。더구나 엉터리는 끼어들수없다。그런데 우리국립과학관에 조잡품이 섞여들어 울상을 짓게한일이 있다。

어린이 과학동산에서 전동기를 조립했는데 그 재료가 불량품이었다。간신히 맞춰 놓기는했으나 결국 움직이지않는 전동기가 되어버렸다。어린이들의 실망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百聞而不如一見」。이말은 과학교육에도 딱 들어 맞는다。손으로 직접만들어보고 실험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것이 과학교육의 생명이다。과학시간만은「칠판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방후 혼란기、6·25수난기에 학교를 다녔던 오늘의 中年들은 현미경조차 제대로 들여다본일이 드물것이다。그래도 우리 공업기반이 지금만큼 굳혀진것이 대견스럽고 기적처럼 여겨진다。

「과학의 세계는 하루가 다르다。로보트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유전자공학이 화제가 되고 있는 세상이다。과학의 밑바탕이 튼튼하지 못하면 살아 남기도 어렵게 되었다。

과학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키워주며 기초를 다져가야 한다。관찰력을 높이고 실험으로 원리를 터득하는것이 과학교육이다。그렇지만 지금 도시어린이들은 곤충조차 그림으로보고 자란다。교실엔 조잡한 과학교재가 들어와 어리둥절케 만드는 딱한 형편이다。

과학교재는 확실성、견고성、無害性이 꼭 보장돼야 한다。方位를 못가리는 나침반、끓는 물에서도 섭씨 1백도에 오르지 못하는 온도계는 부끄럽기보다 분노를 터뜨린다。

국민교생들이 6년간 쓰는 과학교재는 70여종 5백여개가 된다。시중에서 팔리는 자연과학 학습보조 재료의 70%가 불량품으로 밝혀졌다。이것은 YWCA소비자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다。또 60%는 제조회사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다。

文具協會 자료로는 전국에 1천여개의 제조업체가 있다。이중 일정규모를 갖춘 업소는 1백80개소 정도다。나머지는 가내공업으로 低質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불량재료의 不信이 맑은 童心에 어떻게 굴절되어 비쳐질지 염려스럽다。당국이 뒤늦게나마 출고전 품질검사를 한다니 다행스럽지만 겉치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아침에

뜨거운 가슴에 차가운 머리로

「신바람熱風」일수록 거북이처럼 천천히

總體性의 바탕서

지금 장안이 술렁거리고 있는 모양이다。잇달아 벌어질 아시안·게임이며 올림픽이 사람들 마음을 달게 하는가 하면、프로야구의 개막、국제마라톤 대회의 개최 등이 시민들 마음을 부풀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프로야구 개막식 입장권 예매표 창구에 놀랄 만큼 몰려든 사람들이 長蛇陣을 친 것、그리고 마라톤 대회에는 물경 칠천여명의 뜀꾼이 참가하게 되리라는 것、그리고 잠차 있을 양대 국제 경기를 위한 환경미화작업이며 나무바치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모든것이 달아오르고 부풀고있는 시민들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속담이 말하듯、잔치 같은 혹은 굿판같은 큰 구경거리가 있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더욱 대규모 마라톤같이 다들 하나로 어울려 뛰고 구르며 더불어 즐길 수 있는기회를 갖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패싸움〉이나〈편싸움〉은 오래된 우리들의 전통적 競技다。돌싸움、줄다리기、불싸움、車戰、소놀이놓은 모두 편싸움들이다。벌신굿이나 도당굿과 때를 같이하여 서로 가까운 몇개마을이 하나로 어울려、남녀노소의 구별조차 없이 괴울수 있었던 신바람의 도가니가 이들 편싸움이었다。

이제 잃어져가는 편싸움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가꾸어진 신바람이며 신명은 우리들 속마음 깊은곳에 응어리져 있을 것이다。그 응어리진 熔岩같은 마음을 터뜨릴 기회를 현대적인 여러 운동경기를 통해 갖는다는 것은、차라리 우리들 각자의 치열한 내부적 욕구인지도 모른다。

마음과 감정도 배와 같아서 채우기도 해야 하지만 아울러 비우기도해야 하는 것이다。아니 터뜨려야 하는 것이다。

하자만、잃어진 편싸움이 농사의 풍년빌이였고 마을 수호신에게 바치는 행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경제적 생산과 종교적 믿음과 생활의 리듬이 하나로 더울린 행사였다。거기에는 생활현장의 總體性이 있었다。이것이 한국인 신바람의 터밭이고 溫床이었다。

오늘날의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아무리 신바람을 피운다해도 생활현장의 총체성이 없거나 있다해도 아주 적다。

구경꾼은 幻想뿐

편싸움에는 놀이꾼과 구경꾼이 따로 떨어져 있지도 않았다。다들 같이 노는 한 동아리였다。편싸움은〈우리〉의 것이었다。그러나 현대의 기업화된 스포츠는 상품이다。돈내고 사는 물건이다。그러기에 놀이꾼과 구경꾼은 결국 장사꾼이고 고객이다。참다운〈우리〉가 없다。있다해도 우리의 幻想이 있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체육、특히 경기 위주의 체육은〈뜨거운 文化〉〈부푸는 文化〉라는데에따르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휩쓸리면 누구나 한동아리로 한도가니 속에 녹아드는게 운동시합이다。힘의 집단화、그것도 열광적인 힘의 집단화를 위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껴들기만하면 누구나 자신이 작은 火山이란 것을 알게 된다。자기자신을 잃고 군중의 뜨거움 속에 도취하게 된다。그리하여 깊고도 깊은、넓고도 넓은 집단적 무의식의深淵 속에 자신을 풀어놓고 있다。

물샐 틈 없는 융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뜨거움의 文化〉에 대하여 여기서 경계해야 한다。자아를 지워버린 전체는 융합이라기보다〈混一〉이기 쉽다。그리하여 거기서 가꾸어진 대중의 힘은、때때로 경기중이나 경기끝난 뒤의 폭행사태가 보여 주듯、〈에너지〉쪽에보다 파괴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쉽다는 것을 우리들은 익히 보아왔다。

또한 현대의 기업화된 운동경기의 경우、관중은 어디까지나 구경꾼이란 데에서 파생되는〈뜨거운 文化〉의 문젯점이 있다。상업화된 운동은 대중에게 보는 운동이 되고 만다。눈요기뿐인 어른들의 장난감이 될 위험도 있다。경기장에서의 열기가 식어지면 대중들은 외려 심한 소외감、낭오감등을 맛보게될 위험성이 짙다。

경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관중들은 이른바 스포츠영웅들에게 자신을 投射한다。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그 영웅들과 함께 뛰고 구른다。그 同化作用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다。그러나 그 자기확인이 필경 그림자의 확인에 불과하다는것을 깨닫지못한다。자신이 선수라는 영웅의 그림자란것을 알지 못한다。알지 못하기에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뜨거울수 있는 것이다。

경기가 끝나고 열이 가시면 投射의 효험이 사라진다。결국 구경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그리하여 뜨거움에 비례하여 소외감을 심각하게 맛보게되는것이다。뜨거워서 부풀었던 자아가 형편없이 쪼그라드는것을 느낀다。자신의〈그림자性〉을 깨달을때、배신감마저 맛볼것이다。인격의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디플레이션 현상이다。

이에서 오는 허탈감을 이기기 위해선 다시 새로운 同化작용이 필요해진다。그는 다시 또 경기장으로 달려갈 것이다。이렇게 되면 도취의 합일감과 소외감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된다。상업적인 경기의 마취작용이란 바로 이런것이다。

메달보다 友好를

여기서 우리는〈뜨거운 文化〉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견제할〈차가운 文化〉와〈가라앉은 文化〉의 육성이〈뜨거운 文化〉의 육성과 더불어 이루어져야함을 깨달아야한다。知性으로 생각하고 혼자 정서를 가꾸고、종교적인 명상으로 영혼을 들여다 보는 그런 일들을 가리킨다。

스포츠의 熱度가 더해 가는 지금이야 말로 뜨거운 文化와 차가운 文化의 조화를 절실히 생각할 때다。다같은 집단적인 도취가 빚어진다고 해도 융합이나 연극의 경우 작가 자신속에 차분히 가라앉는 求心的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올림픽준비태세에도 문제가 있다。우리가 따낼수있는 금메달 예상수가 그럴듯한 여론조사결과와 더불어 발표되는 것을 보았다。체육부가 발족한서 메달권에 돌진하는 선수들이 늘어나리라는 기대도하고 있는 모양이다。

경기는 이기라고 하는 거지 지라고하는것이 아닌 이상、이기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모국 선수가 국제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보는 일은 언제나 흡족하다。

그러나 자신의 승리 위주로 세계의외국선수들이 몰려들 올림픽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까? 적어도 손님을 맞는 주인의 자세는 아니지 않겠는가。일부러 지라고 불러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우리가 남들을 제치고 이기겠다고 기를쓰면서 손님들을 모셔온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과 긍지에 금가기 쉽지 않을까?

金烈圭〈西江大 교수〉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수준에 있지 않듯이 체육문화에 있어서도 선진대열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비교적 가난하고 비교적 경기기록이 좋지 못한 작은 나라로서 세계의 대행사、세기의祭典을 치르는 大道는 달리 있지않을까? 우리의 승리 보다는 대회의 조직에、우리의 메달획득보다는 善隣友好의 휴머니즘에、그리고 우리의 영광보다는인류의 평화에 마음쓴다면 우리들은 금메달의 개수로는 미치지 못할 國利를 얻어낼 것이 아닌가。

왜…어떻게…생각을

좀 언짢은 가정이기는 하나、메달을하나도 얻지 못한다고 치자。그런데도 우리가 대회 자체를 허장성세 없이 국력에 맞게 정성껏 치러 낸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경기의 승리보다 더한 보람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는다。

가난한 집의 조촐한 밥상이 대갓집 잔칫상보다 더 따뜻하다는 느낌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주최자인 가난한 나라가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최선을 다하여 대회를 치르고 국제적 우정의 정립에 조촐하고 알차게 힘쓴다면 우리를 보는 외국인의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올림픽역사 그리고 인류스포츠史上의 새 기념비가 우뚝 서게 되고 한국은 그 기념비와 함께 영원히 칭송될 것이라 믿는다。

손님 치다꺼리에 허세부리느라고 없는돈까지 다 털어 버리던 것이 지난날 아주 가난했던 우리들의〈빈곤 컴플렉스〉란 것도 새삼스레 명심해야 할줄안다。

마구 뛰고 달렸던 70년대、우리들은뜻밖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기억을간직하고 있다。이제 왜? 어떻게? 등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거북이 마라톤을 해야할 때다。뜨거운 가슴에 차가운 머리로 뛰되、토끼처럼이 아니라 코끼리처럼 뛰어야 한는 마음의 마라톤、정신의 마라톤이 있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이제 다들 차갑게 무겁게뛰자。

발 祝 전

확장이전 업소

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명
블루어 안경상사	531 2236	835 BLOOR	구진모
서울 이[illegible]사	535 6004	631 BLOOR	최동주
[illegible]세아 [illegible]방	530 0552	645 BLOOR	조지섭
유니버시티 [illegible]동구점	598 3732	337 BLOOR	이건영
[illegible]하 보석상	534 9977	662 BLOOR	김용섭
[illegible]길 [illegible]행사	535 2377	649 BLOOR	유지원
[illegible]스모스 [illegible]녀복	530 1870	704 BLOOR	성창근

새로 입회한 업소

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명
내고향 통닭집	537 0432	658½ BLOOR	이종소
도미니온 도나스	532 9955	830 BLOOR	김기일
버거핏트 햄버거	535 2569	796 BLOOR	김상표
890 바라이티	536 4533	890 BLOOR	김구명
이태리안 바라이티	588 1494	689 BLOOR	최영길
서울집	532 0602	651 BLOOR	김신우
LOTUS FLORIST	533 3884	792 BATHURST	김효숙

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명
앨리스 세탁소	536 9545	741 Ossington	조인숙
제1식품	532 1054	712 BLOOR	김덕기
Puff.N. Stuff	362 0238	704 BLOOR	이상구
킴스 미용실	532 7094	668 MANNING	김월선
파머스 애어콘	746 3840	706 BLOOR	김봉균
한국식품 본점	532 2961	721 Palmerston	이민복
Zenith 도나스	598 2210	335 BLOOR	김형태

코리아 타운 번영회

달릴땐 男便도 잊어요

漢江邊누빌 美女機關車 엘리스·로

세계서 가장빠른女人 서울國際마라톤 出戰

"뛰는건 自身에대한 挑戰" 한국男性 "매력적" 비단옷갖고파

숲사이를 달리는 그녀는 차라리 한마리의 암팡진 사슴이다。 흩날리는 은빛머리가 눈앞을 어른거렸는가하면 어느새 저만치 가있다。 28일 대낮 漢江의 남북강변도로 42·195㎞를 달릴 엘리스·로 (25) 양。「미녀 기관차」「鐵脚의여인」으로 불리는 명실공히『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멀게 달리는 여성 마라토너』다。 달리는 그녀를 보다가 정지한 그녀를 만나면 깜짝놀란다。 잠깐사이 나긋나긋하고 수줍음 많은「여자」로 돌아와 있다。 몸놀림과 목소리까지 유난히 작고 조용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언제 보이·프렌드와 첫데이트를 가졌느냐는 질문에 모기소리만큼 작게『세븐틴(17세)…』하며 낯을 붉힌다。 웃을때 가지런히 드러나는 흰이가 곱다。 우스게소리가 나올때마다 무릎위에 꼭쥔 양손가락을 오물거리고 머리를 살짝 옆으로치켜 올리는데 수줍어보인다。 아무리봐도 그녀는『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실감을 안준다。

서울대회를 하루 앞둔 27일 숙소인 워커·힐 호텔산책로에서 마지막 연습에피치를 올리는 엘리스·로를 만났다。 땀 한방울을 흘리지않는다。 그녀는 한참연습중이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스팔트의 산책로를 풀·스피드로 달린다。 팔 다리 몸의 움직임이「날아갈듯」경쾌하다。 쇼트·커트머리, 가볍게 출렁대는가슴, 곧게 내려뻗은두다리, 그녀는 달리는사람의「건강」과 여자의「아름다움」이 합쳐진 조화의 극치다。 그녀는 일단 레이스에들어서면 딴사람이 된다。 힘과 끈기와의 끝없는 싸움, 어찌보면 가장 고독하고 잔인하고 몰인간적 경기인 마라톤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무사가 된다。

엘리스·로는 마라토너가된 이유를 챌린지(도전)라고 대답했다。 끈기에대한 도전, 고독에대한도전, 끝내는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출발신호가 울릴때 부터 테이프를끊을때까지 아무생각도 하지않는다。 가정 살림살이, 세상의 남자들, 심지어 남편까지 일체의 세상사를 잊어버린다。 그녀의 머리속은 오로지「뛴다」는 것과「이겨야 한다」는것으로 꽉찬다。

그녀는 2년전 결혼한 유부녀, 아직 애기는 없다。 남편은 동갑나기로 뼈맞추는접골사다。

『잦은 해외여행으로 남편 리처드·로 (25) 가 가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라며 큰 눈망울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

엘리스·로는 자신이 격렬한 운동을하는 마라토너이지만 부부생활의 어려움은 없다고 털어놓았다。

해외여행을 할때는 남편대신 코치 케리·엘리어트씨 (34) 가 뒷바라지 해준다。 한국에도 함께왔다。 한국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둘사이는『코치와선수』이상도 또 이하도 아니다。

코치 엘리어트씨는 엘리스·로가『여성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완벽한 여자』라고 평한다。

그도 그럴것이 피부빛깔은 건강하고, 장거리육상선수답게 탄력이있으며 키 1m75㎝, 몸무게58㎏의 체격도서양기준으로는 이상적이다。 며칠간 일때문에 그녀와 가까이접했던 한국남성들의 이야기도 한결같다。 뛰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만점이라는 것이다。

한국남성들에 대한 인상에 관해 그녀는『깊은 관찰은 아니지만… 키는 작으나 아주 섬세해 보이고 에그조틱한 매력이 있다』고 말하는 외교사령도 잊지않았다。

엘리스·로는 원래 테니스 선수。 9살때부터 테니스를 시작, 고등학교까지 학교대표선수로 활동했다。 우연히 어느 육상코치의 권유로 장거리선수로 발을 디뎠다。

그녀가 세계적 선수로 각광을 받기시작한것은 지난해 4월 보스톤 마라톤대회。 2시간26분46초로당시세계최고기록(노르웨이그레테와이츠) 2시간25분41초를 불과 1분5초차로 바짝 추격했다。 그 6개월뒤인 10월 뉴욕마라톤대회에서는 2시간25분28초로 세계신기록을 수립, 세계 최고의 여성마라토너로서 자리를 굳혔다。

육상관계자들에 의하면 엘리스·로는 현재 기록의 상승세에 있다。 서울대회에서 또다시 세계기록경신을 기대해 볼만하다。

『기록경신을위해 열심히 뛰어보겠어요。 경기가 끝나면 한국을 두루두루 살피고 남편선물로 골동품 몇개하고 나 자신은 예쁜 실크옷을 사가겠어요…』

오늘(28일)그녀가「신기록」에 도전하기위해 마라톤코스를 힘차게 달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한국의 미녀중에 그녀를 따라잡을 마라토너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듯 하다。 【李鍾九기자】

◇場外서는 수줍은 女人 세계에서 가장 빨리, 멀리달리는여자 엘리스·로。 28일 한강남북강변로42·195㎞를 달리는 그녀에게서 우리 마라톤계는 무엇을 배워야할까。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목격자나타나 捜査 급진전

"20代 고수머리와 對話했다" 몽타지作成 교회주변 집중조사 美文化院방화

【釜山=盧基昌기자】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7일 범행직전 범인을 정확하게 보고 대화까지 나눈 결정적인 목격자와 범행때 사용한 플래스틱바께스 뚜껑4개를 찾아내 수사에박차를가하고있다。

경찰은 또 플래스틱통을발견했던 산장여관지하 인쇄소에서 찾아낸 거제교회장로장립식 (將立式) 기념 보자기의 유출경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사의 진전을 보고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남자범인 몽타지를작성, 한원 종교서클등의 불순세력용의자사진을 대조시키고 있다。

수사에 큰 전환을 준 목격자는 산장여관 지하인쇄소 바로 옆에 있는 H식당 주인 張모씨 (56) 로 사건당일인 지난18일 불이나기 40분전인 하오1시20분께 25세 가량의 청년1명이 뚜껑에 덮인 플래스틱 바께스 4개를 들고와 보관시켰다가 잠시후 다시 들고나갔다고말했다는것。

張씨에 의하면 이청년은 사건전 3~4일간 4~5차례 드나들며 얼굴을 알고있었는데 이날 바께스를 들고와『아주머니 조금있다 밥먹으러올테니 양동이좀 보관해 주이소』라며 식당안에 놓고갔다。 10여분뒤『급해서 그냥가겠다』며 바께스 2개씩을 양손에들고 급히 나갔다는것。

이청년은 25세가량의 나이에 반고수머리, 갸름한 얼굴이었으며 경상도 말씨였고옷은 호주머니가 4개있는 베이지색 작업복상의를입고 있었다。

경찰은 이청년이 문화원수위 文興石씨 (62) 가 본 방화범의 인상착의와 일치해 범행전 이 식당에서 빈 바께스를 들고가 산장여관 지하 인쇄소에서 휘발유를 담아와 불을 지른것으로 보고 진범으로 단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바께쓰뚜껑을 H식당옆 K식당에서 사건당일 부근에있던 리어카에서 주워다 사용하고있다는 신고에따라 감정결과 청색2개와 빨간색2개가 방화현장에서 타다남은 플래스틱통과 성분이같았다。

한편경찰은 인쇄소에서 찾아낸 거제교회 장로장립식기념 보자기의 유출경로를 수사하기위해 이교회신도 1천여명의 명단과 장립식에 참석한 방명록을 교회측으로부터 제시받아 그중 1백50여명의 남녀대학생및 청년신도들의 행적을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80년2월장로가된 金모장로가 釜山B여대에서 강사를 역임해왔는데 최근 B여대화장실에서 발견된 불온낙서와 이번에살포된 불온전단의 내용이 비슷한점을 중시, 金장로가 강사로 있을때 장립식에 참석해 보자기를 받아간 학생이있을것으로보고 B여대에서 제적된 문제학생을 중심으로 수사중이다。

沿岸 불법漁撈 성행

東海 1백여척 禁止어망까지 동원

【東海】 수산당국이 동해연근해의 고질적인 부정어업방지책의 하나로 영세어민에대해 전업자금을 지원해 주는등 각종특혜를 베풀고있으나 소형기선저인망어선등의 불법어로행위가 계속 성행되고있다。

동해안 수산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곳에서의 부정어로행위는 지난70년대부터 연안의 오징어군이 자취를 감추면서 영세어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시작된것인데 해를거듭할수록 규모가커져 최근에는 강원도연안에서만도 1백여척의 무허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있는것。

특히 이들은 어한기나 흉어기가 되면 20톤급 유자망및 연승어선까지 부정어업에 가담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해상의 무법자로 불려지는 이들 부정어로선박은 대부분 원해출어가 어려운 1~20톤급의 무허가소형기선저인망어선들로 수산자원보호령에 금지된어망코크기가2~3㎝인 그물을 끌고다니며 연안 1~5마일내 해역을 바다밑을훑어 어족의씨를 말리고 있는것。 이같은 부정어업을 막기위해 수산당국과 해경은 해마다 수시단속에 나서고있으나 근절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駱】

새마을號에 別室客車 서울~釜山 1일부터

철도청은 4월1일부터 서울~釜山간새마을호열차에별실차1량씩을 연결, 운행키로했다。

주로 외국인관광객과 신혼여행부부등을 위해 만든 이 객실열차는 2인용7실과 5개의 좌석을 갖춘 가족실등 10개의 칸막이방으로 꾸며져 있으며 서울과 釜山에서 하오3시에 출발하는 새마을호에 1량씩 연결한다。

요금은 새마을호운임에 별실료를 가산하는데 별실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2인실은 1만7천5백원, 가족실은 3만5천원이다。 이에 따라 별실을 탈경우 서울~釜山간의 새마을 요금은 2인실이 4만3천5백원, 가족실 (4인기준) 은 8만7천원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대학생34% 장학금 혜택

81년, 88억원 前年보다50%늘어

전국 대학생의 34·2%인 16만3천2백40명이 81년 한해동안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을 받았다。 또 전국 중학교이상 학생 5백만5천4백명의 14·7%인 73만5천1백25명도 장학금을 받았다。

27일 문교부에 의하면 이같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법인의 수는 80년까지 1백68개였던것이81년에는 1백91개로 늘었으며 장학금 지급액은 80년 58억5천5백52만원에서 81년에는 87억7천2천만원으로 50%가 늘어났다。

장학법인을 설립자별로 보면 ▲기업체 설립이 50개 (30%) ▲자수성가해 입생의 재산으로 설립한것이 88개 (46%) ▲동창회·종중학교장학재단 장학회등이 41개 (24%) 다。

慧哲 스님에 誠金 잇달아

속보=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미승 慧哲스님 (본보24일자11면) 을 도우려는 독지가가 쇄도, 26일에도 4백82만5천5백원의 성금이 전국각지에서 더들어와 성금총액은 모두 1천4백25만4천5백원이 됐다。

성금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계사신도 1만5천원▲삼선포교원 거사회 신도2만원▲익명의 처녀보살 10만원▲익명의 공무원 10만원▲한국관음회 (회장 김삼룡) 일동 1백50만원 ▲鍾路區 孝子洞 보살 15만원 ▲龍山區漢江路 2街 유명한의원 원장 宋夏顯10만원 ▲永登浦區 汝矣島洞 서울아파트 익명의 보살 30만원▲익명의 남자신도 3만원▲보문사 법선스님 2만원▲江南區 盤浦2洞 반포아파트203호 김복현 1만원▲중앙법회포교원 일동 3만원▲圓覺洞익명의보살 3 20만원▲忠武路4街 조자혜 심 10만원▲梁山郡大石里 익명의보살 7만원 ▲新大方洞 익명의보살 2만원▲익명의보살 2만원 ▲城東區鍾陳洞 12의1 보타사신도 17만1천원▲운전기사 張鉉沖 3만원▲方背洞 익명의보살 20만원▲미국거주 익명의보살 2만원▲평택읍비전리 명법사 신도회일동 21만2천원▲″ 불교학생회일동 4만5천원▲익명의佛제자 11만원▲丁海春씨 1만원▲사당동이정환할머니 2만원▲익명의佛제자 4만원▲반월공단거주독자 2만원▲쌍문동김상욱씨 1만원▲보타사신도 母子 2만원▲圓會心22만원 ▲망해암신도 11만원▲청담동 열이엄마1천5백원▲진무량공보살 5만원▲청담동 익명의독자 11만원▲상도동 사자암스님외 신도회원일동 32만1천원▲安養동진상회대표 조동길씨 6만원▲영주사신도 2만원▲익명의佛제자1만원▲道峰區월계동 김보련화보살 20만원

가짜 인감·官印으로 공문서 위조 住宅 가로채다 덜컥

【釜山】 부산지검수사과는 27일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등 공문서를 위조한후 남의 부동산을 가로챈 김기출씨 (35·釜山鎭區草邑洞134) 를 허위공문서작성 사기등 혐의로, 西區忠武洞4街13 제일사 인장업자인 최춘후씨 (22) 를 인장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초순께, 최씨에게부탁, 南區廣安1동장의 관인과 고무인, 취급자인등을 가짜로 만들게한 후 南區廣安1洞1의 2의30 서정권씨의 인감증명을 동회에서 발행한것 처럼 위조해 서씨소유 대지60평 건평31평주택 (싯가3천8백만원상당) 을 釜山鎭區 楊亭洞 거주 박명연씨 (40) 에게 가등기해주고 1천3백만원을 받아내려다 적발됐다。 김씨는 지난2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東萊區長箭洞거주 송창익씨의 부동산을 이용, 1천5백만원을 빼낸 사실도 밝혀졌다。 【駱】

8백부대 압수 홍콩참깨 위장輸入

【釜山】 부산세관은 27일 경기水原市平洞단 제일식품주식회사 대표 서창조씨 (50) 와 서울鍾路區慶雲洞83 시티피스피크 주식회사대표 윤상원씨 (35) 등 2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수배하고 제일식품창고에 보관중인 참깨 80㎏들이 8백부대 (싯가 2억8천만원) 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제일식품은 지난 3월23일 수입상사인 시티피스피크사를 통해 수출용원료인 땅콩 80㎏들이 2천5백부대를 홍콩에서 수입하면서 수입감시품목인 홍콩산 참깨 80㎏들이 8백부대를 사전승인받지않고 8개의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박스속에 섞어 숨겨들어왔다는 것。 【駱】

의암湖 근처에 고구려 古墳

【春川】 강원도春城郡西面新梅3里 의암호 발굴현장 경지작업장에서 완전한 형태의 6세기께 고구려고분이 또 발견됐다。

석실의 네모난모퉁이에 石角을 올리는 축허가면서 세모로 줄이는 高句麗의 특수한 고분형식인 抹角藻井식 고분은 70년3월 의암호 근처 (西面芳洞里) 에서 발굴된데 이어 세번째로 발견된것이다。

이번 고분은 석실의 천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처녀분으로서 사람뼈가 완전히 썩지않은채 남아있었다。

고분발견신고에 따라 문화재관리국발굴단 (단장 金正基문화재연구소장) 이 확인한 석실규모는 길이1백96㎝ 폭1백83㎝ 높이가 1백30㎝이며 관이 놓여있는 입구인 연도 (羨道) 는 길이가 2백㎝ 폭80㎝ 높이 90㎝로서 세 사람을 합장한 무덤으로 보인다。

慶州狂

현해탄 30회넘은 在日동포 南碩煥씨

石佛의 옛이야기 祖國이 가슴에…

재일동포 南碩煥씨 (49·사진·일본愛知縣瀨戶市東吉田町2의16) 만큼 新羅문화의 古都 慶州를 많이 찾아본이도드물것이다。 6년전부터 매년 4~5회씩 방문했으니 아마도 30회 가까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정확한 횟수는 모른다。

현재 瀨戶市에서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南씨가 慶州를 자주 방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국의 역사를 알고 싶은것」뿐이다。

48년전인 한살때 고향 靑松郡현동면月梅洞을 떠난 南씨는 성장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안정이되면서 고국을 알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날 무작정 慶州를 찾았다。 아는사람 하나없는 곳이었지만 조상의 얼이 서린 古都를 찾는다는 흥분감으로 소녀처럼 가슴이 저렸다 했다。 자전거를 빌어타고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안압지 박물관 불국사 분황사址 석굴암 고분공원 첨성대 포석정 그리고 남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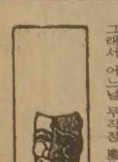
「콘크리트」가 많아져서 옛날의 慶州가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옛慶州를 모르니 알바 아니었다。 지금의 慶州만으로도 그는 찬란했던 옛문화의 향기를 충분하게 숨쉴수 있었다。

모든 유적가운데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중에서도 시멘트로 바르지 않고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한「남산」엔 조상의 숨결이 피부에 와닿는듯 해 더욱 좋았다。 산 전체가 완전한 자연박물관이었다。 시멘트로 지은 박물관전시실 형광등빛 아래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불상과는 달리 남산의 여러불상은 그윽한 미소를 머금고 금방 그를 부르는듯 했다。 더우기 남산너머로 떠오른 달빛을 실은 불상의 모습은 신비하기까지 했다。 가슴이 터질듯한 감동을 간직한채 달려내려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켠 순간『아! 이것이 내조국이구나』하는 만족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이때부터 南씨의 慶州방문행진이 시작됐고 자주 들르다보니 친구도 사귀었다。 韓炳三경주박물관장, 鄭永鎬단국대박물관장, 향토사학가 윤경열·김원주씨등, 이제는 만나지 않고는 못배기는 친구들이다。

친구를 사귀고「慶州의 맛」을 알게됨에따라 아픔도 느끼기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근대화돼가며 옛모습을 잃어가는 慶州를 아픔없이는 볼수없게된 것이다。

『경주시민들의 문화재와 역사유적지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졌으면 해요』 4월중순께「慶州의봄」을 찾아 다시올 南씨, 자칭 慶州狂의 작은 바람이란다。 【李炳日기자】



理容업소서 변태영업

大田 손님유치구실 퇴폐행위

【大田】 최근 大田시내의 일부 이용업소에서 여종업원이 안마를 하면서 퇴폐행위까지 요구하는등 변태영업을 일삼고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大田시내 일부 이용업소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여종업원으로하여금 자극적인 안마서비스를 하게하는등 퇴폐행위를 일삼는 변태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大田시大興동 D이용원의 경우 전등불까지 끈채 여종업원들이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銀杏동 A이용원의 경우도 자극적인 마사지와 안마를해주며 3천여원의 팁까지 요구하고 있다。 【駱】

果川에 東洋 최대규모로 테니스코트

동양최대의 종합테니스코트가 83년까지 果川南서울대공원근처에 들어선다。

南서울국제테니스코트로명명된 이테니스코트는 대한테니스협회가 88년 서울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등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 소요예산 10억원을 들여 만들기로한것。

南서울대공원인접 1만5천평의 부지위에 건립될 이 종합테니스코트는 주경기장인 센터코트와 보조코트등모두 17면이 마련되고 그외에 합숙소 식당 도서관등 각종 스포츠시설이 함께 만들어진다。

結婚式못한 10년恨 雪嶽山에서 풀었다

한동네 宋炳茂·金大天씨 두夫婦

中年인생…학교다니는 애도 "애늙은이" 놀리던 이웃提案 온동네 觀光잔치

지난 14일낮 1백여명의 축하객에 둘러싸여 두쌍의 남녀가 雪嶽洞소공원에서 합동노천결혼식을 올렸다。 이결혼식을 보고 많은 상춘객들은 어느등산 애호가들의 별난 결혼식쯤으로 생각했다。

이들 두쌍은 宋炳茂(40) 尹仁子 (33) 부부와 金大天 (37) 洪靄子 (34) 부부로 남들이 보는 것처럼 이색결혼을 올릴처지가 못된 사람들。 이들은 한동네 사람들로 10여년전 가난한사람끼리 만나 동거, 학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둔 사실상의 부부들이나 평생에 예식을 못올린 것이 한이 되어 뒤늦게 본의아닌 별난 예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것도 늦결혼이니 名山에서 화려하게 올리자는 게 아니라 돈을 적게 들이려고 일부러 雪嶽山을 찾아온 한많은 의식이었다。

만혼의 신랑 宋炳茂씨와 金大天씨는 다같이 강원도 春城郡 南面 後洞1里에서 태어난 동네친구사이。

이들은 10년전 예식만 올리지 않았지 사실상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고 宋씨는 슬하에 3남매, 金씨는 현재 3남매를 둔 중년인생이다。

그러나 이게 한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유교관념에 젖은 동네사람들이『나이만들면 어른이냐, 혼인식을 올려야지』라고 놀려대는 그들의 눈총이 따가왔다。 더구나 여인네들에겐 가슴에 멍이 들정도였다。 동네 젊은이들의 결혼식때는 쥐구멍이라도 찾고싶은 심정이었다。

두메산골에서 땅뙈기나 일구는 이들로서는 돼지도잡아야 하는 결혼식이 엄두가 안났다。 이를 딱하게 여긴 동네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두 신랑에게 버스2대만 대절하라고 했다。 동네사람들이 3~4천원씩 부조하고 점심은 싸들고 설악산으로 가기로 한것。 동네사람들에겐 관광여행이고 이들두쌍에겐 멋진 결혼식이 된 것이다。

이들두쌍에겐부조금이 20만원정도씩 들어왔고 버스대절료, 드레스임대료등을 제하고도 몇만원씩 남아 金씨는 방위성금을 5만원이나 냈고, 宋씨는 돌아오는 버스속에서 소주 한 상자를 사서 멋진 피로연을 열었다。 【晉】

◇동네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명산雪嶽을 배경으로 늦결혼식을올린 宋炳茂씨부부㊧와 金大天씨부부㊨

流星의 賊 <344>

風前의 燈火 ⑲

李炳注作 李友範畵

가등청정군, 즉 적의 제1번대가 남대문가까이 왔을 때 남대문은 열려 있었다。 관원은 물론 병사 한명을 잠입시켰던바 성중이 비어있다는것을 알고 전군을 입성 (入城) 시켰다。 이른바 무혈입성 (無血入城) 이란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제2번대인 소서행장군은 여주→양근→삼전도의 루트로 해서 동대문에 다쳐 굳게닫힌 문을부수고 입성했는데 이들도 역시 무혈입성이었다。 이어 3번대 흑전장정군도 입성했다。

성안엔 조선군 병사는 물론 주민 하나도 없었다。 완전한 공성 (空城) 이었다。 난민 (亂民) 들이 방화 약탈한 흔적만 스산했다。

소서와 가등은 같이 성내를 일순한 다음 각기 진을 설치하기로 하고 성내의 치안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성 안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합의 (合意) 였다。 그들은 자기네 군졸들에겐『이유없이 주민에게 폭행이나 위해를 가해선 안된다』『약탈해선 안된다』『술집에 들어가선 안된다』는 등의 경고를 하고 주민들에겐『반항하는 행동이 없는 한 안온한 생활을 보증하겠다』는 뜻의 방을 붙였다。

달리 생로 (生路) 가 없는 사민 (士民) 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방리 (坊里) 와 시전이 종전처럼 되고 적병과의 교역도 시작되었다。

적은 사대문을 엄중히 지켰다。 그곳을 출입하는 조선인은 적이 발행한 첩 (帖=증명서) 을 휴대해야만 했다。 일종의 양민증 (良民證) 같은 것이다。

이때에도 아부하는 놈이 있었다。 예빈사 (禮賓寺) 의 서원 (書員) 이었던 박수영 (朴守英) 같은 놈이다。 그놈은 적에게 아부하여 적의 힘을 업고 동포를 괴롭히는 것을 행활로만아니라, 혹시 적지 (敵地) 에서 적에 항하는 일을 꾸미려는 동포가있으면 이를 적에게 밀고하여 죄없는주민이 적에의해 참살되었다。 물론 터무니없는 밀고도 있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해서 참살당한 시체가 종루 (鐘樓) 와 숭례문앞에 쌓여 백골 (白骨) 로 산더미 같았다고 한다。

아부도 갖가지란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가없다。 김수 (金晬) 이란 자는 왜군의 대장 (將長) 항되는 놈에게 왕실의 딸이니 고관대작의 첩이니 하여 여자를 갖다 바치다가 그가운데의 하나가 창녀 (娼女) 였다는 것이 탄로나서 칼을 맞아죽었다는 얘기가 야담에 수록되어있다。

벌들어 피난을 못간 허신 (許愼) 이란 선비는 집안에 땅굴을 파고 은신하여 지내다가 한성에서 일어난 이러한 추잡한 얘기들을 듣고『역부족패 (力不足敗) 는 불가피 (不可避) 하나 간사하게 스스로를 팔아먹는 짓은 목불인견 (目不忍見) 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찌 명교 (明敎) 의 나라라고 하겠는가。 불신군 (不信君) 불신민 (不信民) 불신심 (不信心) 이니 이런 나라에 살아서 뭣할 것인가』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 자결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느때, 어느 나라치고 낙성 (落城) 한 수도의 풍경이 비참하지 않을까만 임진의 그날, 서울의 수모와 곤욕은 이를 형언할수 없더라고 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2>

明暗 ⑥

朴婉緒作 金光培畵

가운을 어머니에게 벗어주고 드러난 인재의 옷차림은 말쑥한 신사복이었다。 잠바차림에 익숙한 수지 눈에 그건 매우 생소했다。 혼색시의 댕기처럼 무럭대고 새빨간 넥타이가 바람에 휘날렸다。 학사모가 천근의 무게로 짓누르는양 노파의 작은 키는 더욱 자아져 땅속으로 잦아들것 같았다。 그런 모자를 훔쳐보고있는 게 무슨 부도덕행위처럼 심…

…원 티가 인물하도록 역력했다。 그는 범인 (凡人) 이었다。 그는 결코 특별하지 않았다。

인재와 수지는 남이 다 알아주는 커플이면서도 학교축제에 같이 간 적이 없었다。 인재에게 신사복이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럴때 수지는 인재의 우울을 달래주기위해 기꺼이 그가 잘 다니는 싸구려 술집을 따라다녔다。 그의 기분을 맞추려고 받아마신 척한 몇잔의 소주로 거나해진 기분으로 거리를 축축하다가 멀리 학교쪽 하늘에서 화려하게 개화하는 축제의 불꽃을 본적도 있었다。 폭죽이터지는 소리와 함께 젊은 함성도 들렸다。 그래도 축제에 못간게 조금도 비참해지지는 않았다。 비참해지기는 커녕 한층 오만한 마음으로 그 부박하고 허망한 놀이를 경멸했다。

「그는 특별해」 그의 사시장철 변함 없는 구질구질한 잠바차림조차 그가 특별하다는 표시였다。 그가 특별하다는 건 어느 경우에나 수지를 만족시켰다。 축제에 못간 건 단지 그에게 신사복이 없었기때문일까? 아니었다。 그가 특별하기 때문이었다。 못간게 아니라 안간거였다。

한 싸구려 잠바가 말쑥한 신사복으로 바뀐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건 어째서 신사복이 더 잠바보다 훨씬 더 가난스러워보이나는 의문이었다。 수지는 지금까지 둘사이를 험증 나지않게한 이질감의 본질을 비로소 발견한 것 같았다。 그것은 결코 매력이 아니라 끝내 동화될수 없는 신분의 차이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는 특별해」 그가 특별하다는 게 사실이든 환상이든 그게 결코 유별난 앞날의 약속은 되지못했다。 그건 다만 일시적인 오만이었고 청춘의 도취였다。 졸업식은 광그시절의 종말을 의미했다。 누구나 학사, 석사, 박사 가운속엔 한결같이 범인의 제복을 감추고 있었다。

인재가 다시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썼다。 노파가 대견한듯이 그를 우러러봤다。 인재는 노파에겐 할 노릇 다했다는듯이 현실을 딴데로 찾고있었다。

특별한 그를 위해 어떤 유별난 삶을 꿈꿨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지금와서 확실해진건 결코 유별난 삶이 그를 기다리고있지는 않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가운과 학사모를 노부모에게 입히고 사진 찍는 일은 졸업식때마다 흔히 볼수있는 광경이었다。 그들 모자의 효도의 춘극 (寸劇) 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인정미도 있고 해학도 있어서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했다。 그러나 수지는 그 춘극이 끝난후에도 선뜻 그들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새롭게 발견한 인재가 그녀의 마음에 거북하게 걸렸다。 인재가 달라진건 구질구질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W.(2nd Fl.) Tor.Ont. M6G 1L1
☎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약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자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냉장고·에어콘S 749－3178
시설·수리·판매 김 진 환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Mr. Lee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옥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종 대 ☎ : 493－8894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장의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CO. PICK UP & DELIVERY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873 Queen St. W. 전화: 366－2673, 366－2206

자동차 매매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전화: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부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illegible]－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 종합회계사무소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 A Bloor W. ☎ : 533-7353(B)

태권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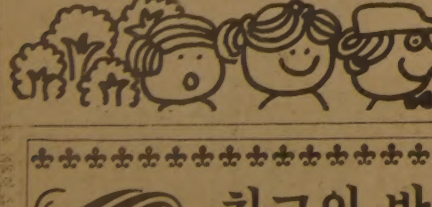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 박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 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 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입주하셔서 4명의 아이와 가사를 돌 보아 주실분 찾습니다.
전화 : 827-7057 Mrs. 최

스토아 유경험자 캐셔구함 (남,녀 관계 없음)
학생 환영함, FULL TIME도 가능함.
오후 4시~오후 9시까지
전화: 368-8147(오전중에 연락바람)

유 경험자 여자 캐쉬어 구함
☎ : 656-3020 (Davenport x Oakwood)

1) 꽃집에서 일하실 젊은 여자[illegible] 지역)
2) DONUTS SHOP에서 일하실 젊은[illegible] (미시사가지역)
(Burnhamthorpe Rd. W. × Mavis)
시간 : 8 am ~ 4 pm(Full Time)
: 2 am ~ 11 pm(")
월 ~ 토 전화: 769-9854, 762-1572

오리엔탈팔레스 청소하실분 구함
전화 : 533-3545

Baby Sitter (베이비 씨터) 구합니다
전화 : 532-1054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전화 : 499-4459, 299-1431

매매및 양도

2층에 2 베드룸이 딸린 그로서리 스토아매매, 개인 사정에 의해 급매코저 함, 좋은 조건에 팔 수 있음.
K. C. HERLT REAL ESTATE CO.
TEL : 487-8187 Mr. Martin

맥스 밀크 프렌차이스 팝니다.
연락 : 368-0686, 292-2024 (저녁)

여자용 오메가 시계 급매.
(Brand New, 보증서 포함)
전화 : 533-2364 Mrs. 김

가게 급매(4 베드룸 건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급 매"(아파트 밀집지역)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7,500 ☎ : 248-0823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684 St. Clair.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코너에 위치한 상업. 가정집 포함한 드라이크리닝 사업, 13% 돕 지.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드라이크리닝에 필요한 일절 장비 팔고자 함. 중앙지역.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함.
Call, Tony ☎ : 751-1947 7 a.m.-7 p.m.

조그만 버라이어티 스토아급매(로타리오 머신 있음) 주매상 : $2300, 렌트 : $350(월)
714 Scarlett Rd.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지렁이 사업을 하실분에게, 74년도 대형 벤트럭있음(깨끗하고 콘디션 좋음)
의자와 박스도 구비되어있음. ☎ 651-6543(Mr. Lee)

"MIKE MUNCHIES 햄·버거 SHOP"
주매상 1,200 렌트 350 리스 3년6개월+5년 옵션
아스킹 $59,500($25,000 다운페이) 2812 BATHURST ST.
전화: 733-2008 마이클
: 781-3341 Mr. 박 (오후 6시 이후)

COIN LAUNDRY
Private, New System, Address:3412 Dundas St,W,Tor.
30 Wash Machine, 11 Dryer,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 $65,000(Only one price)
Profit rate: 37%, TEL: 762-1264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3,000 렌트:$515(하이드로 포함)
전화:694-7848

장래성이 확실하며 급성장이 기대되는 새로 지은 Mall안에 Convience Store매매, 모든 장비, 갖춰 있음.
☎ : 267-8747 Mr. Sherman

Smith Corona 영문전동타자기 $500
최신형, New, 사무용이나 학생용으로 무난.
☎ : 533-2364 김.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가정의 벗 한국일보

생선가게 팝니다. (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상류 미시사가 지역 (PRIVATE SALE)
4 베드룸, 2730 Sq.ft.의 2층집.
FIRE PLACE 및 견고한(돌) 전축.
그 외 많은 좋은 조건의 EXTRA
문의: 820-0748 피 터

좋은 위치에 자리잡아 많은 단골손님을 갖고 있는 미용실 팝니다.
장비 : 드라이어(6개), Heat Light, Styling Chairs(5개)
Basins(3개), Waiting Area
전화: 255-9324 Carmen

Corner에 위치한 가게 세놓읍니다.
(St. Clair × Silverthorn)
1734 St. Clair. W. 전화 : 742-0434

79 OLDS CUTLASS SUPREME
305 Aircon AM/FM Stereo Cassette
38000마일 $7,000 전화 : 223-2449 윤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월~토 (9시 a.m.~9시 p.m) 꼭히 관심있는 분의 연락바람.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VARIETY STORE 시설과 스탁 급매
2607 Eglinton W.
전화 : 789-0501 Mr. Singh

하우스 렌트

2베드룸 (Flat) 세놓음. (6시이후연락바람)
$350(월)+가스+하이드로, Stove냉장고 있음.
크리스티·블루어 써브웨이중간☎851-1314

셋방 있음.
1 베드·룸 + 부엌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 (Mr.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 (IC & I) ☎ : (B)497-0600 (R)298-8558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이훈모 부동산 ☎ : 225-1204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최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 869-0589, ☎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366-0960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식 당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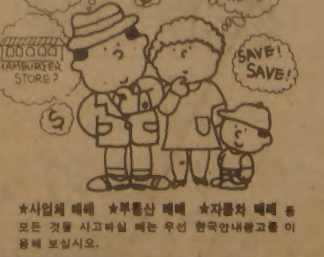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5일에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한국일보 안내광고